진보의 요람, 제35대 관악 사회대 학생회

2017 하반기 확대간부수련회

2017.08.14.-15

@호암교수회관

(　　)반 (　　)의 자료집입니다.

- 글 싣는 순서 -

하나, 과/반 자치 진단하기

둘, D반 구성이냐, 자치 역량의 복원이냐.

셋, 과/반 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계획 토론

참고자료1. 제35대 사회대 학생회 총노선

참고자료2. 과/반 특위 1차 업무

참고자료3. 과/반 특위 2차 업무

하나, 과/반 자치 진단하기

0. 학생자치, 뭘까?

자치(自治)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즉 학생자치란 학생들이 스스로의 일을 돌본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단순한 의미에 따른다면 학생들이 무엇이든 스스로 한다면 학생자치를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사회에서 '학생자치'는 특정한 학우들의 전유물로 사고되고 있고, 학생자치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과 '대학생으로서 학생자치를 한다.'는 말 사이에는 의미 그 자체로는 동어반복이면서도 학생들이 느끼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

이러한 간극은 먼저 '학생자치'라는 언어에는 학생사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함의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기에 본인이 속한 공동체와 학생사회를 타자화하면 할수록, 개인의 주체적인 삶과 자치는 별개의 일로 여겨지며, 도리어 학생자치에 발을 들이거나, 자치에 참여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주체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자치'에 대한 장벽을 해소하는 것은 학우들로 하여금 본인이 발 딛고 있는 공동체를 개인의 삶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것으로부터 가능해진다. 특히나 개개인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반 학생회의 경우에는 더욱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삶을 그가 속한 공동체라는 영역에 사회적으로 위치 지은 뒤에는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혼자서 개인적 영역의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제 개인은 공동체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되고, 개개인은 본인들의 생각을 투영시키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그렇기에 자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직결된다. 본인이 속한 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해나가려는 의식적인 활동들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학생자치는 학생사회 내에서 개개인이 주인으로 서는 과정이며, 동시에 주체적이고 민주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1. 자치의 필요성

2. 과/반 자치의 현재

3. 어떤 과/반 자치를 복원해야 하는가

논점1. 자치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던 경험을 떠올려봅시다. 지금 확대간부수련회를 비롯해 본인이 학생사회에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논점2. 내용을 생성하고 공동체를 구성해나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견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이견을 마주하고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얘기를 나눠봅시다. 또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얘기해봅시다.

둘, D반 구성이냐, 자치 역량의 복원이냐.

1. 경제/D반 신설안이 제기되었던 배경 및 필요성
 1.1. 경제/D반 신설안이 제기되었던 배경

2017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하 사회대)은 사회과학계열[1] 선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입학전형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대부분의 과/반의 인원 변동이 급격할 것은 불 보듯 명확한 일이었고, 이는 새맞이를 비롯한 각 과/반의 운영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였다. 이에 사회대 학생회는 입학전형의 변화에 발맞춰 현행 과/반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6년 하반기 사회대 단과학생대표자회의(이하 단학대회라 한다)에서 '3분할안을 채택하되, D반 신설안이 시행될 여지를 열어 둔다'는 안이 가결되었다.

아래의 표는 2016년 하반기 단학대회에 발제한 안건에서 수록되어 있는 '경제학부 3분할안 가안'의 도표이다. 현행안인 3분할안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안건이다. 이 안건이 채택됨으로 인해 현재는 각 과/반의 인원이 아래와 같은 도표와 상당 부분 유사하게 되었다.

	경제A/불꽃	경제B/飛	경제C/始	사회/惡	사복/한길	심리/알	언론/꼼	정치/일치단결	외교/나침	지리/겨레	한음
수시	34	35	35	17	7	15	21	29	29	16	20
정시	17	17	16	10	13	9	0	8	8	8	0
광역	광역 19명은 합격 정원만 광역이고, 모집 단위는 개별 학과로 진행하므로 합격한 전공에 해당하는 과/반에 배치한다.										
계	51	52	51	27	20	24	21	37	37	24	20

아래의 표 역시 2016년 하반기 사회대 단학대회에서 발제한 안건에 수록되어 있는 '경제학부 4분할안 가안'의 도표인데, D반 신설안은 사실상 이 안건을 계승하는 형태로, 경제학부 반이 세 개에서 네 개로 증가하게 된다.

	경제A/불꽃	경제B/飛	경제C/始	경제D	사회/惡	사복/한길	심리/알	언론/꼼	정치/일치단결	외교/나침	지리/겨레	한음
수시	26	26	26	26	17	7	15	21	29	29	16	20
정시	13	13	12	12	10	13	9	0	8	8	8	0
광역	광역 19명은 합격 정원만 광역이고, 모집 단위는 개별 학과로 진행하므로 합격한 전공에 해당하는 과/반에 배치한다.											
계	39	39	38	38	27	20	24	21	37	37	24	20

1.2. 현행 3분할안의 문제점과 경제/D반 신설안의 필요성

현행안인 3분할안의 단점은 경제학부 반의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맞이와 과/반 운영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 문제점들은 인원수가 감소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D반 신설안을 지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1.2.1. 새맞이의 어려움

우선 선배에 비해 새내기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뒤풀이나 새터 방에서 새내기 수에 비해 선배가 적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과/반 인원수로 인해 신환회와 뒤풀이 장소를 예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점은 2018년 새맞이 시기가 되면 경제학부 과/반의 새내기와 2학년을 합친 인원수만 해도 100명을 넘게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

가 될 수 있다. 또한 새내기의 인원이 많아 새짱들이 새내기들을 하나하나 챙겨주기 어렵다는 점, 너무 많은 인원수로 인해 새맞이 기간 동안 새내기들이 다 같이 친해지기보다는 특정 집단끼리만 친해져 반 공동체가 상당히 파편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사회대 전체의 새맞이 행사인 새내기배움터(이하 새터라고 한다)에서도 경제학부 과/반의 지나치게 많은 인원수는 문제가 되었다. 새터의 둘째 날 오전 행사인 해방 5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학부 과/반들은 60명을 상회하는 반면에, 소수 과/반은 40명 내외로 그쳐, 현격한 인원 차이로 인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반을 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개별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인원 차이가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들은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최대한 인원 차이가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임들을 고르고, 경제학부 과/반과 소수 과반이 함께 게임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나 이 과정 자체가 프로그램 준비에 부담이 되었다. 또한 해방 5종 게임 전 응원이나,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응원 등에서 경제학부 과/반의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다른 반의 기를 죽였다는 평가도 존재하였다. D반 신설안을 시행하게 된다면 각 경제 과/반의 구성 인원이 40명에 못 미치므로 경제학부 과/반 새맞이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D반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제시되었다.

1.2.2. 과/반 운영상의 어려움

경제학부 과/반의 많은 인원은 새맞이 이후 과/반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경제학부 과/반의 반방이 17학번 입학 이후 상대적으로 협소해졌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불꽃과 飛반은 한 공간을 둘로 나누어 쓰고 있고, 始반은 한 개 방을 쓰고 있는데, 17학번 이후 학번 당 인원수가 50명 이상이 되면서 과/반방이 그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비좁게 느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반의 인원이 증가하여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 상태가 유지되어 2020~2022년경에 이르면 경제학부 한 반의 인원이 200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 되는데, 이 경우 현재 넓이의 과/반방을 그대로 쓰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반방의 협소함은 D반 신설안을 시행할 근거가 된다.

물리적인 과방의 협소함 이외에도, 지나치게 많은 인원수는 과/반 구성원끼리 친목을 다지는데 문제가 된다. 앞서 상술하였듯이 새맞이 기간만 하더라도 한 학번 당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반 전체가 친해지지 못하고 끼리끼리 친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새맞이 기간 이후에도, 과/반 인원수가 지나치게 많아 구성원 모두와 친해지기 어렵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지나치게 많은 인원수로 인해 과/반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거나, 과반체제 개편안을 비롯하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서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점 등이 현행안의 과/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입시체제 개편으로 인한 과도기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과/반 내의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D반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과/반체제 개편안 논의의 경과

1. 2016 상반기 확대간부 수련회에서 과/반체제논의를 시작
2. 2016년 5월 확대간부 수련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정리하여 '과/반체제 대토론회' 개최
- 완전학과제(3분할안) / D반신설안(4분할안)/ 랜덤 배정안 /경제학부 분배안(3+6분할안) 의 4가지 방안을 최초로 확정
3. 2016년 방학기간 동안 각 안별 논점 및 장단점 정리

4. 2016년 9월 '경제학부 과/반체제 개편 토론회' 개최 이후 경제학부(a,b,c반+광역생)에게 D반으로 적을 옮길 의향이 있는 학우 설문조사 실시
5. 29차 단운위 때 '단운위+집행위원+자치회로 구성되는 과/반체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에 마련된 과/반체제 개편안에 대한 피드백 및 수정
- 랜덤배정안이 논의에서 제외. 나머지 3가지 안의 이름이 '경제학부 3분할안/경제학부 4분할안/경제학부 3+6분할안'으로 완비됨
6. 2016년 9월 30일에 과/반체제 심의위원회를 통한 논의 시작
- 1. 경제 D반 희망자 설문조사 결과가 19명이 나와서 실현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확인
- 2. 3+6분할안의 경우 비경제반에 배치될 경제학부 신입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3. 4분할안의 경우에도 단순 새맞이 진행을 넘어서 이후 신설될 경제 D반의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참가할 인원일지에 대한 회의적 의견 제시
7. 31차 단운위에서 심위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과/반체제는 경제학부 3분할안을 기본으로 하되 이후 학생회에서 계속 논의하여 필요할 경우 2017년 이후에 D반(4분학안)을 만들 여지를 남기자는 안을 단학대회 단일안으로 상정하여 단학대회 통과
8. 2017년 새내기배움터 이후 상반기 확대간부 수련회를 통해 각 과/반별로 새터 진행 및 새로운 과/반체제 하에서의 학생자치의 전망 진단(현 과반체제의 애로사항 및 변경 과/반체제의 한계를 진찰)
- D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2017년이 마지막이기에, D반 설립 여부를 올 상반기로 마무리 짓기로 결론을 낸 35대 학생회의 판단아래 D반 논의 추진
9. 2017년 4~5월 D반 신설안의 추진. 과/반 순회토론회 및 D반 수요조사 실시
10. 2017년 5월 26일 단운위에서 D반 구성 TF 신설안 부결 및 과/반 특별위원회안 인준
11. 2017년 5월 29일 단학대회에서 과/반 특별위원회안 최종 인준

* 완전학과제(3분할안) : 현행 체제와 같이 3반에 경제학부생을 전원 분배하는 방안
* D반 신설안(4분할안) : 새로운 경제과반을 신설하여 경제학부생을 4반에 분배하는 방안
* 경제학부 분배안(3+6분할안) : 기존 경제 a,b,c반 인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경제학부생을 정외 과/반을 제외한 6반에 분배하는 방안

경제D반 신설에 대한 의견서 (위 박스 10,11번 절차의 배경에 해당함)

1. 경제 D반 신설안의 조건적 문제

1) 인적 역량의 문제

적어도 제가 알기론, 최근 사회대 학생사회가 인적 역량의 부족을 실감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나마 매년 새맞이 정도에서 새짱/새하사 등을 통해 역량을 보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대 학생회의 중앙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인 집행부 모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회대 학생회 중앙집행력이 그러할진대, 각 과/반별 집행력은 크게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몇몇 과/반을 제외하고는 과/반 자치의 확장은커녕 재생산마저 힘든 상황이고, 그간의 과/반 전통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은 하나둘씩 집행력의 부족으로 포기되어왔습니다. 즉, 몇몇 과/반에서의 주목할만한 약진이 없었던 바는 아니나, 사회대 과/반들은 전반적인 축소재생산을 겪고 있고, 이는 1,2년의 일이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지속되어온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즉, 학생사회는 기층(과/반)으로부터 새로운 주체를 재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집행력의 문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 입학 때에는 사회대로 소속되어 전공이 없어, 전공탐색과목 3과목과 학문의 기초 영역 중 1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하여 소속 학부를 정하는 입학생 혹은 이러한 제도.
2) 정운찬 총장 시절에 서울대 입학 정원 자체를 모든 과 차원에서 줄였기 때문에, 당시에 비해 오늘날의 입학정원은

이러한 주체 재생산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과/반을 신설하고 이에 사회대 학생회가 책임지고 집행력을 대면서 지속가능한 형태의 공동체를 '발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과/반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저는 과/반 학생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2년의 선배층과 이를 통해 축적된 자치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최소 3년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내기들을 새로 받는다손 치더라도 최소 2년의 과/반 활동을 결의할 수 있는 선배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이 개척한 공동체에서 2~3학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줄 헌신적 주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 D반 신설 초기에 이러한 선배층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부유하는 1학년과 사라진 선배층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망한' 과/반 학생회가 하나 더 생겨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대 학생사회의 주체 부족의 문제로 돌아간다면, D반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만약 헌신적인 D반 선배로 역할할 주체들이 타 과/반으로부터 유입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들은 학생자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과 열정을 가진 주체들로서, D반이 아니었더라면 사회대 학생사회의 다른 곳(자신의 원래 과/반이든, 사회대 중앙이든, 여타 동아리이든)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어야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사회대 학생사회의 역량을 다른 곳에서 빼와서 D반에 몰아넣는다는 것인데, 전반적인 역량부족에 시달리는 현실 속에서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악적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서 D반에서 새출발하지만 2년을 결의할 헌신적 주체가 충분히 확보된다는 전제를 깔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단언컨대 비현실적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나 기존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성 없이 새롭게 발명된 공동체에 어느 정도의 자기희생을 감내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D반 신설안은 사회대 학생회로서 책임질 수 있는 안도 아니며, 사회대 학생사회 전체로 봤을 때 유익한 안도 아닙니다. 이번 학생회의 임기는 11월에 끝나기에, D반을 새로이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후 2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나아가 학생사회 전체적인 인적 역량 부족의 문제로 돌아가 봤을 때, D반을 새로 만들어서 역량을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2) 물적 기반의 부재

현재 대다수 과/반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제가 학생사회에서 활동할 때까지 과/반들이 호소했던 문제는 전통의 소실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전통의 발명이었습니다. 과/반은 약간의 학과 정체성과 광역생의 경우 랜덤추출로 묶여지는 임의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과/반들은 공동체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자신을 존속시켜왔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봐왔던 한음반은 언제나 새터에서 이기는 반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해왔고, 다른 과/반의 새짱들과는 다르게 한음반의 새짱들은 그러한 과/반 전통 속에서 교육받습니다. 이는 한음반의 결속을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고리가 되기도 했지요. 마찬가지로 꼼반에서는 학회 전통의 유지와 학회간 경쟁구도 형성을 통해 과/반 자치 활성화를 담보해왔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학회가 사실상 무력화된 지금, 학회를 대체할 새로운 '전통'을 발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제D반은 이 모든 것을 백지에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물론 다른 과/반들에서 전통이 완전히 소실되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새로운 전통을 발명해내는 것은 모든 과/반의 과제가 되었기에 이는 새로운 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인 평가로부터 교훈을 추출해낼 수 있는 기존의 과/반들과는 난이도부터 다릅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통을 형성할 2~3학년층이 서로 다른 과/반 경험을 가진 이질적인 개인들의 집합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공동체성 자체의 위기 속에서, 임의적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나마 학과제 전환 이후에 기대되었던 것이 바로 학과 정체성입니다. 비록 고학번일지라도, 같은 과이며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라면 이전의 임의추출로 만든 과/반 공동체에서보다는 더 접촉면이 넓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지요. 학생자치의 무너진 유산을 살리지 못하더라도 학과 정체성이 굳건히 버티고 있다면 어찌되었든 주체만 있으면 새로운 시도를 해봄직하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D반을 구성하고, 그 초기 기반을 경제학부가 아닌 선배들이 구축한다는 발상은 이러한 학과 정체성에의 의존마저 어렵게 합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부분학과제로의 과/반 체제 전환 이후 꾸준히 강조되어왔던 학과 정체성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과거 평가에 역행하는 셈입니다.

과/반방의 문제도 경시할 수 없습니다. 과/반의 공간적 근거지인 과/반방은 공동체 유지에 핵심적인 물적 기반입니다. 그러나 사회대 학생사회는 지난 5년간 학생공간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이는 단 한 차례도 받아들여진 바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성과가 있다면 세미나실이 남학생휴게실로 전환된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과/반방을 얻어내는 것은 약속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과/반방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경제D반에 미칠 악영향은 파국적입니다.

단순 공동체를 넘어 기층 단위로서의 학생회로 경제D반을 고민해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보입니다. 과거 학생회가 오랫동안 없었던 경제C반, 심리알반 등에서 다시 학생회를 세우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몇몇 헌신적이고 선도적인 주체들의 자기희생이 담보되어야했고, 그마저도 과/반 대중의 호응 없이는 쉽게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D반에서 학생회를 세우는 문제는 이들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경제D반 학생회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는 데에만 2년 정도는 써야할 것이고, 이를 담당하고 책임질 주체들의 결의는 필수적입니다. 이것 없이는 또 하나의 궐위단위가 생겨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2. 경제D반 신설안의 정치적 문제

1) 학생사회에 대한 평가 부재

현 경제D반 신설안의 문제의식 속에는 기존 학생사회에 대한 평가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 과/반의 숫자가 많아서 새맞이가 힘들다는 수준의 실무적 평가만 들어있을 뿐, 학생사회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D반 신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등의 평가와 전망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피상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만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친목' 등의 단어로 뭉뚱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학생사회와 오늘날의 학생사회가 무엇이 변화했는지, 어떤 변화가 친목과 결속을 어렵게 하는지, 친목을 발목 잡는 이유가 비대한 인원에서 나온다고 파악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부제 전환(2002년) 이전에는 분명히 이보다 더 많은 인원[2]이 경제학부 과/반에서 지금보다 더 활발히 활동했는데, 이는 비단 인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생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 속에서 제시되는 대안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실무상의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기층단위를 건설해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카드뉴스에서 제시되는 선후배간 인원 불균형은 당장 내년만 되어도 해소될 것입니다. 과방 문제는 오히려 과별 숫자에 따른 과방 재배치를 논의해야할 문제입니다. 친목이 소원해진 것이 비대한 인원 때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조차 모호합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근거만으로 비춰보기에, 부족한 역량 속에서 학생사회의 확대재생산과 부흥을 계획해야할 사회대 학생회에서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업입니다.

2) 필요성의 모호함

앞선 파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왜 필요한지가 여전히 매우 모호합니다. 필요성이 모호하다는 것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회대 학생회 집행부 교육자치팀에서 제출한 토론안에 따르면, ⅰ) 인원 비대로 인한 새맞이의 어려움, ⅱ) 인원 비대로 인한 친목의 어려움, ⅲ) 물리적인 과/반방의 협소함 정도가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시되는 필요성을 하나씩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원이 많아서 새맞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새짱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는 새맞이의 특성상, 관할해야할 새내기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비단 새짱의 피로도 뿐만 아니라 과/반 새맞이 전체의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 한 해만에 판단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니와[3], 오히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획도 많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동회처럼 대형 사업을 기획해볼 수도 있을 것이며, 새짱 일원체제 대신 여러 조로 나뉘는 분권형 새맞이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 대안이 무엇이냐에 있기 보다는, 이러한 대안들은 시도되어보지도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50명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도 존재하고 있고, 이에는 뚜렷한 장단이 존재할지는 몰라도 반드시 과/반으로서 쪼개놔야만 하는 필연이 존재하지는 않습니

다.

두 번째로, 친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40여명의 공동체에서는 친목이 잘 기능하고 있습니까? 과/반에서조차 친목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학생사회의 전반적인 기류이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파편화의 결과일 따름입니다. 이에 맞서며 공동체의 가치를 부르짖어왔던 것이 학생회 활동가들의 오랜 역할이었습니다. 이를 인원 비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평가입니다. 만약 경제D반을 신설한다고 한들, 경제학부 과/반들에서 현재보다 더 친목 기능이 발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인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리적인 과/반방의 협소함의 문제입니다. 위에서도 일부 언급했다시피, 이는 과/반방을 새로 따내고 나서야 언급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가진 공간 내부에서의 재조정 문제에 불과하며, 결국 경제D반을 위해 어떤 과반의 공간을 내주냐의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론/꼼반의 방을 커뮤니케이션센터로 이전한다거나, 새롭게 지어질 경제학부 건물에 경제학부 과/반방을 만든다거나 하는 정도이고, 모두 올해 내로 될 수 없는 일들로 보입니다.

3. 대안에 대한 단상

사실 위 의견서는 반대에 대한 것이기에, 저 또한 대안에 대한 난망함은 여러분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역량과 무너진 토대를 고려해봤을 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차선이자 최선책임이라고 믿으며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1) 이른바 '과/반 특위' 구성을 통한 과/반 자치 진단 및 지원 방안 논의

앞에서 지적한 바 있듯, 우리는 언제나와 같이 '과/반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인 평가는 부재합니다. 경제학부 과/반들이 겪고 있다는 위기는 정확히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지,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무엇이 되어야할지를 제대로 논의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단순히 인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근원적으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과/반 주체의 재생산이 난망한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것을 유발하는 우리의 실제적 조건들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간단하게는 왜 학생회 활동가로 남는 학우들이 점점 줄어드는지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왜 학우들이 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는지, 학우들이 학회와 소모임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죽어만 가는 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확대간부수련회 등 한 두 번의 단발적인 논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사회대 학생회에서 D반 신설을 주장하게 된 계기인 과/반 자치의 위기는 실재하는 문제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반 자치의 상황을 분석하고 정치적 논쟁을 촉발할,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집행에 옮길 책임주체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의 대중 토론회도 거치고 사례 연구도 하면서 과/반의 현실에 대한 정치적 토론의 계기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이를 위해 이번 사회대 단학대회에서 과/반 및 학생사회 전반의 정치적 무기력과 재생산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과/반 특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과도기 경제학부 과/반에 대한 사회대 학생회 차원의 지원 확대

현재 인원은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이에 맞춰가기 위한 경제학부 차원의 문화/전통은 자리잡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2년 정도의 한시적 지원이나마 사회대 학생회 차원에서 과도기 경제학부 과/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반 내 무너진 학회를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학부 내 학회 네트워크 구성 등을 지원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반의 문제는 과/반의 책임으로 두었던 그간의 분리에서 탈피하여, 확대간부수련회에서 마련했던 자리와 같이 과/반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자리를 더 많이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3) 경제학부 과/반 간 연대 구축

1과 1반으로 이어지게 될 소수 학과와는 달리, 경제학부의 경우 한 학과임에도 과/반이 3개나 된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그간 ABC반의 세 반 간에도 활발한 교류사업이나 공동사업이 많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정이다 보니 경제학부 서포터즈나 학과 사무실에서 준비하는 몇 안되는 사업 말고는 학과 정체성을 확보할 길이 모호했습니다. 경제학부 과/반 학생회가 학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주축이 된다면, 비단 공동행사 뿐만 아니라 과/반 내 결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3년의 과도기를 이끌어갈 주체의 구축

결국은 인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의 문제입니다. 학생회도 세워야하고, 과/반 내 공동체도 꾸려야하고, 경제학부 과/반간 연대도 좋지만, 과도기를 매끄럽게 이행하고 새로운 전통을 발명해낼 주체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당장 과/반에 학생회 사업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농활처럼 대중적인 사회대 학생회 사업에서부터 학생회와의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가봅시다. 아예 학생회가 없었던 곳을 새롭게 조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제학부 과/반의 위기 타개를 위한 사회대 학생회 차원의 집중적인 조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고 조직하며, 사회대 학생회 집행부를 파견하고 공동주최해서라도 과/반 사업을 지원해봅시다. 그 편이 경제D반 신설보다 훨씬 덜 힘들고, 책임질 수 있으며, 효과적입니다.

논점1. 1차 업무 진행 결과 불꽃반 시반에서 인원수의 증대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감소한 한음반에서도 17학번의 파편화는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을 보아, 과/반 운영에 있어 개인이 파편화되는 문제점이 단지 인원수의 문제로 한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원수의 증대는 과/반 자치를 위축하는 직접적인 문제점일까요, 아니면 경제학부 과/반의 문제는 전체적인 과/반 자치의 역량을 복원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 실무적인 어려움과 극복방안

- D반 구성은 가능한가? (공간 문제, 기반 생성의 문제)

논점2. 경제학부 과/반의 자치 복원을 위해서 사회대 학생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봅시다.

논점3. 경제학부 과/반의 연대구축 등 경제학부 과/반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구상해봅시다. (세번째 토론과 연계해서 이후에 논의를 확장해 봐도 좋습니다.)

더 적습니다.

3) 스스로 적었다시피 선후배간 인원비율이 맞게 되는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셋, 과/반 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계획 토론

*팀을 구성해서 토론해봅시다. 사업의 목적과 집행 방향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면 과/반 특위 1&2차 업무를 보면서 논의를 진행해보세요!

● 과/반특위 사업목표

- 과/반 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각 과/반에서 행동에 옮긴다.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과/반별 실천과제

① 학회 운영을 체계화하고 학회를 활성화한다

- 학회 구성원들이 학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 기존 사회대 과/반의 학회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되었을까?
- 운영이 잘 되는 학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 사회대나 과/반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학회 지원 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② 평등하고 내실 있는 새맞이를 만든다

- 새맞이의 목표는 무엇일까?
- 새맞이에서 '내규'는 왜 필요할까? 새맞이가 끝나면 어떨까?
- 내규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 흔히 '내규'는 구성원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처럼 느껴지고, 많은 친구들이 내규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각 과/반은 새맞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 새준위(새맞이준비위원회)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새준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 우리 과/반의 새맞이 자료집을 더 내실있게 만들어볼 수는 없을까? 자료집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

③ 과/반 학우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일상 사업을 집행한다

- 학생회는 왜 일상 사업을 집행해야 할까?
- 과/반 학우들의 요구와 필요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 우리 과/반이나 다른 과/반에서 진행했던 일상 사업 중 학우들의 호응을 얻은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왜 그랬을까?

④ 사회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정치 사업을 집행한다

- 과/반 학생회가 정치 사업을 해야 할까? 과/반 학생회가 정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까?
- 정치적 사안을 과/반에서 다루면 어쩔 수 없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치 사업에 관한 학우들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과/반 학생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우리 과/반이나 다른 과/반에서 진행했던 정치 사업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 정치 사업이 그저 연대단위 이름으로 과/반 명의를 올리거나 성명을 하나 발표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과/반에 성과를 남기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참고자료1. 제35대 사회대 학생회 총노선

제35대 사회대 학생회 시대인식 & 총노선

0. 짓밟힌 민주주의와 대중의 분노
 -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 한국사회와 서울대를 돌아보다.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 사회는 급격히 요동쳤다.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과 사적관계에 있을 뿐인 어떤 개인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추문이 일기 시작했던 것이다. 2013년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매해 박근혜 정권은 논란의 중심이었고, 많은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분노는 이전 사안들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9월 20일 한겨레 신문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정상적인 모금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고 보도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이 시작됐고, JTBC 대통령 연설문과 국가기밀이 담긴 최순실의 테블릿PC를 보도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문화계에서는 차은택, 서울대 병원장 서창석, 최순실 전 애인으로 밝혀진 더블루케이 전 이사 고영태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새로운 인물들이 줄줄이 불려 나왔고,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상파는 물론 종편 방송사까지 끊임없이 정권의 비리를 터뜨렸고, 최순실은 사이비 종교인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종교인이 국가를 운영하는 전근대적인 국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대중들은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잃었다는 분노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매해 연이은 박근혜 정권의 실패 속에서도 자신들이 행사한 표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깨져버렸던 것이다. 이미 우리는 1987년 우리 손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승리한 벅찬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87년 이뤘던 대중의 성과를 철저히 무너뜨린 사건이었고, 이는 대중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퇴진 집회는 10월 29일 처음부터 3만 명으로 시작했고, 단 2주 만인 11월 12일 100만으로 치솟았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230만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의 민중총궐기가 최대 1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였다.

한편, 학교 밖에서는 87년 이전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다면, 학교 안에서는 87년 이전의 모습마냥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성의 전당이 되어야 할 대학공간에서 지성은 찾아 볼 수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 중인 학생들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지난 2016년 이화여대에서 미래라이프단과대학을 반대하는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 학내에 경찰을 동원했다면, 올해 서울대에서는 경찰 대신 직원들을 동원했다. 3월 11일 아침 6시부터 직원과 청원경찰 400여명이 본부에서 학생들을 끌어내기 위해 모여들었고, 위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다리차와 본부 정문을 자르기 위한 절단기가 동원됐다. 학사과 쪽 문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직원들은 가구들이 학생들을 향해서 날라 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본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학생들을 밀어냈다. 계단 앞에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저항하자, 한 명의 학생에게 여러 명의 직원들이 달려들어 학생을 뜯어내고 내팽겨쳤다. 개중에는 음주를 한 상태로 학생에게 달려든 직원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쫓겨나자 남겨진 학생들에 대한 감금이 이어졌고, 밖에 있는 학생들이 식료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본부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이때에도 폭력과 심지어는 물대포로 맞섰다. 당시 처장단 등의 보직교수들 또한 현장에 있었으나, 이런 폭력사태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참했고, 학생-직원의 대립이 격화되는 데에 앞장섰다.

학생들은 분노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 뿐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이 다치는 모습을 지켜본 학생들 또한 분노했다. 2월에는 어느 정도 투쟁에 대한 회의감이 학생사회에 스며들었지만, 3월 11일의 폭압을 기점으로 학생사회의 분위기는 역전됐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당국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다. 당장 3월 13일 2000여명의 학우들이 본부 앞에 모여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이며, 서울대의 민

주주의를 파괴한 성낙인 총장의 퇴진을 외쳤다.

1. 박근혜 퇴진 투쟁에서 박근혜 적폐청산 투쟁으로.
1.1. 드러난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
-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87년도에 쟁취했던 승리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후퇴는 단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서 대통령의 연설문 하나하나를 사(私)인이 검토하고 있고, 국가 기밀 또한 그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자극적인 사실에 의해 표출됐을 뿐, 과거에서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박근혜가 행한 정책들은 사적 이윤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하여 밝혀진 사안들이기도 하다. 그 중 적나라하게 이뤄졌던 정책은 노동개악이라 불리는 노동개혁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혁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실상은 기업재벌들의 이윤을 확보해주기 위함이었다. 박근혜-최순실은 미르·k 재단을 통해 재벌들에게 800억 원을 헌납 받고,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노동개혁이라는 선물을 하사했던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은 삼성재벌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동원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완화로 인해 배의 수명을 늘리고 과적을 확대한 결과인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투자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공익을 도모할 것이라고 믿었던 국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중의 분노 속에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중이 직면한 삶의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다. 경제적 불평등이 분노의 불씨를 지폈던 것이다. 사적이윤에 국가가 장악당한 사이 청년 실업은 물론 비정규직과 해고가 확산됐고, 노동 강도 강화와 함께 효율을 빙자한 안전수칙 미비로 인해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갔다. 유성기업, 갑을 오토텍 등 용역을 동원한 노조 탄압마저 공권력의 용인 속에 이뤄졌다. 민중들의 삶은 열악했고, 가계부채는 1300조를 돌파했다. '헬조센', '금수저', '흙수저', '갑과 을' 등의 언어는 이제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삶의 연장선상에서 대중은 그들을 삶의 위기와 마주하게 한 국가의 실체를 목도하게 된 것이다.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돈도 실력이야. 너희 부모를 탓해"라는 정유라의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된 까닭 또한 뭘 해도 항상 '을'일 수밖에 없고, 생존경쟁 속에 던져져 뭘 해도 삶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중의 계급적 분노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라는 인물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1987년 이전으로 후퇴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선제라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로는 시민이 주인 된 사회로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1.2. 광장의 승리와 박근혜 퇴진을 넘어선 의제의 확장
- '박근혜 즉각 퇴진'과 '박근혜 적폐 청산'

결국 박근혜는 탄핵됐다. 그리고 이는 명백하게도, 박근혜 퇴진을 끊임없이 외쳤던 광장의 승리였다.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 어떤 제도권 정치 세력도 시민들에 대한 지도력을 획득하지 못했다. 시민들의 분노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지 못했던 것이다. 단 2주 만에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 집회를 위해 광장으로 몰려든 데에 반해 야당이 보여준 것은 무기력함과 시민들의 열망에 대한 기만이었다. 문재인

은 “박근혜 명예 퇴진”이라는 입장을 얘기했고, 우상호는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의회는 의회의 방식으로”라며 광장과 정치를 분리시켰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추미애의 뜬금없는 ‘영수회담’ 추진은 시민들을 더욱 실망시켰고, 정치권에 품고 있던 기대를 한없이 축소시켰다. 이런 야당인사들의 행보는 광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민중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규탄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정치권에서 보여준 것이 단지 무능이라면, 시민들은 매주 광장에 모여 끊임없이 스스로의 힘을 과시했다. 그리고 끝내, 광장의 힘에 떠밀려 12월 9일,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그리고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안이 통과됐다. 표면상으로는 ‘탄핵’이었지만, 이는 시민들이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을 외친 결과였다. 보수야당과 제도권 정치인들이 아닌, 시민들의 정치적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던 것이다. 광장의 승리였다.

한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장 헌재의 판결에 의해 박근혜 정권의 생사가 결정될 국면에 오기 전까지 광장에서의 외침은 “박근혜 탄핵”이 아닌 “박근혜 즉각 퇴진”이었다. 물론 ‘탄핵’과 ‘즉각 퇴진’은 둘 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두 가지 관점에서 ‘탄핵’과 ‘즉각 퇴진’은 조금 다르다. 먼저, 즉각 퇴진이라는 말이 함의하는 바는 박근혜 퇴진의 원동력과 그 성과를 보수야당에게, 국회와 제도권 정치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단지 정치인 박근혜가 본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를 다른 정치인이 채우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하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퇴진을 향한 광장의 흐름은 박근혜를 직접 끌어내리고, 박근혜와 재벌기업 등 박근혜를 몸통 삼아 불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선출되지 않은 권력 또한 끌어내리고 시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시킬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권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는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줬던 보수야당, 그리고 이런 비리에 가담했을 부역자들에게 박근혜 하나로 꼬리자르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구호를 걸었던 광장의 목소리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과, 박근혜 정권의 적폐까지 겨냥하고 있었다. 앞서 얘기했듯 대중들은 불평등한 경제 구조가 낳은 삶의 위기 속에서 불만을 축적해오고 있었고, 이는 2015년의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한 번 분출한 터였다. 그리고 이렇게 쌓여왔던 불만의 정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위치했기 때문에, 대중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적으로 분출시킨 계기가 됐던 것이다. 때마침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던 당시, 10월 말 한 달 여간 진행된 철도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에 맞선 파업과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던 2016년의 총파업과 총궐기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만났다. 이로써 박근혜 퇴진 집회는 단순히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하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삶에 대한 복원, 이를 위한 박근혜 정권을 통해 권력을 독점했던 재벌기업에 대한 청산과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집회가 됐다. 이런 의제의 확장이 광장에서 끊임없이 “재벌들도 공범이다”라는 구호가 나왔던 까닭일 것이다.

2. 각론

2.1. 사회/노동

삶은 본인 하나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맥락과 위치 속에서 재구성된다. 따라서 개개인들조차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군다나 학생사회의 일을 관장하는 학생회에게는 그런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다. 앞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퇴진 투쟁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듯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사회적 토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은 앞으로 이 학생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와 연결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건 중 하나는 2016년 5월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였다. 여기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는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비정규직 수리공 노동자였다. 한 달에 144만원을 받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흔한 청년이었고, 우리 주변의 동생이고 친구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특히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그리고 한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구의역 사고는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효율화 아래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자행되어 온 정책들의 총체였다. 서울메트로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하청업체에서는 역시 이윤 추구를 위해 한 사람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많은 설비를 수리하도록 했다. 하청업체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그 고용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 그러다보니 노동 강도 강화는 물론 한 2인 1조라는 안전 수칙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달에 144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한국 정책의 흐름이었다. 오히려 정규직들에게 특혜를 받는다며, 비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책임을 덮어씌우면서 임금피크제를 종용하고, 성과연봉제로 가장한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 했다. 이런 불안정한 노동과 노동의 외주화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다.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 담당하는 업무에서조차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 아니고, 단지 단 시간 내에 다시 업무를 재개하는 것, 비용을 아끼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은 비용으로 치환되어 버렸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일반 대중의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규제완화와 민영화는 더욱 강조됐다. 결국 배의 사용 기간 연장과 배의 과적 확대 속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생명이 수장됐다. 구조 과정에서도 국가 기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인명을 구조하는 업체도 아닌 민간업체에 기댄 구조의 끝은 참혹했고, 제 발로 배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국가가 나서서 구조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의 1년 후 메르스 사태가 터졌고, 높은 사망률과 전염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늦은 대처 속에 시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됐다. 온 국민이 세월호를 타고 있다는 인식이 난무했다. 정부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시급히 대응하는 대신, 최대한 재벌기업의 재산상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썼고, 병원 공개를 지연시켰다.

‘국가 경제가 어렵다.’,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살려야 할 경제 속에 시민들의 삶은 없었다. 생존경쟁은 각박해져만 갔고, 생존을 위한 노동에 도리어 목숨을 걸어야 했고, 일상 속에서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다. 기업식 이윤추구와 경쟁에 내던져 지는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좀 더 빠르게 많은 일을 할 것을 요구한다. 단지 노동현장에서 뿐 아니라, 대학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다. 우리는 기업에 최적화된 인력이 되기 위해서 보다 풍부한 스펙을, 완벽한 학점을 쌓아야 한다. 앞서가더라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으며, 뒤쳐진다면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노오력’이라는 말로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리고, ‘정상’과 ‘비정상’을 끊임없이 나누고 서로 소외시키는 사회에 살게 된다. 또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 속에서 우리의 권리는 한없이 낮아진다. 경비노동자가 해고당하는 서울대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있는가, 시간강사가 대량해고 되는 서울대에 학생들의 수업권에 대한 고려는 있는가, 일상적인 해고가 이뤄지는 서울대에 학생들의 생활권에 대한 고려는 있는가.

이윤과 효율 추구 아래 사라지는 것은 비단 ‘너’의 삶만도 아니고 ‘나’의 삶만도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이다. 우리의 삶은 같은 사회적 맥락 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학생들의 수업권, 생활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구조를 짚을 수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공론화와 환류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단위들과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2.2. 인권(여성/퀴어/장애인)

보편적으로 인권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사회와 서울대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본다. 하지만 그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인권이 당연하게도 지켜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어렵다. 먼저, 우리는 왜 인권을 이야기

하는가? 사회대 학생회는 전통적으로 새맞이 기간 인권담론이 풍부하게 이뤄지는 학생회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성폭력 학생회칙에서 파생된 새맞이 반성폭력 내규, 그리고 장애-비장애 평등 내규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는 과정은 사회대 새맞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새맞이 내규를 논의하는 이유는 늘 '소외 없는 새맞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한다.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정체성을 이유로 소외받는 학우 없이 새맞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화적인 특징을 띠다보니, 앞서 제기한 의문들은 항상 쉬워 보이지만 매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론은 흔히 개인의 도덕성으로 치환되기 쉽다. 좀 더 나아가면 공동체의 문화를 개선하면 되는 일정도로 여겨지곤 한다. 물론 공동체 내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문화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옳은 것은 지향해나가고, 옳지 않다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양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인권담론 또한 정치적 편향성을 띤다는 것이다. 공동체 내에서 아무리 바람직한 합의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합의들은 더 큰 사회적 구조와 부딪힌다. 성평등을 얘기해도 앞에서 말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 무조건적인 이윤추구를 지적하지 못한다면, 직장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으로 여겨지고 이로 인해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타파할 수 없다. 또한 노동력에 있어서 남성성이 위시되고, 이에 따라 남성의 노동 강도는 강화되는 한편, 이 남성성과 걸맞지 않은 남성 또한 도태되는 문화에서 여성 뿐 아니라 그 어떤 성도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인권침해는 단지 노동현장에서 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을 바라봄에 있어서 단지 '도덕성', '문화'에 그 틀을 한정하기 보다는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인권을 보고, 진정으로 개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광장에서 분출되고 있는 요즘은 여성주의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 10월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비판 여론이 올라오던 시기, 이에 대한 분노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약자에게로 튀었다. 상층부를 향한 합당한 계급적 분노로서 표출되기 보다는 박근혜가 가진 사회적 소수자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여성이라는 약자에 대한 비하로 이어졌던 것이다. 최순실을 '주제넘게 국정을 운영한 돈 많고 무식한 아줌마'로 사고하면서 비판하는 것 또한 여성혐오의 발현이었다. 이는 2016년의 시작부터 '병신년'이라는 해의 이름으로 박근혜를 저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이내 여성혐오적인 발언은 사라져갔다. 광장에 참여한 대중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여성혐오 발언과 병신년에 담긴 장애인 비하 및 여성 비하 발언을 비판했다. 이런 과정에서 빼앗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행동이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 함께 분노하고 있고, 함께 소외받고 빼앗긴 삶을 되찾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혐오가 만연하다. 혐오는 단지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 혐오의 뜻은 사회적인 권력관계에 의해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면, 여성혐오라는 말과 남성혐오라는 말이 동치 될 수 없다. 이 두 용어를 동치에 놓는다는 것은 젠더 권력관계를 부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남성들이 사회적 억압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젠더 권력관계에서 열위에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늘 성폭력과 살인의 위협에 놓여있고, 외모품평의 대상이 되며, 노동현장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3시 이후에는 무급노동을 한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곧 모든 남성이 체제의 수혜자라는 뜻도 아니고 모든 여성이 피해자라는 뜻도 아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대립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인권과 사회경제적 구조를 따로 봐서는 안된다고 얘기했듯, 여성을 값싸게 고용하려 하고, 노동현장에서 쫓아내려는 효율 경영의 시도는 남성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과중한 책무를 떠안게 한다. 중년 남성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이런 자본주의 속 젠더 권력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앞서 얘기한 박근혜와 최순실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 사회적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최순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주의 운동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작업현장에서 혹사당하는 여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살아남기 위해 죽을 것 같은 성

매매를 해야 하는 여성,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피부가 트는 전업주부로 집 안에만 갇혀 지내야 하는 여성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담론 또한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봐야 한다. 그 때에야 비로소 여성과 남성은 대립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 연대하고, 잘못된 사회정책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여성과 남성의 성별이분법 속에서 자연스레 소외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성 소수자들이다. 성별이분법과 여성과 남성의 고정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재생산되면 재생산될수록,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성소수자들은 이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밀려난 존재, 다른 존재, 이상한 존재가 된다. 성소수자가 아니라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은 사상당한 채, 사회적 인식에만 맞추어 '여성답고 남성다운' 역할만 해야 하는 억압적인 상황에 처해진다. 따라서 어떤 특성에도 구애받지 않고, 사람으로서 대우받는 세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을 자꾸 이윤과 비용으로 판가름 하려는 시도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편,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히나 비용 논리 속에 매몰 되어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설비들은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게 되기 마련이며, 그러다보니 재정을 핑계로 장애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또한 자본 입장에서 장애인은 이윤추구에 적합한 노동력으로서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배제 당한다. 그러다보니 특히나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사회에서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장애인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인권을 받아야 할 주체이다. 비장애인의 삶이 그렇듯이 장애인의 삶이 이윤과 비용으로 재편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사회적 억압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 속에는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성소수자와 장애인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존재한다.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동성애를 농담거리로 삼거나 여성이 '남성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남성이 '여성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에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또는 웃음의 재료로 삼는다. 또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용어자체를 비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행위들을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성중심주의, 이성애중심주의, 비장애인 중심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이에 따른 행위를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언동들을 인식하고 지양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3. 교육

대학에는 '지성의 전당'이라는 칭호가 붙는다. 그리고 학문의 독립성을 추구하며 세속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는 환상이 대학이라는 이름에는 존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날처럼 대학과 대학생이 많아진 것은, 김영삼 정부 들어 고도화된 산업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많은 산업예비노동자들을 필요했고, 이런 필요성에 따라 대학설립자율화가 추진되면서 대학이 시장에 맡겨져 급속히 팽창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요즘은 대학이 너무 많다며, 급속한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 또한 현 경제체제의 이해에 부합하는 지식만을 습득한 노동력을 양성하며, 경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현 체제의 질서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업중심적인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대학은 사실 늘 경제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구조 속에 종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런 체제종속으로부터 탈피하고 학교의 주인으로 서고자 했던 것이 대학생 투쟁의 특징이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대학 또한 다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흐름의 직격타를 맞았다. 그 첫 번째는 대학구조조정이었다. 2014년 1월 교육부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창조경제를 위한 인재양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엄청난 개혁의 핵심내용은 그저 '취업률'을 평가 지표로 한 대학 정원의 감축이었다. 정원의 감축은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인문, 예술 계열 학과들의 대량 폐과와 통폐합을 낳았다. 이와 같은 과정이 대학 구조개

혁 평가 1주기였다.

그리고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사이에 추진됐던 대학구조조정 사업이 2016년의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과 코어 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이다. 이 중 코어사업은 서울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앞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양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과정이었다면, 학과와 단대간의 정원 조정과 교육과정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프라임,코어 사업은 질적 측면에서의 대학구조조정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매개로 하여 추진되며, 대학 교육이 산업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됐다. 한편, 철저히 수익을 목표로 대학을 학문의 공간이 아닌, 학위 장사의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사업도 정부 주도로 시행됐는데, 대표적으로 미래라이프단과대학 사업이다.

이런 정책 앞에 대학생들은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 학과통폐합과 프라임, 코어 사업에 반대하는 투쟁 등을 벌여 왔다. 이대에서는 프라임 사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왔었는데, 이와 더불어 미래라이프단과대학 사업까지 실시되면서 학위장사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불이 붙었었고, 궁극적으로는 미래라이프단과대학을 철회시켰다.

청년실업으로 고생하는 시기에 일면 타당해 보이는 대학구조조정과 대학기업화의 흐름은 사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을 대학의 책임으로 돌리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며, 학생들의 학문할 권리를 빼앗는 정책이었다. 대학에서 산업수요에 맞게 학과를 통폐합하고, 교육을 개편한다고 해도 고용이 창출되지는 않는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고, 국가가 나서서 독려해야 할 역할이지만, 이의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면서 마치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을 받으면, 더 나아가 '노오력'을 하면 대학생들의 삶이 평온해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재정을 매개로 대학구조조정을 선도하는 것은 늘상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지원금 줄게'식의 시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또 이런 흐름 아래 학생들의 선택권과 원하는 학문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학생들을 대학의 주인이 아닌 대학에 등록금 내고 학위만 받아 가면 되는 교육의 객체, 즉 '교육의 소비자'로 보는 행위일 것이다.

정부주도의 대학구조조정과 대학기업화의 흐름 앞에서 학생회가 만들어 가야 할 교육의 방향은 무엇일까.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취업률을 위시한 교육을 하는 데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격화시키려는 교육 정책은 대학생들의 삶이 고단해지는 현실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 일자리 창출의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 그리고 대학 현장에 기업시설을 유치해 대학생들을 값싼 인력으로 사용하고, 추가 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회를 노리는 기업,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용인하면서 교육의 책임을 학생들 개개인에게 떠넘기려는 국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대학 공간에서의 주체성을 잃는 것은 물론, 생존경쟁에 매몰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과 교육의 운영이 대학기업화와 각자도생 대신에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3. 대학기업화 속의 서울대 : 시흥캠퍼스 투쟁

3.1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없는 공간, 대학

- 돈이 장악한 서울대, 법인화 5년에 대한 진단, 끊임없는 민주주의의 파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선출된 권력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최소한의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오직 한 표를 행사할 때밖에 느낄 수 없지만 그나마 국가라는 공간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믿음,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학생의 위치는 어쩌면 국가에서 국민의 위치보다 더욱 열악하다. 대학 정책의 영향은 학생을 비롯한 학내구성원들에게 가장 먼저 직간접적으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의 정책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학정책을 결정

하는 각종 위원회 인사들과 대학의 총책임자인 총장을 선출할 권리 또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존경쟁 속에서 취업 준비에 몰두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상황과 더해져 학생의 학교의 주인이라는 와 닿지 않는 당위로만 남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 졌고, 학생은 2등 시민으로 밀려났다.

작년 2016년의 시흥캠퍼스 투쟁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시흥캠퍼스 반대여론과 맞닥뜨리자 학교당국은 실시협약 체결 전에 학생들과 검토하겠다는 약속마저 파기한 채 실시협약을 밀실에서 체결했고, 언론보도 3분 전에야 그 사실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10월 10일의 학생총회는 학교로부터 철저히 배제됐다는 학생들의 분노로부터 성사된 총회였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떠한가, 학생들은 학교의 정책을 결정할 권리를 빼앗겼음은 물론, 결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는 징계와 협박 그리고 폭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는 끝없이 학생은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학생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의 근원에는 학교당국의 돈을 향한 욕구가 있었다.

법인화 5년, 서울대학교는 학내구성원들을 더욱 억압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법인화 이후 공공적인 자금이 아닌 자체적으로 재정조달을 책임지게 된 서울대는 기업적인 이윤논리로 대학을 운영해왔다. 마치 기업처럼 교육이 아닌 '돈'에 서울대의 운영 기준을 맞추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 있어 직원들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생활권은 언제든지 '비용'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학문을 개편해도 되고, 구성원들의 필요와 교육의 질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런 현상은 인건비 영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고, 학내 각종 노동문제의 이유가 됐다. 서울대는 이미 전국 국립대학 중 비정규직 비율 35.6%로 2위로 불안정한 고용을 이어온 지 오래고, 용역계약 근로자는 640명으로 국립대학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인건비를 더욱 절약하기 위해 기간제법을 피해 '비학생 조교'라는 형태로 직원들을 고용해왔고, 올해 70명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한편 생협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종용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재작년에는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자제'하라는 총장의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을 만큼 서울대의 노동문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고용방식은 단지 직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법인화 이후 강화된 성과압박으로 교단을 떠난 전임 교수도 41퍼센트가 증가하였고, 이 빈자리를 시간강사라는 형태로 불안정하게 채우고 있다. 직원들의 처우와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서울대의 고용방식 덕에 2016년 작년에만 해도 교내에는 사회대 과사 통합, 음대시간강사 대량해고, 비학생 조교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교직원 해고 문제를 넘어 '돈'을 목적으로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초부터 인문대에서는 '인문역량 강화사업'이라는 명칭의 코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코어사업은 산업수요에 맞게 인문학을 개편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문 학도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인문대학 학생들을 산업예비군으로 만들어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서울대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과 다르게 '착한'코어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또한 대학의 많은 공간들이 학내구성원을 위한 공간이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대만 봐도 사회대 신양(16-1동)의 공간활용에 대한 선택권이 학내구성원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신양이라는 공간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양 건물을 통해 생기는 수익은 예전에는 신양재단에게, 현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경우 투자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 수익이 돌아오는 형태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 또 아시아연구소라고 불리는 16동 앞, 101동의 빈 공간들은 과거에 학생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기억을 잊은 채, 현재는 있지도 않은 잠재적 투자자를 기다리며 잠자고 있다. 또 매해 250억의 손실을 보고 있는 평창캠퍼스의 실패를 뒤로한 채, 가능할 지도 모르는 수익을 기대하며 학생들이 반대하는 시흥캠퍼스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철회시키기 위해 본부점거를 이어가던 학생들에게 가해진 폭력침탈의 맥락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얼마나 악랄하리만큼 돈을 중시하는 지 알 수 있다. 본부가 행한 폭력침탈의 배경에는 20억 원이 있었다. 본부점거로 인해 해동관 사무실을 비워줄 수 없어서 해동관에 유치하려했던 Creative Factory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이미 받은 중기청 사업비 20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단숨에 2000여명의 학우들을 본부 앞으로 모아내며, 총장퇴진 운동으로까지 번진 3월 11일 폭력침탈의 배경에는 단지 20억 원을 향한 학교 당국의 안타까운 염원이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법인화 뒤에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기업화의 흐름은 결국 진정 중요한 것들이 부차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이윤논리 앞에 학교의 주인으로 설 수 없고, 생존권을 보장받는 대신 경쟁에 내몰리는 결정권 없는 삶을 강요받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된 이후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까지 학교 정책에 있어서 결정권을 박탈당했다. 기존의 의결기구였던 평의원회 대신, 절반 이상이 외부인사인데도 불구하고, 15명의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 서울대의 전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총창추천위원회에서 2등을 한 성낙인이 정당성 없이 총장으로 선출되는 결과를 낳았고, 현재 성낙인은 그가 행한 행적들과 묶여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기본적인 권리가 담보되지 않는 것 즉, 학내 비민주성의 심화라는 현상에는 대학기업화라는 그들만의 이윤논리에 의해 대학이 좌지우지되는 경제적인 근본원인이 깔려있다.

3.2 권리를 박탈당한 학생들 거리로 나서다.

작년 10월 10일 학생총회는 학교 당국에게 빼앗긴 결정권을 학생들에게로 되찾아 오기 위한 총회였다. 8월 22일,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체결 사실을 통보한 학교 당국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맞는 투쟁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선언이었다. 따라서 당시 총회는 비민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통과된 의안1의 선택지도 '비민주적으로 체결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본부점거투쟁이 153일간 진행되면서 투쟁의 의제는 확장되고 깊어졌다. 민주주의와 학생배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졌던 투쟁이 이제 교육 공공성과 대학기업화까지도 겨냥하게 된 것이다.

애초에 시흥캠퍼스는 시흥시와 한라건설이 제공하기로 한 4500억 원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제공하는 혜택을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서울대와 계약을 맺게 되자, 시흥시와 한라건설은 서울대의 이름값을 팔아서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 '원스텝 서울대 교육특화', '유학가자 서울대 신도시로' 등의 홍보문구가 나붙었다. 이렇게 홍보를 진행한 시흥시와 한라건설의 이권과, 건립에만 1조 8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재정계획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시흥캠퍼스 내에 2,3천의 상주인원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교가 매번 의무RC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의무RC는 불가피하다'는 메모가 적힌 문건이 발견되고, 이런 논의가 작년 처장단급의 회의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익 사업에 학생들의 거처가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비전은 부재한 채, '고소득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 '키즈 카페' 등을 시흥캠퍼스에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는 목적이 수익사업이라는 확신은 더욱 강해진다. 이제 시흥캠퍼스는 돈벌이를 위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많은 학우들의 인상에 박혀있다. 한편으로 비학생조교, 음대시간강사 공대위, 대학노조 등 다른 투쟁주체들과의 연대를 넓혀나가면서 시흥캠퍼스 투쟁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53일의 기간 동안 이어진 본부점거투쟁은 대학이 교육과 학생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합의가 투쟁주체들인 학생들은 물론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리 잡아 갔다. 이런 학생들의 투쟁은 3월 11일 본부의 폭력침탈을 계기로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았다. 시흥캠퍼스 추진을 위해 폭력을 감행한 본부의 행태가 죽어가던 투쟁의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3월 13일 2000여명의 학생들이 집회로 모여들었다. 학생들은 단순히 총장이 지시한 3월 11일의 폭력침탈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간 성낙인 총장 하에서 자행되어 온 학생징계, 학생사찰을 비롯한 저항권 탄압 언론탄압, 시흥캠퍼스 등 민주주의가 파괴되어온 모습들 전부를 규탄했다. 효율경영을 표방하는 친박 이사회에서 떨어

진 2등 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대학, 수익사업이 우선시 되는 대학현장에서 대화와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것, 민주주의의 파괴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학교와 교육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난 학생들은 이제 다시 그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자발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그런 투쟁의 일환으로 4월 4일의 전체학생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4. 2017년, 사회대 학생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상을 말하기에 앞서, 2017년의 사회대 학생회는 앞에서 설명한 학내외적으로 요구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을 수 있는 학생회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87년 얻어냈던 대통령 직선제와 같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익으로 점철된 국가에서 소외되고 위협받은 민중의 삶을 복원하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학생회, 또 성낙인 총장 개인의 퇴진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낙인을 낳았던 서울대 법인화와 효율경영 아래 가려지는 교육과 학내구성원들을 다시금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하는 운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학생회가 되어야 한다. 즉 투쟁 전선에서 학우대중의 투쟁을 이끌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1. 정치적 의제를 던지는 학생회 : 내용 없는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자

학생회는 어떤 의제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의를 형성하는 기구이며, 이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생성하고 학생들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학우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학우대중이 의제를 제기해주기를 기다릴 것인가? 의견은 또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A부터 Z까지의 선택지를 늘여놓고, 학우대중의 선택에 내맡길 것인가?

학우들이 의제를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는 모든 선택지를 늘어뜨려 놓고 학우 대중이 이를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흥캠퍼스라는 사안에 대해서 학우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과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아무런 주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학생회는 항상 한 발 앞장서서 사회적 의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시흥캠퍼스가 어떤 사업이라고 얘기했던가, 교육비전은 부재한 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수익을 노리고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현재 추진되는 시흥캠퍼스에 대해 이런 문제를 인식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총의를 모아나가야 하는 것이 학생회의 역할이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 의제도 제기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공론장을 만들자는 것과 단순히 선택지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학우대중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자는 것은 가장 선두에서 학생사회의 향방을 고민해야 할 학생회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무사 안일한 태도에 불과하다. 학생회는 사안별 문제의식과 의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나갈 수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만들어진 움직임이 곧바로 학생회의 능력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과 다르게 학생사회가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공론장이 무너졌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공론장을 복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저 장소를 예약하고 시간대를 잡아서 얘기해보자고 하는 것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주장을 제기하는 주체가 있을 때 비로소 찬반 의견이 생성되고, 해당 담론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많은 학생 대표자들이 '대중의 의견을 몰라서' 그리고 '대중이 따라주지 않아서'라는 말 뒤로 숨는다. 무(無)에서 시작되는 담론과 내용 없는 민주주의를 거부한다. 특히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열망이 올라온 이 시기에, 학생회는 의제를 생성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며 투쟁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2. 일상적인 토론 : 끊임없이 설득하고 토론하며 설득당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학생회

정치적 의제를 제기함으로써 토론은 시작될 가능성을 얻는다. 그러나 정치적 의제만 제기하고 끝난다면? 이 때 학생회는 기층과 유리되고 불통의 이미지를 얻게 될 것이다. 물론 학생회는 이미 기층과 유리되어 왔고, 현재와 같은 투쟁기가 아닐 때에는 더더욱 기층 학우들은 학생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것 또한 학생회의 역할이다. 학생회에서 던진 정치적 의제는 단지 대표자의 의견으로 존재할 때가 아니라,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대중의 의견으로 존재할 때, 학생회의 의견이 되고, 총의가 되며,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런 일상적인 토론이 존재할 때에야 대중은 그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개인적 경험이 아닌 집단적 경험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문제의식을 모아낼 가능성을 보게 된다.

일상적인 토론은 학우들이 가진 생각들을 서로 부딪치게 하며, 그들의 의문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서로의 공통적인 합의 지반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설득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보다 넓은 시각과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자기 경험을 분석하며, 공동체적 합의를 넓혀갈 수 있게 한다.

학생회는 공론장을 만들어 자신의 문제의식을 내보이며 내실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학우들에게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설득해나가는 한편, 학우들이 제기한 또 다른 의제들을 받아들이고,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대학생회는 과/반의 기층 학우들을 공론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사회대 학생회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교육, 인권, 사회 문제에 대한 의제를 생산하고, 학우들의 문제의식을 환류할 수 있도록 과/반 학생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며 토론 자료를 제작하고 순회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학생회의 합의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4.3. 탈정치를 넘어 : 자기정치성을 발견하고, 정치적 의제의 실현을 도모하는 학생회

학생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학우대중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학우들의 권익을 넓히는 것과, 침해당하는 권익을 회복하는 것 모두 정치의 과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탈정치'를 거부한다. 탈정치의 외피를 쓰고 모든 정치적 결단을 포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정치성이다. 정치와 탈정치의 거짓된 구분을 거부하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 정치적 선명성을 통한 분명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바탕으로 할 때, 학우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으며, 학생회 대중운동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일상적인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했다. 그러나 토론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데에서만 끝난다면, 그 또한 무기력할 것이다. 토론을 통해 나누는 담론들과 만들어진 합의가 우리의 정치로서 실천으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며, 토론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진정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토론의 다난한 과정들은 비로소 진정한 힘을 가진다. 이처럼 학생회는 실천을 전제로 한 토론을 진행해야 하며, 토론의 끝에는 실천이 있다는 인식을 학우 대중과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2016년의 하반기와 2017년의 상반기는 학내외 사안에 대하여 학우대중 스스로가 정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치의 주체로 나선 시기였다. 자기 정치성의 발견은 정치적 의제가 스스로의 삶의 문제로 다가올 때 가능하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내몰린 대중의 삶의 위기와 이 위기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법적으로 조장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서울대에서 수익사업을 벌이는 학교 당국에 의해 빼앗긴 결정권과 이런 흐름이 학생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피와 살로 와 닿았기에 가능했던 대중투쟁이었던 것이다. 물론 대중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 나설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중이 자기정치성을 발견하도록 이끌고, 탈정치에서 벗어나 정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일상적인 학생회의 역할이다. 집행 없는 의결, 행동 없는 토론, 그리고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적 의제는 무기력하다. 일상적으로 대중운동의 담론을 만들어나가며, 대중운동의 주체들을 형성하고 대중운동을 통해 정치적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참고자료2. 과/반 특위 1차 업무

[순서 : 불꽃반/비반/시반/꼼반/알반/악반/한길반/한음반/겨레반/일치단결반/나침반]

불꽃반

1. 반 운영방식

반운위는 학생회장, 그리고 각 학년에서 뻔대 2명, 반운위원 2명, 회계 1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격주에 한 번씩 진행하며, 중요한 안건이나 서면 보고를 해야할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카톡으로 인준한다. 안건으로는 간식사업이나 소모임 지원, 학회 지원 등이 있다. 집행부는 따로 두지 않는 대신, 반운위원 2명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홍보,기록/학술,기획 중 두 역할을 각자 맡는다. 각 학번의 뻔대 2명은 각 엠티나 장터, 일홉 등 해당 학번의 사업을 책임진다. 회계는 각 학번의 금전적 운용에 대해서 일임하며, 2학년 회계는 반비계좌를 담당한다. 회계는 엠티나 장터, 일홉, 새맞이에 대해서 예산서를 제출하고, 사업 이후에는 결산서를 제출한다.

1-1 1학기 17학번 사업

마니또: 뻔대 둘을 제외한 나머지 학우들 중 참여자를 지원받아서 그 안에서 랜덤으로 마니또 대상자(받는 사람)과 마니또(주는 사람)을 짝지음. 그 후 5가지 미션(선물 주기, 편지 쓰기, 학식 같이 먹기, 엽사 찍기, 캐리커쳐 그려주기)를 주어서 5가지 모두 완료하면 뻔대가 밥을 사주기로 했고 미션을 하나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으로 마니또 대상자에게 밥을 사주기로 함. 미션을 하나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고 5개 모두 수행한 사람은 두 명 있었음. 겉으로만 보면 뭐 성공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동기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에 큰 도움이 됐는가는 의문임. 그냥 의무감에 선물이나 편지 대충 써서 줬던 케이스도 꽤 있었고 원래 별로 친하지 않았던 마니또와 마니또 대상자 사이가 매우 친해졌다던가 하는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음.

백투더퓨쳐: 만우절(4월 1일)이 토요일이라 3월 31일 금요일 만우절 기념으로 교복이나 타 학교 과잠을 입고 같이 사진 찍고, 저녁 먹고, 뒷풀이 하는 등의 행사.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날 비가 와서 뭐 제대로 사진 찍지도 못한 듯함. 또한 생각보다 금공강이나 금요일 오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아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듯. 그래도 다행히 저녁-뒷풀이는 그나마 잘 진행된 듯.

불꽃반 대나무숲: 정체불명의 누군가가(zz) 만든 페이지. 익명 제보로 불꽃반 내의 대수롭거나 대수롭지 않거나 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페이지. 엄청 활발하거나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친목도모에 큰 도움이 되는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음.

과잠 외 여러 단체복 맞춤: 1학기에 올검 과잠을 맞췄으나 그 외에 다른 옷들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17들 사이에서 많아서 코치자켓, 바람막이, 다른 색의 과잠 등 다른 종류의 옷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가 많은 종류 몇 가지를 선정하여 디자인을 진행 중임. 지금까지 공지톡에 올렸던 투표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빨리 진행된 투표 중 하나임.

3. 학회

불꽃반에는 현재 공, 풍, 버디, 고담 네 개의 학회가 있습니다. 불꽃반의 과거 학회들은 학교 수업에서 더

나아가 심화된 학술 활동을 하는 '학'의 성격이 강했다면 공, 풍, 버디 등 최근 학회들은 외부에 지적 요구를 해결할 다양한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학'보다는 '회' 성격이 강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학회들 중 가장 최근에 창설된 학회인 고담의 경우 이에 회의를 느껴 '회' 성격과 '학' 성격을 둘 다 지니도록 했습니다. 각 학회의 활동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먼저 공은 스포츠 학회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매년 몇 번씩 체육관을 빌려 배드민턴을 하는 '공드민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구장에 함께 가는 등 회원들 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깁니다. 두 번째로, 풍의 경우 원래는 1987년 경제학부 소속의 시사경제학회로 창설되었다가 그 성격이 변하여 최근에는 '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회입니다. 풍의 특징적인 점은 가족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00학번부터 내려오는 가문이 있어 가족끼리 모임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홈커밍 행사에는 90년대 학번의 선배들이 찾아오시는 등 유대감이 굉장히 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디 학회의 경우에는 문화 학회로, 엠티, 선배들과의 홈커밍, 점심 및 저녁 모임 등을 소소하게 함께 하는 학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담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 성격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학회로, 매 학기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하고, 그의 하위 주제들을 정해 학기당 5번 정도의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주로 민주주의, 여성주의 등 사회과학 분야의 주제들로 진행됩니다. 또한 엠티, 소풍, 뒷풀이 등 '회' 성격을 지닌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4. 소모임

불꽃반에는 공식적으로 인준된 자치 기구 외에도 비공식적인 자발적 공동체, 즉 소모임이 있으며, 소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학우는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들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축구하는 소모임 'FC Flame', 학식과 맛집 탐방 및 혼밥을 구제해주는 '염학탐', 공강 시간에 같이 보드게임을 하는 '염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불축제, 스케이트장 등 서울 이곳저곳에 놀러가는 '염ing',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오늘어때염', 맛집을 찾아 다니는 '맛있어염' 노래방에 같이 다니는 '염씽'이 있었으나 사실상 '오늘어때염'만이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활동 중이며 올해 만들어진 소모임의 경우 맛집을 탐방하는 '염슐랭 가이드', 농구를 함께 하는 '농구해염', 기숙사 여학우들의 친목 소모임 '오늘잉여에염', 아침마다 택시를 함께 타는 '택시팟'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모임은 쉽게 생겨 그 수와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활동을 정례화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실제로 많은 소모임들이 한두 번 활동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활동이 다음 해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문제의식

1) 16학번 이희우

사실 불꽃반의 경우 사회대의 정시생 광역 제도 폐지로 인해 올해부터 인원이 한 학번에 36명에서 53명으로 늘게 되었다는 점이 반 자치와 단합에 꽤나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저는 작년과 올해 두 경우를 비교해보았을 때, 비록 제가 17학번이 아니기 때문에 17학번 학우들의 정확한 사정을 다 알지 못하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 학우들 간 유대감이 조금은 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들로는 우선 올해 17학번 뻔엠 참여율(35/53)이 작년 16학번 뻔엠 참여율(33/36)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단순히 절대적인 인원의 차이로 인해, 36명으로 이루어진 반보다 53명으로 이루어진 반에 엠티에 참여하지 못할 구성원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단순하게 해석해버릴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공동체의 자치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7학번 학우들에게 물어 판단해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반 행사 하나 하나가 개개인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그 느낌 자체가 작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 이에 대한 근거입니다. 작년에는 굳이 학우들 간 참여를 강조하지 않아도 학번 엠티는 꼭 가야하는 것 혹은 가고 싶은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면, 올해의 경우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느낌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간극입니다. 학번 대표와도 이야기를 해보았고, 행사가 끝날 때 등 평소 '고생했다'고 언급되는 학우들을 보면 올해 장터 등 실제로 반 차원의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학번 대표를 포

함한 네다섯 명 내외의 정도의 극소수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서른여섯 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스무 명 안팎의 많은 학우들이 두루두루 행사 기획에 참여하던 작년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러한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반 행사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나서서 이끌어나가는 구성원의 수 자체가 곧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우들 간 개인적인 친분으로 형성되는 '그룹핑'은 작년에 비해 올해가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선뜻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학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17학번 당사자인 다른 과/반 대표 파견 위원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3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식이기에, 그 결여가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다른 이들에게는 공동체 자체가 여느 소중한 인간관계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이기에 낼 수 있는 힘은 더 강하며, 배울 수 있는 것 또한 더욱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강한 저로서는 불꽃반 학우들 간의 유대가 점점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 상황이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2) 17학번 윤형섭

음 일단 학우들이 반 사업이나 활동에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관심이 없음. 그냥 뭐 한다하면 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끝임. 관심이 진짜 다들 너무 없어서 어째 반운위에서 독재를 한다해도 거의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수준. 반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이러이러한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같은 제안이나 질문이 거의 없음. 그냥 반이라는 공동체나 집단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분위기임. 음 그리고 행사참여에 대한 생각들이 즐겁게 즐기기 위한 행사여서 참가한다기보다 의무감으로 참여한다는 느낌이 좀 듬. 별로 안오고 싶은데 그냥 오라니까 오는? 경우가 좀 있는 듯.

飛반

경제B/飛반 자치현황

◆ 기구 - 의결 기구, 집행 기구, 판결 기구, 선거관리 기구

1. 의결 기구

1)총회: 학우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반 내 최고 의결기구
-개회 요건: 학우 20명 이상의 참석.
-현실적으로 성립이 어려워 사후표결방식 존재.
-사후표결=20명 미만의 참석자로 개회 시, 비참석자 또한 논의 내용을 읽고 표결할 시 정족수에 포함시킴.
-정기 총회는 한 학기 한번.

2)의결회: 총회만큼의 권한은 아니지만 반 내 대부분의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개회 요건: 학생회장과 각 학회(3개 학회) 및 학번(최근 2개 학번)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의 2/3이상의 참석.(학회 대표의 대리는 같은 학회의 학우만이 가능. 학번 대표 또한 동일.)
-정기 총회는 한 달에 한번.

*학생회칙과 회계세칙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만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고 의결회에서는 만장일치를 통한 임시개정만이 가능.
*현재 학생회장 및 학회장의 공석으로 실질적 총회 및 의결회는 개회되지 않고 있음.

2. 집행 기구

1)집행부: 집행부장의 관리 하 반 내 일상적인 업무 담당.
-현재 간식 사업 등을 담당.
-특별위원회와의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2)특별위원회: 집행부가 담당하지 않는 반 내 업무를 담당.
-ex) 과잠준위, 장터준위, 일홉준위, 새맞이준위 등
-실질적으로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자치활동.
-보통 학번 대표를 통해 추진.

3. 판결 기구

1)획계세칙재판소: '회계업무와 사업지원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반 내 재정관리를 전담.
-학생회장의 추천과 의결회 인준을 통해 임명된 회계세칙재판소장(이하 회재소장)과 전임 회계의 지명을 통해 임명된 회계, 회재소장과 회계의 추천과 의결회 인준을 통해 임명된 추천직 재판관들로 구성.

*17학번 현재 실질적 운영X

4. 선거 관리 기구

1)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련 의결, 집행, 및 선거사법을 담당.
 -구성: 학생회장 선거 시, 집행부장이 선관위장. 집행부장 선거 시, 학생회장이 선관위장. 그 외 선관위장의 지명 및 인준을 통한 선거관리위원.

*17학번 현재 실질적 운영X

◆임원-학생회장, 집행부장, 회계, 회계세칙재판소장, 학회장, 학번대표

1)학생회장: 원칙적으로 4월에서 5월사이 선거를 통해 선출, 현재는 공석인 상황.

2)집행부장: 17학번 집행부장은 현재 공석.(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

3)회계: 전임 회계의 지목 및 인준으로 임명.

4)회계세칙재판소장: 학생회장의 추천과 인준을 통해 선출. 현재는 공석.

5)학회장: 3개 학회 별 학회장 및 부학회장
 -파란: 전임 학회장 및 부학회장의 지목으로 임명.
 -단: 전임 학회장의 학회장 지목, 부학회장은 투표로 선출.
 -숨: 학회장 및 부학회장 모두 투표로 선출.

6)학번대표: 남녀 학번대표 각 1명. 투표를 통해 선출.

◆학회-파란, 단, 숨의 3개 학회
-학회별 인원제한은 없음. 원하는 학회 신청가능.
-학회가입을 원하지 않는 학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됨.(의무적 1인 1학회제 X)
-학회 내 행사 및 활동은 학회장을 중심으로 한 회의를 통해 결정. 각 행사에는 학회 별 구분 없이 모든 학우 참석 가능.

추가) 문제의식 및 평가

 자치가 크게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각종 의결기구 등은 그 기능을 거의 잃은 상태이다. 또한 학회장 및 학생회장의 공석이 길어진다는 것도 문제이다. 하지만 각종 행사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설립한 특별 기구나 집행부에서 진행하여 잘 이루어지고 있기에 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뚜렷한 문제는 없다.

시반

경제 C반에 대하여 - 17학번 김민성(일부 진지홍 수정 및 추가)

- 도우미 제도

OT가 진행되기 이전에, 합격생들의 정보를 받는 대로 새내기 한 명당 도우미 한 명을 붙여준다.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제학과 반마다 인원이 36명에서 51, 52명으로 늘어나서 새내기 두 명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 도우미는 새내기의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그 학생을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힘을 준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다른 선배들과 밥약 같은 것도, 나중에는 같은 시끌시끌이라는 조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

- 시끌시끌

시끌시끌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들 몇 명과, 그 도우미가 맡은 새내기들을 묶어서 하나의 조그만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다. 대개 도우미 4명과, 새내기 6명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구성된 시끌시끌 조는, 대략 3월 초까지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같이 연극을 보러 가거나 소풍을 가기도 한다. 이 조의 목적은 OT 같은 곳에서 낙오된 새내기들이 없도록 도와주며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또한, 도우미들이 여러 명 모여 있기 때문에 새내기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학회

C반에는 시원, 단올, 우아 이렇게 3개의 학회가 존재한다. 학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인원 배분을 하고, 각 학회마다의 인원은 새내기 인원수의 1/3만큼 각각 갖는다. 학회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모임을 하고, 총회도 하기도 한다. 현재까지는 학(學)의 기능 보다는 회(會)의 기능이 강조되어서 학회들이 활동을 한다. 즉, 학문적인 성과를 생산하거나 가르치려고 운영되기 보다는 서로 간의 친목도모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C반의 경우 학회가 2016년 2학기에 설치가 되어서, 다른 반들에 비해 역사가 짧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 한 학기에 3, 4번 정도 모인다.

- 간식사업

C반의 간식사업은 한 학기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총 두 번 실시한다. 사라지에서 실시되고, 보통 한 번의 간식사업을 할 때마다 15만원의 예산이 주어진다.(올해는 추경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때 많은 C반의 학우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안보이던 사람도 간식사업 때 잘 보인다.)

- 경제학부 체육대회

경제학부 체육대회는 경제학부와 ABC반의 공동주최로 열리는데,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ABC반의 16학번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올해는 경포터즈가 준비하고 ABC반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수들님과 각 반별로 2~40명의 학우가 참가하며, 뒤풀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경제반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

- 일일호프(또는 장터)

C반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모두 일일호프를 실시했다. 이때 일홉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여 일일호프를 위한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인원배분도 하고 했다. C반의 경우 총 54명의 새내기 중에서 대략 37명이 일일호프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 인원이 많아서 곤혹스럽기도 했다. 참여했던 대부분의 학우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결속력을 키우고, 역할도 서로 다르게 맞아 가면서 책임감도 기르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즐겼다.

- 소모임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C볼(볼링 모임), C풋(풋살 모임)이 대표적으로 있고, 이외에 C탁, LOL게임 모임 오버워치 모임 등이 있다. 학우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이러한 모임들이 결성이 되고 운영된다. 이들 모임은 대개 학기 초반에는 결속력이 있고, 많이 들 모인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모이는 횟수가 적어지는데, 현재 필자가 속해 있는 소모임들 같은 경우에는 2, 3번이가 모인 것을 본 적이 없다. 소모임 지원금이 나가는 기준인 5회 모임을 갖는 것에 한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 경제C/始반 학생회

경제 C/始반(이하 C반) 학생회는 사회대 학생회에 소속된 조직 중 하나입니다. 구성원은 C반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C반에 배정된 재학생이며 입학과 동시에 가입, 졸업과 동시에 탈퇴됩니다. C반 학우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기획, 집행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여론을 모으는 기능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장터, 일홉과 같은 행사는 학번행사로서 학생회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각 학번대표가 속해있는 집행부 회의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학생회 사업으로는 과방 미화사업, 시끌시끌 제도와 간식사업 정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회의는 원칙적으로는 최소 매달 1회 정기적으로 모여야 하며, 학생회장 혹은 집행부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시험기간 제외하고 보통 격주로 집행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집행부 회의에서는 C반 학생회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 김민성 학우의 의견

경제 C반에 한 학기 동안 다니면서 친목 면에서 제일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원 면에서도 확실히 문제가 있다. 일단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많은 인원을 한 번에 모이게 하기가 어렵고, 관리가 안 된다. 작은 과/반이라면 서로가 서로와 친해질 수 있겠지만, 사람이 많아서 그것이 힘들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자치적인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 같은 것을 하거나 할 때에 묻어가는 친구들도 많다.
선배와의 결속력 또한 적다. 개인주의가 현대 사회 내에서 팽배해서 그런 것 일수도 있지만, 일단 선배와 후배 간의 결속력이 매우 적다. 특히, 자신의 바로 윗 학번 이후의 선배를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사실 바로 윗 학번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확실히 고려대와 같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선후배간의 결속력이 떨어진다.
결속력을 높인다고 그 반의 구성원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반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노선을 걷고 싶은 학우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결속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반이 그 학생을 붙잡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사람은 과/반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를 하고 싶음에도, 참여를 할 수 없는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경제 C반에 대한 분석 및 문제의식 - 학생회장 진지홍

- 학생사회의 투쟁

시반의 많은 학우들이 학생사회의 투쟁에 대해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반 학우들의 투쟁 참여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 기층에서 투쟁 문제에 대한 공론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집회 등 투쟁에 참가하는 시반 학우 역시, 한 학번이 50명이 넘음을 감안하면 매우 적습니다. 또한 투쟁이슈를 공론화 하는 학우도 과/반 내에서 1~2명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시반 학우들의 학생사회의 투쟁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1. 가치관과 신념 등으로 인해 내용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2. 투쟁 방법에 동의하지 않거나, 3. 학우들의 학생사회 이슈 무관심, 4. 시반 기층의 공론화 실패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학생사회의 투쟁 목적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학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우들이 '경제학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 이슈들에서 사회대 학생회와 다른 의견을 가진 학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새맞이 과정의 토론에서나, 작년 농활 토론 등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투쟁 목적에는 동의해도 투쟁 방법에 동의하지 못하는 학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3, 4부터가 더 중요할 듯한데!(이게 진짜임) 현재 시반의 학생사회 이슈에 대한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우들이 팍팍한 현실(?)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이러한 이슈에 관심을 갖지 못해서 이기도 하고, 시반 집행부를 비롯한 시반의 기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기도 합니다. 시반의 학생회장으로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의 특성상, 합리적인 경제주체의 특성(?)을 가진 학우가 많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친목**

과/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친목이 최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인원이 증가한 후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매년 제기돼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MT 한번 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새내기들의 경우에도, 첫 뻔엠 참가율이 3분의 1남짓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서 김민성 학우가 써 주셨습니다. 저는 학우들 개개인의 성향도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과를 지망한 학생들의 성향 때문인지,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학업을 친목보다 중요한 가치로 두는 학우들 역시 많습니다. 학우들에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속의식을 원하지 않는 학우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지도 고민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 **학업 및 학문**

학업 역시 과/반에서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 후 시반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학우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입학 후 3월부터 새내기들이 단체로 관정이나 사도를 가기도 하고... 또한 여러 스터디 모임이 있어서 경제학 및 수학 등의 학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구적인 분위기가 학우들의 미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과/반의 친목 및 자치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많이들 새내기 때부터 공부하느라 놀지를 않아서ㅜㅜ 한편, 사회 문제를 비롯한 비교과적인 부분에 있어 토론이 부족한 것은 한계입니다. 학우 개인단위로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도, 그 토론이 과반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단톡방에서 사회 및 학내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한 건 정말 손에 꼽을 정도..? 또한 학회가 학술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계입니다.

-자치

집행부를 비롯한 시반의 자치기능은 비교적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꼼반

1.운영

꼼반은 운영기구 운영위원회 (이하 '운위')와 집행기구인 집행부 (이하 '집부')의 이원 구조로 운영된다.
운위는 학생회장, 집행부장, 학번 대표, 각 학회 학회장, 인준 받은 소모임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매주 정례회의를 진행하여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꼼반 각 단위의 활동 보고를 받으며 반 활동의 방향을 논의, 의결한다. 회의 날짜와 안건지는 사전에 꼼반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일반 학우에게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고 안건과 논의 사항이 적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위 단체 채팅방에서 약식 보고가 이루어진다. 그외에 빠른 의결을 요하며 관행적으로 토론의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한하여 채팅방에서 의결을 진행한다.

- 확대운영위원회는 일반학우도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다.
- 꼼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로, 학생회장은 임기 내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 집행부에서는 개강/종강파티, 총MT, 체육대회, 영화제, 시험기간 간식사업, 소식지 발행, 과방미화 등 정기 사업과 과방 라이브 방송, 세월호 추모 사업 등 비정기 행사를 모두 기획, 집행한다.
- 매년 3월 신입 부원을 공개 모집한다(올해는 학생회장 선거가 늦어져 4월 모집). 집행부원은 1,2학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집부 아래 생활팀(과방 청소, 미화, 물품 비치), 소식지팀, 디자인팀(사업 포스터 제작), SNS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의 사업들은 tf를 모집하여 준비한다.
- 여름방학 때 집행부 LT를 간다.
- 집행부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운위의 인준을 받는다. 학생회장과 집행부장은 모든 팀과 tf에 참여한다.

2. 언론/꼼반 특별활동 보고

2.1. 꼼반 공통 코치자켓(이하 꼼잠)기획

지금까지의 '과잠'이라 함은 과/반에서의 특정 학번이 공유하는 옷을 일컬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언론/꼼반에서는 모든 학번이 함께 맞출 수 있는 이른바 '꼼잠'을 맞추는 것을 기획중이다.

2.2. 꼼반 내 자체발행 소식지 '꼼보통'

언론/꼼반에서는 기층과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사안들을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끌어들이고, 기층 학우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자 매달 학내 소식, 사회/문화, 정치/경제, 자유 기고 등으로 구성된 반 소식지 '꼼보통'을 발행한다. 현재 꼼보통의 지면 구성을 비롯한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3. 다양한 SNS 이용

언론/꼼반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 '언론꼼반', 그룹 'SNU Comm', 그리고 네이버 카페 'COMMunity'를 운영하고 있다. 페이지 '언론꼼반'은 꼼반 내 각종 행사들을 알리거나 꼼보통 및 꼼반 차원의 자보를 게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 'SNU Comm'은 꼼반 운영위원회(이하 반운위)나 단과대 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등 조금 더 큰 사안들의 논의, 또는 총학생회/사회대 학생회 등의 공지사항을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네이버 카페 'COMMunity'는 반운위 안건지나 속기록 등을 게시하거나 강의평 및 족보 자료, 그리고 학회별 세미나 자료들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새맞이 당시 시간표에 대한 조언이나 자기소개 등으로 활성화되어 있었고, 현재 종강을 맞아 강의평들이 활발히 등록되고 있다.

2.4. 꼼알전

올해 들어 3번째를 맞고 있는 꼼반과 알반의 연합 운동회인 꼼알전은 두 반의 교류를 촉진하고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꼼알전은 매년 봄 1회씩 버들골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학번과 관계없이 참가하고

자 하는 꼼반/알반 구성원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두 반의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2.5. 꼼영화제

64동 희관홀에서 매 학기 열리는 꼼영화제는 특정 테마를 선정해 그에 맞는 수 개의 영화들을 상영하는 행사다. 영화제는 저녁부터 시작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며, 배고픈 참여자들을 위한 야식이 준비된다. 영화가 끝난 뒤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정답자에게 보상을 주는 퀴즈를 하기도 한다.

3.학회 및 소모임 활동 보고

3.1. 학회 활동

언론/꼼반에는 현재 '문화학회 공간'/ '철학학회 돌추'/ '언론학회 장정'/ '역사학회 들풀' 4개의 학회가 존재하고 있다. 새로 입학하는 새내기들은 3월 초 학회 공청회 때 4개의 학회중 한 곳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학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미나+ TS + 홈커밍데이 + 합식 및 나들이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3.1.1. 세미나- 각 학회별로2~3달에 1회씩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발제자가 특정 주제를 발제하면, 세미나에 참석한 학회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토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3.1.2. TS (Travel & Seminar) - 각 학회가 매 여름 TS 를 가고있다. TS는 학회원들이 여행을 떠나며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미나를 통해 지적인 토론을 나누는 중요한 활동이다. 철학학회 돌추의 경우 겨울까지 TS를 가서 총 2번의 TS를 간다.

3.1.3. 합식 활동-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학회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현재 합식 활동은 학회 고학번과1617학번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5월 이후 대부분의 학회에서 참여율이 저조해 합식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나마 계속 합식을 이어가고 있는 공간, 돌추, 들풀과는 달리 장정 학회는 4월 말부터 어떤 합식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3.1.4. 나들이- 학회가 결정된 이후 4월 즈음에 4개의 학회가 모두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후 나들이는 학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공간 학회의 경우 특히 나들이 문화가 잘 활성화 되어있는 학회이다. 2016년의 경우 대학로 연극 관람과 야구 직관, 수원 나들이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주었고 2017년에도 공간 학회원들 끼리 여러 문화 공연을 즐기며 친목도모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3.1.5. 홈커밍데이- 홈커밍데이는 각 학회 고학번&졸업생을 초대하고 후배와 선배가 교류하는 자리이다.

3.1.6. 기타- 3월 총엠때 학회별로 요리 대결을 한다. 학회 단위로 학회원들을 위한 군송회를 열기도 하며, 공간의 경우 '공간 영화제' 같은 독특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모든 학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고, 대략 학회1617학번 인원수의 절반 정도가 학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편이다.

-학회는 언론/꼼반의 자치 최소단위의 역할을 하며, 학회장들은 언론/꼼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학회원들의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3.2 소모임

35대 학생회장 임기부터 소모임 등록제를 실시하여 따로 소모임 등록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는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꼼반 밴드)/'광장'(육회 소모임)/'연남동' (연어 맛집 탐방 및 평가 소모임)/ '까꼼' (사회 비평 소모임)/ '술을 많이 남기는 동아리'(가칭) (자기계발 소모임)

총 5개의 소모임이 공식 등록되어있다.

소모임 등록기간 이후 소모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자유롭게 소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소모임이 그런 것은 아니고, 미리 인원을 확정 지어 더 이상 인원을 받지 않는 소모임도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는 해오름제 무대 공연, 꼼음 공연에 참여하며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소모임들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소모임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소모임과 관련된 논의가 1학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학기말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소모임만' 다음 학기에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운위에서 기말 보고서를 심사하여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소모임은 운위 참가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소모임 등록 신청서에 명시)

4. 과/반자치

과/반자치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기 위하여 학생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부터 시작해보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회'를 주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스무 살이 된 우리는 눈 앞에 놓여진 수천, 수만 가지 선택지에 당황한다. 열아홉 이전까지는 무언가를 선택할 의무는커녕 권리조차 박탈당해왔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도 좋든 싫든 하루의 대부분을 붙어 지내며 일상을 보내야 했던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모든 것이 확 바뀐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혼란을 겪게 된다.

여기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학생회가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 내지는 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회는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구성원들은 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지를 고민한다. 치열한 고민 끝에 그 방향성을 받아들이든지, 반대로 가든지, 아니면 제3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든지, 주체적인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학생회가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학생회는 뚜렷한 방향성과 추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을 뭉쳐놓은 집합체에서 넘어가서 명확한 집단만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 비전은 학생회의 이름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때, 혹은 친목 활동을 집행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방향성을'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엘리트주의적인 계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따르지 않으면 이단 취급하는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성원들 역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주체적인 삶이란 '불편함'과 '투쟁'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투쟁은 단순히 아래에서 위로의 물리적인 대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관과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한 불편함에 부딪히며 자신을 찾아나감에 있다. 그저 귀찮다고 무작정 학생회의 방향성에 몸을 싣거나 아예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과/반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학생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하거나, 주입하는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충분히 주지 못하는 경우, 구성원들은 고민해볼 가치관의 부재에 혼란스러운 상태 그대로 표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에 대한 애정이 생길리 만무하므로 학생회의 존립 또한 위협받는다. 반대의 경우 역시 그것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다. 방향성 제시의 수준을 넘어 강요가 된다면 학생회의 정체성이 누군가를 배척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과/반자치의 문제점은 학생회가 '기회 제공'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신이 하고 있는 선택이 과연 치열한 고민 끝에 스스로 내린 결정인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자신과 맞지 않다, 불편하다고 먼저 외면해버리기보다 어떤 근거로 자신이 그런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지, 자신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은 없었는지, 나아가 학생회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볼 수는 없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구성원의 고민의 부족 또한 과/반자치 위기의 원인이 된다. 결국 과/반자치라는 건 학생회라는 집단만으로도, 구성원 개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활발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알반

과/반 특위 알반 자치 현황 보고서

1. 반의 운영방식

1) 반의 목적
회원 간 친목과 상호애 강화 사업 진행, 회원의 인간적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 진행, 회원의 이해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진행, 위 목적을 위한 기타 단위와의 연대사업 진행, 이외 기타 필요 사업 진행
2) 회원
알반 재학생 및 휴학생 전원으로, 졸업생은 준회원의 자격을 지닌다. 회원은 입학과 동시에 본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3) 회비
정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본회에서 계획하는 사업의 행사에 기금이 필요할 때 운위나 총회에서 의결하여 모금한다.
4) 회의 기구
- 총회
본 회 활동에 최고의결권을 갖는다.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족수 등의 성립요건과 의결조건이 있으며 그 기능은 사업 방향 결정, 회칙 변경, 간부 소환, 사업 계획 및 심의, 예산 심의 등이다.
- 학번총회
총회 하급회의로 학번 활동에 대한 최고의결권을 갖는다. 역시 성립 요건 및 의결조건이 있으며 학번대표의 선출과 소환, 학번 사업 계획과 심의 등을 한다.
- 운영위원회
본회 최고 운영기구. 학생회장, 집행부장, 각 학번 대표를 기본구성으로 한다(기본적으로 밑에서 두 학번의 학번대표). 임의로 소집한다(실제로 소집이 어려운 상시에는 대면 회의가 아닌 카톡으로 다양한 안건을 토의, 심의, 인준하고 기타 중요 사항에 있어서는 따로 소집을 합니다). 학생회원 누구나 발의 하고 발언할 수 있으며 직접 참여 및 서면 제출, 대리자 부탁 등이 가능합니다.
총회 소집, 각 과반 학생회 사업 및 행사 계획과 집행, 상급 단위 결정 사항 심의와 집행, 상급단위에 대한 계획 발의, 필요 시 사업별 추진체 구성, 집행부 회의 임시 소집권,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심의 및 의결.
- 집행부
알반 내 중요 사안 심의, 결정. 단 운위의 최종 의결 필요. 학생회장과 집행부장, 각 집행부원들로 구성된다. 학생회장, 집행부장, 운위의 요구 시 소집될 수 있으며, 운위에서 위임 시 집부는 운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현재 기획부, 문화부, 홍보부로 나뉘어 집행부장 아래 기획부장, 문화부장, 홍보부장이 각 부의 부원들과 함께 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 학회
- 학문 및 친목의 목적으로 성립 요건이 있다. 학회 지원금은 매년 총 20만원이 책정되며, 한 학회 당 최대 10만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 활동 실적 등의 요건에 따라 이를 배분한다. 학회장이 선출되어 여러 일을 맡아서 하며, 학회장에겐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결권이 없다.

2. 올해 알반 사업의 특징

1) 야식사업
 다른 반들과 마찬가지로 알반도 매 학기 중간, 기말고사 기간마다 야식사업을 한다. 다른 반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나마 다른 점은 학생회 집행부 내부에서 기획부, 문화부가 번갈아가면서 준비한다는 것. 1학기는 문화부, 2학기는 기획부에서 담당했다. 홍보부는 관련 없음.

2) 문화가 있는 알
 문화가 있는 알 행사는 심리 알반에서 학번에 관계없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 만든 행사들 중 하나다. 연극, 영화, 뮤지컬 등의 행사를 다 같이 관람하고 뒤풀이에서 노는 행사로 기획했다. 하지만 행사를 지속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4월에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참석률이 너무 저조했다. 그리고 영화를 본 뒤, 바로 귀가한 사람들이 많았고, 행사 뒤풀이라고 하기에는 좀 초라한 뒤풀이를 했다. 참여인원이 적다고 해도 의의가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 정도는 그냥 소수의 사람들끼리 놀고 오는 정도라서 굳이 학생회 차원에서 기획하는 것이 맞을지 논의 중이다. 현재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다수.

3) 군대 프로젝트
 학생회 차원에서 새로 기획한 사업이다. 군 입대를 앞둔 학우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미 입대한, 그리고 입대 예정인 알반 사람들에게 군 입대를 위해 준비할 사항들, 입대 전 팁, 군대 안에서의 팁, 그리고 제대 후 인간관계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한 뒤 심리알반 카페에 올릴 예정이다. 방학이 끝나기 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스누인, 교환학생 프로젝트
 군대 프로젝트와 같은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스누인과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거나, 지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팁과 경험담에 대한 인터뷰를 해서 심리알반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이것도 방학이 끝나기 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운동회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꼼반과 운동회를 했다. 작년과 다른 점이라면 종목에서 닭싸움과 농구가 제외되고, 놋다리밟기와 꼬리잡기가 추가되었다는 것. 반 학우들 간의 친목에 있어서도 작년보다 더 큰 효과를 본 것 같다. 특히 몇몇 반 새내기들끼리 꽤 친해진 것 같다.

6) 선배와의 대화 폐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에는 선배와의 대화라는 선배 초청 진로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를 나열해보자면
1. 매년 선배와의 대화를 진행할 때마다 오시는 선배님들이 거의 같다.
2. 올해 신입생들은 전부 다 심리학과 학생들인데 오시는 선배님들은 경제학과가 대부분이며, 완전히 심리학과 쪽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다고 알반이 아닌 분을 모셔올 수도 없는 노릇.
3. 심리학과 자치회에서 심리학과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셔와 반 차원이 아닌 과 차원에서 선배와의 대화를 진행한다. 학생들의 요구에 더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것만으로도 진로간담회의 역할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7) 올해부터 반의 소식지를 담당하는 교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달의 생일 및 행사 수록, 반 학우 인터뷰, 식당 및 책 추천, 행사 후기 등이 수록된다.

8) 이 밖에 뻔엠, 쪼엠, 총엠, 반 소풍 등의 기본적인 행사가 있다.

3. 반 내 학회 활동

1) 알반 학회

현재 알반은 사회학회 '셰르파'와 철학학회'동행'이 활동 중이며, 의무 학회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셰르파는 16학번 10명, 17학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행은 15학번 7명, 16학번 10명, 17학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학회 체제 상 신입생을 쌓아가는 형식인지, 혹은 매년이나 학기마다 구성을 갈음하는 형식인지에 따라 15학번 포함 여부가 갈렸다). 15학번 이상의 학우의 참여에 대해서는 홈커밍과 같은 행사를 따로 열고 있지는 않으나 두 학회 모두 언제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또 잘 이뤄지고 있다.
주기적(일반적으로 격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셰르파는 의무 참석제로 학기당 3회 이상 불참 시 벌금을 내는 제도로 운영되며 동행은 연 3회 출석이라는 비교적 쉬운 출석요건을 갖고 있다. 매년 초에 "오픈세미나"라는 리크루팅 세미나를 열어 자유로운 참석 하에 이뤄지는 큰 세미나 후에 희망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리크루팅이 이뤄진다.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에는 학회 엠티인 TS를 가며 학기 중간에는 학회 별로 마니또, 소풍, 조별 활동, 일기 작성, 카페 및 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친목활동을 진행한다.

다음은 각 학회로부터 수합한 개별 보고서이다.

2) 셰르파

지식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사상에 관해 자유롭게, 또 진지하게 토론 할 수 있었다는 학(學)의 측면과, 주기적으로 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는 회(會)의 측면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반과 관련하여 회(會)의 면에서는 소풍과 조 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추억을 쌓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확실히 반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는 기회로 작용했다고 한다. 또 학(學)의 면에서도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었음에 만족하는 학우들이 많았다. 주기적 토론을 통해 스스로의 성장에 대해 감탄하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16학번의 참여가 17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았다는 점, 더 나아가 전체적으로'일기 작성'과 같은 카페 활동은 물론 의견 개진에 있어서도 부진했다는 점은 구성원의 책임감을 더 요구하는 듯하다. 과거 세미나에 대한 기록물의 부재 역시 의미 있는 비판이었다. 학회의 역사를 다져가는 게 필요해 보인다. 각자의 참여도와 책임성, 뒤풀이 같은 자리의 부족함이 추가로 지적되었다.

3) 동행

<학회장의 소고>
심리/알반 철학회 동행에 대한 소고(의식의 흐름 주의, 무형식 주'동행'은 꽤나 많은 신규 지원을 받았고, 오픈 세미나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나, 학기 중간의 참석률은 저조한 편이었다. 이는 어느 정도는 학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최소 참석 요건도 자유롭고 주제도 자유로우며, 불참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학회장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회의 목적과 의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반이라면, 학회와 달리 그 구성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참에 대

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더 옳지 못한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그러고 보면 이번 과-반 특위에서 반과 학회의 정의에 대해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반과 학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대 전체의 합의가 이끌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행동해야 하는지가 조금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자유로운 선택'만에 모든 것을 맡겨 학회의 쇠락을 관조하는 것은 학회장으로서 무책임한 일이기에 그래서 학회는 콘텐츠에 있어 보다 풍성해져야 한다. 학회도, 반도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매번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이다. 학회와 반은 바뀌는 구성원들의 needs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구성원 과의 소통과 소통 후 추진력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심리/알반 사회학회인 셰르파에서 내가 존경하는 점이 있다면, 하나의 발제에 대해서 팀을 만들고 같이 자료를 조사하는 등 발제의 형식과 준비가 체계적이라는 점이다. 벌금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동행도 그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자유롭게 참여할 의사를 비친 사람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마련해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4. 과/반 활동에서의 문제의식

1) 17들의 의견 정리

a. 반의 역할과 의미

반 내에서 단순히는 면식이 있기도 하고 공동체 의식도 있어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 반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나 반 내의 갈등을 떠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이에 학생 수가 많은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반의 역할이나 의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새내기의 착하고도 사려 깊은 우려가 나왔다).

b. 반 내에서의 갈등에 대한 문제

갈등이나 서로 친함의 정도에 있어서 개인별로 차이가 생기는 게, 공동체 내의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라도 이를 해소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완화시킬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자리(공론장)가 필요하다고 한다.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니 새내기로서는 표현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스스로의 생각, 불만, 갈등을 회피하게만 된다고(더 나아가 그냥 곪는다, 즉 심화되어 가고 골이 깊어갈 뿐이라고). 학생 간 마찰이나 갈등에 대한 공식적 중재에 대한 시스템과 문제의식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대리 의견 첨가 : 또한 이러한 중재에 있어서 서로의 갈등을 상처 받지 않고 풀어 낼 수 있는 각자의 태도와 마인드 정립도 필요해 보인다. 과연 어떠한 태도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건지, 어느 정도 진지하게 실현시킬 사항인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c. 반 활동 참여에 대한 문제

참여하기 '싫어서', 즉 개인의 성격 문제로 참여를 않는 학생들의 경우, 이들을 반 활동을 않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의견과 '강요의 필요성은 없다'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둘 다 다소 강경한 입장인 듯하다. 다만 반 활동을 도모하는 입장에서는 참여를 않는 경우 불참 여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만이라도 감사할 것 같다고 한다.

또한 반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아직 반에서 웃돌고 있는 듯한 소외감 문제, 이미 몇몇 친구

들이 서로 친해져 있어서 쉽사리 끼기 어려워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대부분 활동에 술이 함께 한다는 것 역시 부담이 되는 듯하다. 확실히 반 학우들과 친해지거나 반에 소속감을 느끼는 기회 자체에 개인차가 생기는 요소인 듯하다.

이와는 별개로, 별로 얼굴을 안 비추던 친구가 모임에 참석하면 가치가 너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평소에 애써주는 친구의 가치를 덜 쳐주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고맙다, 수고했다의 표현이 매우 필요하다고 한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라는 대목이 어울리는 부분 같다.

d. 업무에 관한 문제

특히 장터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만 일을 한다는 게 큰 문제로 부상했다. 먼저 업무 의사를 표현 하고서도 나타나지 않은 친구들에 대한 지적이 있다. 또한 준비가 급박했던 건 물론 체계가 불분명해 장터 날 소수에 “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현 체제가 강요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도 없는 문제라서 분배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나왔던 지적들은 확실히 짚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책임 소재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느끼는 듯하다.
(장터 때 못 보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지는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 생각해본 해결방안

- 알반 대나무 숲: 과반행사가 끝나고 익명으로 후기를 공유할 장에 대한 의견, 오픈 채팅도 괜찮다. 일상 공유,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하기, 연애고민, 상담 등의 장이 될 듯. 익명성의 묻혀서 실제적 갈등이나 문제의 해결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 최소 위로는 가능하다는 의견에는 공감대가 있어 보인다.(위로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듯)
다만 글에 대한 추측, 혹은 작성자의 고의적 저격 등 오용의 우려도 살펴봐야 한다. 스크리닝 관리자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되었다.
(오픈 채팅보다는 대숲이 낫다는 의견. 문제제기는 익명이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실명인 형식으로)

- 정기적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반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 반 사람들의 경우, 공식적인 활동에 참여는 원활하다. 저런 자리를 만든다면 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적으로 하게 된다면 앙금도 풀어지고 좋을 것이다.
이미 틀어진 사람들은 어차피 안나올것이라는, 실효성 면에서의 비판이 있었으나, 공동체내 갈등의 불가피성을 감안한다면 어찌됐건 공론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필요할 것 같다고 한다.

<Bonus-새맞이 피드백>
좋았다. 선배님들이 다 잘 받아주시고 짱이었다. 특히 남새짱님. 표현대로 꿈만 같았다. 꼰대 짓 당한다는 느낌도 안 들었고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안 들었다. 짱이다. 특히 우리 반은 많이 만난 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다.
(회장 대리 의견 :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걸까...)

※ 과반 체제가 개편된 이후로 알반 내에서 성비 불균형과 관련된 문제는 딱히 드러난 바가 없다고 한다.

2) 알반 집행부 내에서의 의견

기본적으로 현재 학회, 반을 애정으로 가꾸는 사람들의 노고, 변화를 시도하려는 정도, 또한 화합 및 인권 감수성에 있어서 편안한 분위기 등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전제되어 있었다. 다만 일부의 참여가 아닌 더 많은 학우들의 참여에 대해 안타까운 점이 제기되었고, 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 전체적으로 학번 간 교류가 적다.
- 소외 당하는 친구에 대한 걱정이 있다. 술자리 제외하고 소통 창구가 많았으면.
- 볼 수 있는 친구가 한정되어있다.
- 공식적 활동 외에 반 사람 만날 일이 극히 적다.
- 서로 속 터놓고 얘기할 공식적 자리가 필요하다.(공식적 tea time을 갖자는 의견도 나왔다.)
- 기층과 집부, 운위 간 연결고리가 더 필요하다.
- 기층의 피드백이 필요하다.(진짜 아주 많이 심한 말 써가면서까지 절실해서 미칠 지경이다)
- 참여 동기(필자는 떡밥이라 표현했다)가 될 수 있는 반의 문화, 행사, 드립(?)이 있어야 한다.
- 참여도가 저조한 학생들의 경우, 참여를 못하는 건지 않는 건지의 구분이 잘 되면 좋겠다.

악반

<사회/악반 자치 보고서>

1. 반 운영 방식

1) 반운영위원회

① 구성 및 운영방식

-학생회장 + 집행부장 + 1학년대표 2명 + 2학년대표 2명 + 학회 대간 3명 ;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매달 1번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반운위 톡방에서 인준절차를 거친다.

-요즘은 사실상 오프라인 회의는 참여율 저조로 잘 못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하는 회의 및 인준절차가 더 주요하다.

② 반운위 운영에서 아쉬웠던 점

-회의가 정례화되지 않고 참여율이 미흡하다. 다룰 사안이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였는지 다들 관심이 적은 것 같아서 회의 성사가 쉽지 않다.

2) 집행부

① 구성 및 운영방식

-주로 학기 초에 구성되며 총 3개의 국으로 나뉘어져 활동한다.

-현재는 총 26명이 활동중이며 14학번 1명 16학번 12명 17학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는 정례화되어있지 않으며, 다같이 모이는 전체회의는 학기초와 학기말에 있다. 학기초에는 이번 연도에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지 논의를 하고 과방 청소를 한다. 학기말에는 LT를 가서 집행부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집행부 구성	사업	운영상 칭찬 및 아쉬운 점
복지국	기출문제 공유사업 중간기말 야식사업 과방청소관리 교환일기 깃발 제작 온라인 커뮤니티 이전 등	-기출문제 공유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2017년 중간고사 기출문제 공유에 단 2명의 구성원만이 참여하였다. -교환일기 사업 역시도 시작 초기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였으나, 1학기 말이 될수록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방치되었다.
문화국	보드게임토너먼트 야유회 교복데이 마니또 등	-야유회는 중간고사 이후에 잡았으나 참여율 저조로 가지 못하였고 기말고사 이후로 가기로 했다. 이처럼 3월 이후에 꾸준히 반행사를 열어서 다같이 모이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사회국	악반 집담회(학기에2~3회)	-17학번의 참여율이 꽤 높은 사업이다. 집담회 주제에 맞추어 구성원들과 여러 얘기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라 악반의 여러 행사 중에서 가장 유익한 행사인 것 같다는 대표파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② 집행부 운영에서 아쉬웠던 점

-회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자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나중에 좀 흐지부지되는 사업들도 생겼다. 사업 담당을 배분해서 담당자가 책임 있게 사업을 끌어가는 형태로 진행했는데 오히려 담당자만 일하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 집행부 전체 혹은 국별로 회의가 주기적으로 있어서 서로 사업 진행 확인이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해결해나가야 할 것 같다.

2. 학회 및 소모임 현황
-세 개의 학회로 구성되며 별도의 소모임은 없다.

1) 역사 학회
① 학회 소개
-역사는 역사(歷史)를 공부하고자 만들어진 학회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공부보다는 자유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 16, 17학번의 인원수는 18명이다.
② 2017년 운영
-작년의 역사는 거의 '회'만 남은 상태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올해는 학회의 기반이 될 '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중에서도 세미나는 구성원간의 담론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올해 세 번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작년에는 TS, 엠티, 술자리 등 친목 모임을 많이 가졌고 올해에도 이러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학회에 비해 술자리가 잦아 구성원들끼리 친하고, 올해는 구성원들끼리 영화도 보고 해외여행도 가는 등 '회'의 성격이 강하다.

2) 미네르바 학회
① 학회 소개
-전체 인원은 48명이며, 16, 17학번은 29명이다.
-매주 1회 책과 논문을 통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진행하며, 세미나 후 뒷풀이를 통해 자주 친목도모의 자리를 가져 구성원 간 결속이 좋다.
-이외에도 점심모임, 야유회, 엠티, TS 등을 행사를 진행한다.
-학회 활동이 활발한 만큼 선배들의 애정도 각별해서 홈커밍데이에 50명 가량의 선배들이 매년 온다.
-겨울방학에 1년간 다룰 책과 논문의 주제별, 주차별 커리큘럼을 미리 선배들이 준비한다.
② 2017년 운영
-올해는 페미니즘과 위안부 문제, sns와 정치, 사회운동론, 마음의 사회학, 감정과 자본주의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현재까지 감정과 자본주의, 마음의 사회학,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세미나를 진행할 때마다 커리를 만들기 때문에 커리를 구매한다면 직접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제에 대해 공부할 수있다.
-매 세미나에서 참여 인원은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 정도 된다.
-1학기 동안은 2주에 한 번씩 점심모임을 진행하였다.
-7,8월에 각각 엠티와 TS를 계획하고 있다.
3) SOF 학회
① 학회 소개
-SOF는 Sight of future라는 뜻의 학회이다.
-16학번과 17학번을 합쳐 현재 19명이 활동 중이다.
-학회이지만, 친목 중심으로 운영된다.
② 2017년 운영

-올해 SOF의 활동 주제는 '문화예술'이다.
-'학'에 대한 부담없이 친목중심의 모임인 만큼 세미나는 하지 않는다.
-이번 학기에는 점심 모임, 놀이공원 야유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항공점퍼도 맞추었다.
-8월 중에는 국내로 여름 여행을 갈 것이며, 2학기 때도 점심모임, 야유회, 문화 활동 등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3. 악반 공동체에 대한 고민
1) 악반 공동체의 장점
-과/반 특위 파견위원의 의견으로는 악반의 반운영은 잘되는 편에 속한다. 다른 반에 비해 인원수가 적은 편에다가 가족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공동체로서의 악반은 결속력이 매우 강한 편이다.
-새맞이가 잘 진행된 덕분에 16학번, 17학번끼리의 결속도 좋고 최근에는 17학번끼리도 간간히 모임을 갖는 등 결속이 끈끈하다.

2) 악반 공동체의 문제의식
-시간이 지날수록 행사 참여율이 적어 다같이 모이는 자리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는 집행부의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자주 드러나는 문제점이다. 구성원들 각각이 개인적인 일로 바쁘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더 만들어 그 수를 늘리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행사의 참여율을 높여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집행부 운영에서도 언급했지만, 각각의 사업마다 장터준비위원회, 엠티준비위원회 등을 꾸려서 하는 형태이다 보니 각 사업 담당자들만 그 사업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악반 내의 사업이 준비하는 사람들만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4. 학생자치에 대한 고민
1) 반공동체와 학생자치의 관련성
-사회대 내의 의결이나 사업이 반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자치를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선 반공동체의 결속이 매우 중요하다. 반공동체의 의미가 사라질수록 친목뿐만 아니라. 함께 얘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교내, 교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며 담론을 형성하는 자리 역시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행동방안을 취해야하는지 등을 함께 얘기할 수 없다면 학생자치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자치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 그 보다 작은 단위인 반공동체가 매우 중요하고, 반공동체에서의 담론이 형성되어야 각 반의 담론이 모여 전체 학생들의 담론 형성으로까지 이어질 수있다.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모여 좀 더 나은 학생자치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길반

2017 '과반 자치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한길반 보고서

작성자: 최용혁, 박선아(대표파견위원)

1. 운영방식

한길반은 다른 반들과 마찬가지로 반운위와 집행부라는 2개의 기구를 통해서 운영된다. 반운위는 학생회장(의장), 학회장, 소모임장, 16뻔대, 17뻔대(2명)로 구성된다. 정기 반운위는 회칙 상 시험기간과 방학에는 한 달에 1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소집하게 되어있다. 반 사업 인준, 자보 인준, 연대 및 자보 연서, 한길 신문고 민원처리(?) 등의 일을 한다.

반운위는 학기 초에는 제법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생산적인 논의도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출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원인으로는 학생회에 대한 관심 부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뻔대나 학회장의 경우 직책을 맡기를 원하는 학우가 없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강제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마지못해 직책을 맡은 학우들은 뻔 사업 또는 학회 사업 이외의 학생회 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러 들어온 집행부원과 다르게 본인이 학생회의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가지기도 어렵다. 또한 뻔 사업과 반 사업이 명확히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소통이 부재하여 17뻔대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잦았다.

집행부는 인권사회팀, 문화자치팀, 그리고 홍보팀으로 구분되어 있다. 집행부장은 집행부원 중 학생회장이 반운위의 동의를 구하여 임명한다. 문화자치팀은 반내 복지 사업을 주로 담당한다. 간식사업, 총엠, 개파, 종파 준비, 군인 우체통 관리, 한길반 사업 홍보 카드뉴스('지금 한길반 에서는'), 한길 영화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권사회팀은 사회 참여와 관련된 일을 맡고 있으며, 가장 크게는 월별로 'x월 시대와 우리의 한길'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월 별로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반방 꾸미기, 자료집 만들기, 세미나, 행사 참여(인권 영화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3월은 여성, 4월은 세월호, 5월은 노동이었고, 6월은 쉬는 주간이었다. 7월은 퀴어 퍼레이드가 있는 달이니만큼 성소수자로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홍보팀은 디자인 업무 및 페이스북 관리를 하고 있다.

집행부는 시험기간이였던 6월을 제외하고 매우 잘 운영되었다. 이는 집행부의 사업에 열정을 가진 몇 학우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2. 학회 및 소모임

2.1. 학회

한길반의 학회는 열음과 창 2개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까지는 3개의 학회(열음-역사 및 사회학회, 창-문학, 예술 학회, 맥-정치, 경제학회) 이 있었으나, 활동 부재 및 차기 학회장의 미선출로 사라지게 되었다. 때문에 현재는 창과 열음 2개의 학회만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학기 초 각 학회는 새내기들에게 학회 홍보하는 시간을 가진다. 홍보는 크게 학회 공청회와 예감세미나로 이루어진다. 학회 공청회에서는 구성원 소개 및 학회 활동을 소개한다. 예감세미나에서는 각 학회가 같은 주제로 2번의 세미나를 열어서 새내기들이 모든 학회 세미나에 참여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세미나 이후에 뒷풀이 자리를 가진다. 예감 세미나 이후 새내기들은 자신이 소속되기를 원하는 학회를 결정하고, 이후 학회 총회와 입회식에 참여한다.

2017년 들어 학회가 2개로 줄면서 학회 홍보 과정에서 과열되는 경향이 발생했다. 한 학회가 학회와 관련 없는 자리에서 과한 홍보와 영입, 카톡과 밥약 등을 통한 개인적인 영입 등이 문제가 되었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5월달 학회 홍보 가이드라인 TF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다만 5월 달에 학생회장이 모든 것을 놓으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학회 가이드라인 TF는 학회의 홍보 관련 규칙들을 제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일주일 사이에 공청회와 예감세미나를 모두 진행하여 홍보 과열을 막고, 새내기 개개인에 홍보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새내기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학회 선택에 있어서 권위적인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1). 열음

한길반의 사회학회이다. 구성원은 16 14명, 17 14명이다. 한길반 새내기의 3분의 2 정도가 열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길반 내에서 큰 학회이다.

세미나는 각종 사회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사회 운동, 촛불 집회, 선거 등) 주제로 한다. 학회 행사로는 한 학기당 세미나 2번, 그리고 엠티 한 번 나들이 한 번, 뻔 여행 한 번이 있다.

2). 창

한길반의 문학 및 예술학회이다. 구성원은 16은 17명, 17은 6명이다. 그 전까지는 3학회가 거의 균등하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학회가 2개가 되고, 새내기의 인원수가 적어짐에 따라서 6명의 인원만이 창을 선택하였다. 창은 한길반 내에서 소수파 학회가 되었다.

학회의 문화로는 입회식 때의 '책 마니또' '사발식' 등이 있으며 입회식에서 선배들이 선물하는 책 중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른 후, 그 책의 주인과 사발식 대결을 해 이기면 책을 갖는 것이다. 세미나는 대부분 '개인적인 느낀 점과 삶과 관련된 문제 -우울, 사랑, 자살' 등을 주제로 한다. 학회 행사 일정은 세미나 한 번, 영화 감상회 한 번, 나들이, 엠티, 문학기행이 있다.

각 학회가 특징이 명확하며 대조적인 면모를 보인다. 세미나 주제만 보아도 열음은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창은 개인에 대한 주제를 가진다. 열음은 활달한 성격의 학우들이 많이 들어가고 공동체의 유대를 중요시한다. 창은 차분한 성격의 학우들이 주로 들어간다. 서로가 명확한 특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으며, 사업 운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2.2 소모임

한길반의 소모임으로는 인권소모임인 권리 장전이 있다. 매 달 한 번 모임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여 술을 마시면서 가볍게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한다. 또 인권 영화제를 함께 참여하거나,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것이다. 가끔 한길반의 인권사회팀과 연계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한다. 작년 중반에 만들어져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재생산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3. 한길반 자치에 대한 문제의식 및 자랑거리

3.1. 문제의식

3.1.1. 학생회장의 권한과 책임의 막중

한길반의 권력구조를 보면 학생회장에게 거의 모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물론 학생회장은 선출직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하지만, 개인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과중되어 번아웃 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부장은 존재하지만 학생회장에 비해서 권한, 책임 등이 명시적이지 않은 상태이다. 반운위에 참여하는 정도의 일을 제외하고 특별히 하는 활동은 없다. 때문에 집행부장이 학생회장을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 식의 체제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3.1.2. 집행부 노동력 부족

한길반 집행부의 총 인원은 14명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집행부의 업무를 열정적으로 진행하는 인원은 학생회장, 집행부장, 문자팀장과 인사팀장, 그리고 그 외의 부원 한두 명이다. 때문에 집행부 사업을 준비할 때 몇몇의 개인들에게 집행 업무가 과도하게 쏠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사팀 같은 경우 총 인원은 학생회장을 포함하여 7명인데 비해 업무를 추진하는 부원은 학생회장과 인사팀장, 그리고 일반 팀원 한 명이 다이다.

집행부 활동에 있어서 유령 회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나, 소수의 인원에게 일이 과중되는 것은 과반 자치 재생산 및 활성화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소수에게 부담되는 업무 과중은 집행부에 들어가면 고생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신규 집행부원이 모집되지 않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3.1.3. 학생사회와 기층의 괴리

학생회 자치 사업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층과의 괴리이다. 그 원인은 낮은 관심도로 인한 좁은 접촉면적, 그리고 고학번 소외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학우들은 학생회 체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많은 학우들이 반운위, 특별위원회, 전학대회 등의 용어에 대해서 생소함을 많이 느낀다. 이는 과/반이 자신들의 생활공동체이자, 정치공동체라는 인식의 부족에서 나온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맞이 동안 위의 내용에 대한 교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반운위 등의 기구의 접촉 면적을 넓히고 이것이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학우들이 반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며 한길반은 ‘한길 신문고’ 등을 운영하여 이러한 효과를 얻으려고 했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반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도 괴리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과/반 체제와 멀어지게 된다. 또한 ‘고학번이 아닌’ 학생들만 과반에 참여하다 보니 연속성이 크게 떨어진다. 자치에 있어서의 노하우나 전통이 물려지기보다는 ‘학생회장의 역량’ 과 ‘집행부의 역량’ 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한다. 때문에 각 학번에서 열정적인 자치를 책임지겠다는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는 이상, 학생자치가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되기 힘들다.

3.1.4. 과반체제 개편으로 인한 적은 신입생 수

또한 한길반 자치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려되는 점으로, 과반체체가 개편되며 생긴 적은 수의 신입생을 들 수 있다. 소수과라서 단합이 잘 된다면, 뭉치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적은 수의 학생 안에 자연스럽게 자치를 담당할 ‘관심 많은’ ‘열정 넘치는’ ‘시간 투자할 생각 있는’ 학생들이 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각 뻔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그 안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지 못한 학생들은 비교적 더 빨리 다른 공동체로 떠나거나 자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3.2 자랑꺼리

한음반

<한음반 과반특위-과반 운영현황>
한음반

반 운영방식, 사업, 학회 및 소모임 현황, 문제의식과 칭찬, 그 외의 반의 결속을 위한 행위들

1. 반의 운영방식
- '한음반'은 2017년 현재 인류학과 17학번들과, 그 외의 학번들은 인류학과와 광역생이 합쳐진 반으로 이루어져 있음. 특히 학년당 약 35명 정도였던 반이 2017년 20명으로 개편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 행사 : 새맞이, 개파/종파, 야식사업, 총엠, 장터, 일홉, 해오름제, 밤샘영화제, 학술제, 한음캠프 등등
1) 새맞이
: 새맞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새터에서 응원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정체화가 되어버려서 응원연습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음. 이때의 뽐뿌로 1년간 반을 이끌어간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2) 총엠
: 다 가는 총엠 우리도 간다. 다른 반에 비해 조금 늦게(4월)에 가는 편인데 이는 각 학회의 예비세미나와 공청회일정 때문이다.
3) 예비세미나, 공청회
: 자세한 설명은 아래 학회, 소모임 현황 절을 참고바람.
4) 장터, 일홉
: 새내기가 들어오는 반이면 다 하는 행사. 우리 반도 한다.
5) 해오름제
: 해오름제. 학생회 출범식을 겸한다. 사회대의 해오름제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중간고사가 다가오기 전이나 그 이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저녁때 모여 함께 영화를 보고, 수육 등을 먹으며 단결력을 높임.
6) 방학사업
- 밤샘영화제가 있는데, 이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약 다섯 편 정도의 영화를 다함께 보고 야식을 먹기도 하는, 방학 중의 행사임.
- 한음캠프는 여름의 엠티 같은 느낌으로, 2박3일간 진행되며, 상당히 재미가 있다. 2박 3일이나 가서 매우 힘들다. 주로 인천, 가평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보통.
7) 2학기 사업
- 주로 학술제를 진행한다. 15년도에는 2차례 진행되었는데, 반 전체의 세미나 형식과 학회별 활동소개제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6년도에는 역량 상 진행하지 못했다.

2. 학회 및 소모임의 현황
- 한음반에는 4개의 학회가 존재.
  사회과학회, 소행성, 반역, 심연. 각각의 네 학회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각자의 정체성을 토대로 학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끌고 있다.
- 2016년 말, 과반체제의 개편으로 인해 한음반에 배정되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이 공식화되고, 이에 학회의 차원에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있었고, 결과는 네 개의 학회 모두 유지를 하되, 그 전과는 달리 대형, 소형 학회의 느낌보다는 좀 더 주제에 맞는, 그리고 정체성에 걸맞는 학회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으로 결론.
더하여, 학회별로 활동의 최소요구조건 : 세미나와 신입생학교를 설정하여 이를 실시한 후, 1학기 방학 즈

음에 17학번 이후의 학회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학회장 회의 합의사항입니다.)
- 현재 한음반은 전원이 학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학회는 신입생학교를 마무리한 상태임. 일부 학회는 학회 엠티를 다녀오기도 했음.
- 학회가입시스템은 예비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이루어짐. 예비세미나의 경우, 2주에 걸쳐 4개의 학회가 4번의 세미나를 각각 새내기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공청회는 당일 학회 가입을 끝내고 학회의 새내기들과 학회의 정든내기들이 만나는 행사로 보면 된다. 다른 반의 공청회와 의미가 좀 다름. 학회의 선정은 투표로 하며, 1지망과 2지망을 적는데, 학회별 최소인원(매해 합의하여 정해왔음)이 안 되는 학회가 있을 경우, 2지망에서 우선적으로 채운다. 이때, 2지망 학회에 가입하고 싶은지 새내기에게 물으며, 긍정적이지 않은 답변이 오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한다.

3. 그 외의 한음반에서의 여러 움직임? 등과 문제의식, 칭찬할 점
- 움직이라면 사실, 제일 두드러지는 것은 학회의 미래에 대한 논의들. 실제로 인문대의 비슷한 인원을 가진 반들의 사례분석을 해보면, 3개 이상의 학회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 진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새맞이가 한창이던 지난 겨울방학, 학회장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했고, 결론은 4개 학회를 일단 유지시키는 것. 소수학회와 다수학회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보아 통폐합의 경우, 소수학회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소수 다수학회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각 학회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에 대하여 고민해보자는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것이 이번 학기에 잘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칭찬할 점은 아직까지는 딱히 없음.
- 학생회장 개인의 고민은, 이번 17학번이 유달리 파편화가 심한 것 같다는 점. 다만, 이것이 '우리때는말야~'수준의 고나리질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이 개인적으로도 서지 않는다. 다만, 학생회 행사 자체의 규모가 축소되고, 이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불참을 낳는 악순환이 어느정도 일어나는 중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36명(기존인원) 중 4분의 1이 참가하면 9명이고, 20명의 4분의 1이 참가하면 5명인데, 모아놓고 보면 2배차이라 학생회 행사들 자체가 되게 초라해 보인다는 단점이 있기도. 물론 더 밀도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애초에 9명도 밀도 있게 진행 가능한 인원이기는 하니까... 다만, 학기 초의 시흥캠 간담회나 4월 4일 총회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아서 앞으로 본인이 더욱 잘해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파이팅.

겨레반 자치현황 보고서

Ⅰ.운영

아마 대부분 과/반이 그러하겠듯, 겨레반의 큰 틀에서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와 집행부가 꾸려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리고 집행부에 관해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1)운영위원회

①구성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역시 구성에 관한 것이겠지요. 겨레반 운위는 학생회장, 집행부장, 1학년·2학년 학번대표, 학회장, 소모임장, 회계, 그리고 재학생으로 구성됩니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단위는 필수참석단위이며, 과반 단위의 출석이 있을 때 운위가 성사됩니다. 학회장이나 소모임장의 경우 운위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회칙 상 규정하는 등 운위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을 두고 있습니다. 필수 참석단위를 합하면 모두 14단위—학생회장(1), 뻔대(2), 학회장(5), 소모임장(5), 회계(1), 집행부장은 현재 두지 않고 있음—가 되니, 겨레반 운위는 과/반 운영위원회 치곤 참석단위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무참석단위를 이렇게 많이 두는 것은 일차적으로 운위와 기층간의 괴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에 관심을 갖는 극소수만 운위에 참여하는 상황은 역시나 우려스러운 것이겠지요. 이뿐만 아니라, 뻔대나 학회장, 소모임장을 대거 불러 모음(?)으로써 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류 소식이 구성원들끼리 폭넓게 공유된다는 면이 있겠습니다. 어떤 학회는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고, 어떤 소모임은 마찬가지로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고, 뻔모는 언제 했었구나 등등 반 차원의 활동들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보공유는 그 자체로 친목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학회나 소모임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 일종의 자극제의(다른 학회·소모임은 이런 것도 하더라!)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의무참석단위가 14단위나 되지만 막상 운영위원회 자리에 14명가량의 사람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드뭅니다). 가능하면 1주일에 한 번, 못해도 2주에 한 번은(학기중) 운위를 열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단운위가 1주일에 한 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적게 열리는 편은 아닐 것입니다. 뻔대, 학회장, 소모임장을 맡는 사람들은 다른 일로도 바쁜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과/반 특위가 구성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학생자치가...네. 뭐 그렇습니다. 해서 운위 성사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대리'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특정 소모임이나 학회에 소속되어있는 경우라면 소모임장/학회장 대신 운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최대 한 단위만 대리할 수 있고(A소모임장이 B학회나 C소모임의 대리를 뛰는 것도 가능. B,C동시에 대리는 불가), 이 경우 성사 단위로 인정해주지만 의결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운위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학회/소모임 지원금을 주지 않는 규정을 두어 최대한 운위에 참석하도록, 설혹 참석하지 못해도 최대한 대리를 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②기능·역할

상당히 뻔한 내용이 담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음. 의결기구니까 의결을 합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내용이 없어지려 나요. 운위에서 대표자들은 학내·학외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합하고 토론하고 의결이 필요하면 의결 과정을 거치고, 마찬가지로 과/반 차원의 복지사업이나 친목행사들에 관해 의견을 수합하고 토론하고 필요하면 의결과정을 거치죠. 요컨대 운위는 정치·복지·일상(친목) 의제를 모두 아우르는 공론장이자 의결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다른 반도 다 똑같겠지?).

운위가 일차적으로 '공론'이 이루어지고 형성되는 장인 한, 운위의 실질적 기능에 있어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기층과의 연결성입니다. 가장 '기층'적 단위인 과/반이야말로 '기층'학우들의 목소리가 풍부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일 것입니다. 겨레반 운위에서는 매번 총학생회/사회대 학생회에서의 논의들이 소략하게나마 공유됩니다. 학생사회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지식이 없으면 유의미한 '공론'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엄중한 의제들이 등장할 때는, 주로 학회장들을 통한 기층 의견수렴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차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운위에서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중추수주의를 경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층과의 유리를 경계하면서 폭넓고 건강하게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층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자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위(+학생회)와 기층의 괴리를 해소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매번 운위에서 총학이나 사회대 학생회의 사업들, 활동들을 보고하면서도 회의감이 들 때가 많고, 운위 결과지를 매번 공유하면서도 누가 이걸 읽을까(나라도 안 읽겠다!)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대중(혹은 기층)을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기계적(?)노력보다는 무언가 특별한 계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과/반 특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을 통해 유의미한 담론들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2)집행부
겨레반 집행부는 상당히 조촐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회장, 집행부장, 일반 집행부원으로 구성되는데, 제 임기 기간 동안은 집행부장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집행부원 모두가 반에 대한 애정, 집행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제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굳이 한 사람에게 집행부장이라는 지위를 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집행부장을 뽑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 잘 맞는 집행부장을 꼭! 뽑아두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현 겨레반 집행부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사실 완전한 '자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운영은 대체로 집행/의결이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운위(논의기구)/집행부(집행기구)라는 도식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있긴 하지만, 운위와 집행부가 그렇게 또렷이 구분되지 않는 것은 여느 학생사회의 단위들이 그렇듯 겨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는 운위에서의 의결사항들, 혹은 의결사항까진 안 가더라도 어쨌거나 반 차원의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주체(학생회장의 노예)일 뿐이지 의제에 관해 논의를 안 한다거나 사업기획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선, 예컨대 참신한 사업을 기획·집행하기 위해선 운영위원회보다 집행부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집행부가 있긴 하지만 웬만한 일은 학생회장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보니 집행부가 약간 유명무실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는 저의 실책입니다. 집행부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 까진 아니더라도 자주 소집하고, 집행부원들끼리의 친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들을 마련하면서 반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말이 쉽지).

Ⅱ. 학회 및 소모임

겨레반은 사회대의 11개의 반 중 그나마(?) 학회와 소모임이 잘 돌아가는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레반에는 현재 5개의 학회와 5개의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학회
학회의 경우 언론학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 문학학회 '열린 가족', 철학학회 '철학인의 모임', 역사학회 '한뿌리', 정치학회 '현대세계정치연구회'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가장 늦게 만들어진 '현대세계정치연구회'가 90년대 이후로 존재한 것을 보아 아마 겨레반의 학회는 80년대부터 존속된 유서 깊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기록된 학회의 학술지를 보면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으로) 학회별로 각자의 분야에 대해 정기적인 세미나와 토론이 있었으며, 학술제를 통해 학교 수업에서 배

울 수 없는 지적 가치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학회가 반 활동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겨레반의 학회는 이러한 학술적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학회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한 학기에 세미나를 많이 하는 학회가 2회 정도, 적게 하는 학회는 아예 세미나를 열지 않는 등 학회원들이 세미나를 하는 데 굳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며, 세미나의 질적인 수준도 그저 각 학회별 분야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는 정도로 많이 하향된 상황입니다.

현재 겨레반에서 학회가 맡고 있는 기능은 [극미량의 학술적 기능 + 친목의 기능] 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겨레반의 학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서로의 활동을 보고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1년동안 운영되는 비슷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학기 초 같은 학회의 선배들과 고학번과 함께 친해지는 발대식 이후, 잦은 점모, 술모 외에도 마니또, 소풍, 엠티, TS(팀 세미나) 등의 활동을 여름방학까지 진행하며, 학기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각 학회에서 했던 세미나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겨레반 학술제가 열립니다.

겨레반의 학회는 의무가입제입니다. 현재 25명으로 신입생이 줄어들은 상황에서 5학회에 각각 5명씩 동일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공청회에서 각 학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함께배움터'에서 각자 배정된 3개의 학회의 세미나를(가급적이면 원하는 학회의 세미나를 들을 수 있도록 배정해줍니다.) 30분씩 맛보기로 들어본 뒤에 자신이 관심 있는 학회를 3지망까지 정해 투표합니다. 조정식에서 신입생 뻔대의 주도하에 성비가 가급적이면 맞도록 3지망까지 고루 원하는 학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3지망까지 원했던 학회에 들어갔습니다.) 반 아래의 하나의 작은 집단의 지위를 가지는 학회는 학기 초에 배제되는 학우 없이 친목을 다지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의무가입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같은 학회가 아니라면 접점이 없어 친해질 수 없던 선후배, 동기들을 알아가고 친해지는 순기능이 있으며, 반이라는 공동체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이라는 특성과 비슷한 성격의 선배들을 보고 따라가는 경향으로 인해 학회원간 깊은 유대를 나누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겨레반의 학회는 일정부분 겨레반의 학생회비에서 지원금을 받아 운영됩니다. 이는 학회의 활동이 흥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겨레반에서 학회의 학회장들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무와 의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학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기층 학우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운영위원회의 내용을 기층학우에게 공유합니다. 단순히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정사안에 대해 학생회장과 기층학우 사이의 가장 직접적인 의견 전달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학회의 의무가입제라는 특성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한 대로 현 겨레반의 학회제도는 장점이 꽤 뚜렷하지만, 분명 학회에서의 활동을 원치 않는 학우도 있을 수 있고, 더욱이 17년도부터 신입생이 줄어들면서 학회제도 현상유지에 대해 겨레반에서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논쟁은 현 상태의 5개 학회가 지속될 경우, 학회원 수가 최대 10명밖에 되지 않아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에,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 현재 있는 학회를 3~4개로 통폐합하자는 의견, 애초에 학회가 '학문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니 의무가입제로 운영되는 학회제를 폐지시키고 3~4개의 '조'를 새로 만들어서 현 학회의 기능을 운영하고 학회는 원하는 사람끼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공동체로 남게 하자는 의견 등 많은 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소모임

소모임은 밴드 '얼떨겨레', 축구소모임 'Graffiti', 독서소모임 '책모', 야구소모임 'Bandits', 영화소모임 'See Movie'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겨레반 소모임의 특성은 해가 바뀌어도 어느 정도 꾸준히 운영된다는 점인데, 가장 오래된 소모임인 밴디츠가 15년 정도, 얼떨겨레가 6년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모임은 철저히 자발적으로 결성되는 공동체로, 연초에 있는 공청회에서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 소모임원을 모집합니다.

소모임장도 학회장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무와 같은 권리를 가지며, 역시 겨레반 학생회비

로부터 1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됩니다. 소모임의 결성에 있어서 겨레반 회칙상 규정된 조건은 없으나, 회비를 지원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 책임감 있는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결성됩니다. 가장 최근 만들어진 그래피티는 17학년도 1학기에 위의 과정을 거쳐 결성되었습니다.

소모임은 겨레반 내에서 학회와는 다른 성격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소모임별로 꽤 편차가 있는 편이지만 겨레반의 경우, 전체적으로 꽤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대, 중앙동아리에 가입하는 학우의 비율이 타 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모이며 정기적으로 만나서 관심사가 비슷한 활동을 하다 보니, 소모임이 잘 돌아가는 경우 소모임 내에서 선후배, 동기간 엄청나게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너무 심해지면 상위조직인 '반'이 소수의 친목 집단에 의해 사유화되고, 특정 소모임에 속하지 않은 학우들이 반에서 멀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Ⅲ. 특별한 사업: 학술제?

학술제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했어서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제는 겨레반의 특색있는 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겨레반은 학회의무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겨레바너는 학회에 소속되어서 각 학회의 주제에 맞는 세미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1학기에 한 번, 여름방학 TS에 가서 한 번, 2학기에 한 번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때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11월 말/12월 초에 학술제 발표를 하는 것이지요.

학술제에는 보통 저학번 학회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던 고학번들이 찾아옵니다. 학술제는 일종의 홈커밍데이같은 행사라는 것이죠. 종강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못 보던 얼굴들을 보고, 뒤풀이 자리에서 근황 이야기도 하고 신세한탄도 하고. 학술제는 학회원들끼리 공통 주제에 관해 고민하고 토론해보고 하는 학술적 경험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친목 도모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고학번 참여(응원)율이 저조해지는 군요! 이는 학술제가 그저 억지로 해야만 하는 '짐'으로 전락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학술제 발표 자료들을 보면, 그 한 번의 발표에 들인 정성, 노력이 엄청남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학술제 발표 자료들은...음 뭐랄까 막 저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 자료들에 비해 노력이 덜 들어갔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어찌어찌 발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 일상적 세미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술제 발표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학생회장에 출마할 때는 세미나를 활성화시키면서 학술제를 살려보자 하는 꽤나 야심찬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대학생들은 너무 바쁩니다.

그렇다면 겨레반 학술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Ⅳ. 과/반 자치에 대한 문제의식

주제가 참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과/반 자치에 대한 문제의식이라.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라는 용어를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시작해볼까요. 한자어 그대로 풀어보면 자치란 '스스로 다스린다' 는 뜻이겠죠. 자치라는 단어의 용례를 문헌학적으로 파고들어갈 능력은 없으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지껄여보자면, 우리가 '자치'라는 용어를 쓸 때 거기엔 다분히 '스스로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세계의 어떤 부분에 균열을 내는 것'을 소망하는 원초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자치(+정치)라는 것을 논할 때 우리는 사적세계로 침잠해버리는 것, 취향이나 취미로 환원되는 다분히 '무세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어떤 '옳음'이나 '가치'를 고민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 공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하려는 것을 갈망하고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닐는지요.
과/반 자치? 뭐라고 딱 잘라서 정의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과/반 자치라는 말은 전술한 자치의 의미를 통해 충분히 그 뜻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주체!)으로서 과/반차원의 각종 문제들(복지, 친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들)을, 그리고 나아가 과/반 차원의 문제들을 넘어 학내에 산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 성격, 지향점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 우리가 단순히 과/반이라는 작은 공동체의 구성원인 것이 아니라 이 넓디넓은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존재라는 존재론적 인식 하에, 내가 추구하는, 그리고 과/반이 지향하는 어떤 옳음, 정의, 가치를 실현·수호하기 위해 공동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동참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과/반 자치'의 내용으로 들어갈 만한 것들이 아닐는지요.

과/반 자치에 대해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공동체의 공통 과제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방향을 추구하며 해결해가고 있는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이상적 사회의 상이 다분히 오류로 점철된 무엇인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아니라, 과연 과/반 자치가 소수의 것이 아닌 학생의 것이라거나 청년의 것이 될 수는 있는가? 혹은 과/반 자치가 소멸하지 않고 폭넓게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반 자치가 망했냐 망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위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구태여 '과/반 특위'라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위기의식을 북돋고 있기도 하고 있듯이 말이지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반 특위원 중 한 명으로서 별로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냉철하게 보면 우리는 정치, 그러니까 학생자치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 위에 놓여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반문할지도 모르죠. 학생자치 망했다 망했다 하지만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여전히 기능하고 있는, 재생산되고 있는 각종 자치조직들이 많이 있고, 학생사회 내부에서 정치적 담론생산, 정치적 행위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많다,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대를 쉽게 말해 탈정치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지평에서의 삶은 더 이상 학생들의 보편적 삶의 형식이 되지 못합니다. 정치적 지평에서의 행위로부터 자신 존재의 증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유의미하게 드물어졌어요. 정치적 지평에서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정도 또한 다분히 감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 겨레반 학생회장 하고 있어요, 저, 사회대 학생회장 하고있어요라는 소개의 말에 대한 반응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대단하고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 군요'라는 대답이 떠오르십니까, 혹은 '아, 고생하고 계시는 군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 떠오르십니까. 이를테면 학생 대표자 자리는 기피의 대상이자 연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학생 대표자로서의 경험은 유의미한 스펙도 되지 않고, 하물며 자아실현의 계기가 되어주는 일도 드물어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탈정치의 기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7,80년대와 비교했을 때, 제거해야 할 명백한 악(독재정권)이 소멸했다는 분석을 내놓는 경우도 있겠고, 더 이상 취업걱정 없는 '엘리트'가 아니게 된, 다분히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스펙경쟁에 치여 살 수밖에 없는 대학생의 현실을 지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탈정치의 현상은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사회학자들은 삶의 구조적 파편화와 사회의 복잡성 증가라는 테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대사회의 인간은 전통사회의 인간과 달리 다분히 파편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규모 공동체에 속하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풀어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 복잡다기한 문제적 상황을 맞닥뜨리며, 매번 다른 맥락의 사회적 체계에 속하며 상이한 '가면(인격)'을 쓰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법, 교육, 학문, 예술, 매체, 의료...등등 복잡다기한 기능체계에서의 삶과 사랑·우정 등 사적 친밀관계까지. 우리가 '정치'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기란 그 자체로 다른 영역에서의 삶을 다분히 포기한다는 심대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의 복잡성 테제는 인식론에 관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 사회가 너무나도 복잡해진 세상에서 사

회를 완벽하게 조망하는 것,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대 담론·규범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이에요. 살짝 돌려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들, 의제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 자체로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치적 행위를 수행해나가기란 너무 어려워졌다고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사회에서의 예시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예컨대 사드, 최저임금, 재벌구속...등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나름의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비판을 수행하기는 합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는 분명 가치가 있어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런 불편함을 느껴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어,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 아니야?' 탈핵? 생태주의? 물론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인가...등등. 이런 생각들을 자유주의적 유약함이라거나 고민 회피라고 비판하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또한 있다는 것을 저는 쉽사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부가 짧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맑스주의를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실천을 추구하기에는, 글쎄요. 맑스주의적 비판이 분명 매력적인 부분은 있지만, 다소간 편협해보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는 세상이 잘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걸 또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또다른 이념적, 정치철학적 대안이 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사실 아즈마가 <일반의지2.0>에서 주장하듯이,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이성' '공론' '의제에 대한 토론' 등으로 표상되는 '정치'의 보편화 가능성에 매달리기보다는, 그런 '정치'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을 두되 이들의 의사결정을 사적 세계에 침잠해 있는 개개인들의 (구글,트위터에 집적되는 정보들로 파악 가능한)집합적 욕망·무의식을 다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직하는 체계, 이성을 통한 연대보다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감정을 중심으로 한 연대를 실현하는 체계, 환언해서, '동물적인 것'의 이상을 살려내는 사회상을 꿈꿔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말이 너무 어렵나요? 쉽게 말해 더 이상 정치의 소멸을 보며 모종의 연민을 느낀다거나 정치의 소생을 꿈꾼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다 받아들이고 소수의 사람들만 '정치'를 하되 이들이 대중의 집합적 욕망을 무시할 수 없게끔, 그리고 정치적 논의를 항상 공개해두어 대중들이 때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의제에 관해서는 정치인들을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학생 자치판은 이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기층 공론장이 다분히 쇠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는 뭐, 언젠가는 이런 것도 생각해봄 직한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글이 길어지고, 논의가 다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네. 우리는 정치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 하에 놓여있습니다. 구조란 인간에게 외재하며 인간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약하는 강제적인 힘을 일컬을 것이에요. 구조의 힘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제가 '구조적 제약'을 다분히 과장하면서 서술한 측면도 또 없지는 않지 않겠어요. 결국 이 과/반 특위라는 특수기구에 모인 우리는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시도해보려는, 구조적 힘에 쉽사리 굴복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겠어요.
결국 학생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학생조직의 친목공동체, 생활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착실히 살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소멸하는 시대에 학생들의 정치참여, 정치적 관심만을 요구하는 것은 다분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종의 '전위'의 입장에 있는 학생회는 정치적인 것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정치적 비판을 수행하고 의제를 생산하되, 다만 과/반이라는, 단대라는, 학생사회라는 공동체에 결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유의미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치'를 통해 달성된다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이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해도 꽤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학생자치판의 공동체에 그렇게 집단적 유대감을 느낄 정도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 여기 참여 안 할거야?'하는 전체주의적인, 억압적인 공동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느낌을 주는 공동체적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반 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음, 제 빈곤한 상상력은...

일치단결반

★과반특위 1차 과제★

일치반
Made by Myung
(토욜 자정까지)
-보고서 작성 : 반 운영방식, 사업,학회 및 소모임 현황, 문제의식(+칭찬)에 대하여

1. 반운영방식

일치반의 경우 반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1학년 뻔대 2명, 2학년 뻔대 2명, 그리고 각 학회의 학회장과 집행부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기중에는 2주의 한 번 정도로 정례 회의가 열리구요, 시간은 원칙적으로 정해놓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중간 기말 혹은 연휴) 일정을 그때 그때 조정하여 최대한 많은 운영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현재로서는 16학번과 17학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 반의 경우 집행부가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고통스러운 형편입니다. 도합 28명 정도거든요... 그리하여 저희 반은 이들을 부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여기에 쓰기는 조금 부끄러운데,,, 회계와 학생회비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반방 청소, 미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부, 참,불 조사, 설문 조사,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학회와 소모임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이들에게 지원할 금액을 산정하는 감사원, 학생회장과 집행부장을 도와주는 비서실(이전 행사 피드백, 행사 대리 참여 등등), 일치반 행사를 기획하는 문화체육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우~ 각 부의 장은 16학번 학생들이 맡구요, 17학번 학생들은 일반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행부원들이 많다보니 운영도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봄 학기에는 진행한 행사들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시흥캠퍼스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을 다루고, 이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는 두 번의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0404 총회 전에 이루어진 첫 번째 집담회에는 약 4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주셨는데 5월 초순에는 십수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봄 날씨가 좋을 때는 금요일날 경영대 잔치에서 피자와 막걸리를 먹는 경잔 대잔치를 개최하여 16,17 학생들이 참여해주셨구요.

이번 5월 연휴에는 반방에 이쁜 페인트도 칠하고, 오래간만에 가구를 재배치하여 인테리어도 바꾸어 보았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낡은 가구들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과 기말고사 간식사업은 늘 그랬듯이 피자와 치킨을 시키고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때에는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20만원 가까이 지출하였네요.

기타 학생회 사업으로는 학회와 소모임에게 지원금을 배분하여, 최대한 많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일치반에서 처음으로 마니또를 해보았네요.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라서 다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대부분 페이스북 페이지로 00또 이런거만 만들었음), 해야할 미션도 너무 많아서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치우들끼리 더 친해지길 바랐던 사업의 목적은 일부분 달성한 것 같아 기쁩니다.

다만, 시험기간, 과제기간에는 확실히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메리트들이 있는 행사를 개최해도, 치우들이 오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 학회 및 소모임

일치반에는 3개의 학회가 있습니다. 역사 학회 지평, 철학 학회 도모지, 사회경제 학회 STPe가 그들입니

다. 학기 초에 중점적으로 학회 활동이 집중되어 있으며, 각 학회 별 점모, 술모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중간고사 즈음까지 점모를 제외하면 그다지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학회 세미나는 권장사항으로는 1학기 2회이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회가 합의하여 세미나 집중 주간을 2주간 설정하고, 그 때 한 학회 당 1개의 주제를 발제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3학회 모두 '세미나' 운영보다는 발대엠티, 계절별 Touring Seminar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부 특성은,,, 사실 요즘에는 3학회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그냥 뭔가 지평은 학구적이고, 도모지는 술을 좋아하고, 에팊은 카리스마(?)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다 비슷비슷해졌네요.

소모임의 경우 저번 연도에 있었던 제도를 이번에 보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처럼 소모임이 하나의 동아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 하구요, 학기별로 관심 분야가 맞는 사람끼리, 혹은 친한 사람끼리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소모임의 경우, 영화를 보러가는 모임, 보드게임하는 모임, 만나서 독서 세미나 하는 모임(갓 17), 음악회를 보러 다니는 모임 등등을 들 수 있어요. 전체 지원금은 20-30만원정도 입니다. 이거 쓰다가 생각난건데 조만간 만나서 지원금 어떻게 분배할 지 회의해야겠네요.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소모임을 하나의 동아리처럼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저희 반의 경우 경험이 없다는 문제점과 아울러, 아무도 그 동아리를 열심히 이끌어나가지 않으려 한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겹쳐서 운영상의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 문제의식 및 칭찬

일단 저희 일치반의 경우 반 운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반 학생회가 주도하는 사업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나와 주시는 편이고요. 다만 과제 시즌, 기말고사 시즌에 진행하는 행사는 참석률이 저조한데, 이건 비단 오늘내일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치반 반 차원에서의 행사 참여, 학생회 내에 참여도, 정치적 효능감의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0404총회 이후, 학생회에 대한 전반적 불신, 실망감이 팽배해있다는 것은 확실히 아픈 손가락이네요. 심지어 현재 본부 점거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우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전체 학생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정도입니다. 그 어떤 사업 혹은 투쟁도 학생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와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패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반 과반 특위 위원들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침반

Ⅰ. 반 운영방식

기본적으로 반의 운영위원회이자 의결기구인 반운영위원회와, 학생회장-집행부장을 중심으로 한 외교/나침반 집행부라는 두 기구가 반을 운영해 나간다.

○ 반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의장을 하고 1,2학년 학번대표(여남 각 1인), 4개 학회의 학회장(여남 각1인), 그리고 총무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회장은 반운영위원회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사회대 학생회 운영위원회 경과를 보고하며 집행부 사업을 보고하고 필요할 시 의결을 요청한다. 연대 요청이나 공동사업 요청 등 외래 안건을 다루는 경우도 있다. 기존 반운영위원회 구성원과 관련하여 1,2학년 학번대표만을 그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고학번 회원들의 과/반 운영 참여를 제한하게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적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과/반 운영의 주체가 1,2학년이며 3,4학년 학번대표를 반운영위원회 성원으로 인정할 시 유고 상태인 경우가 많고(교환, 군입대 등) 반운영위원회 성사가 어려워진다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 집행부 운영 및 사업

집행부는 반의 대부분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나침반 집행부는 자치팀/사회팀/생활팀 3팀제로 운영되며, 각 팀에 팀장이 있다. 학기 중에는 격주로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며, 필요할 때마다 팀별 회의를 운영했다.

1학기에 진행한 주요 사업을 월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3월	**① 너의 대학은(자치팀)** - 새내기 대상 교양/토론 프로그램 - 대학의 학생회/시흥캠퍼스 투쟁/박근혜 퇴진 투쟁 **②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책모임(사회팀)** **③ 이등병의 편지(생활팀)** - 군입대 학우들에게 롤링페이퍼를 쓰는 사업 **④ 개강총회(자치팀), 개강파티(생활팀)** - 예산안 및 사업계획 준비 **⑤ 3.11 학생폭행 관련 대학당국 규탄 입장서 작성**
4월	**① 세월호를 기억하는 나침반 학생들의 모임TF** - 반방 전시 사업, 교양(한길반과 공동 진행), 세월호 3주기 집회 참여 **② 생활도서관(생활팀)** - 반방에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전공/교양 도서 및 사회과학 도서 비치/대여 **③ 4.4 총회 사전 토론 및 총회 참가 독려(자치팀)** - 4.4 총회 안건 중 시흥캠퍼스 문제와 관련된 사전토론 진행, 참여 독려 - 학생총회에 연인원 60명 정도 참여(!) **④ 중간고사 간식사업(생활팀)** **⑤ 학생총의 실현을 위한 천막농성 및 동조단식 참여** **⑥ 대선사업: 청년학생이 바라본 대선(사회팀)** - 주어진 후보가 아니라, 청년학생의 요구안이 먼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청년학생이 살아가는 오늘날 '헬조선'의 현실을 주제별로 돌아보고 청년들의 요구

	안을 정리함. **⑦ 제127주년 노동절 전야 4.30 청년학생투쟁문화제 참여**
5월	**① 대선사업: “나는 19대 대선에 ooo을 바란다”(사회팀)** - 대선시기, 각자가 원하는 요구안을 외치는 인증샷 이벤트 진행 **② 나침반 장터 진행** **③ 광주 민중항쟁 37주년 맞이 광주순례** - 광주 시내 및 구 전남도청, 전남대, 망월동 묘역 등 순례 진행 후 교양토론 **④ 5.1 서울대인 총궐기 참여 독려(자치팀)** - 4.4 학생총회의 총의 실현을 위해 총궐기 참여 독려 **⑤ <서울대의 봄을 향한 발걸음> 카드뉴스 제작(자치팀)** - 5.1 총궐기 이후 본부 재점거를 한 이유, 대학당국 측의 여론 호도 및 폭행 은폐에 관한 비판을 담은 카드뉴스 제작 **⑥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제소에 대한 반운영위원회 평가서 발표** - 한 학우가 반운영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반운영위원회 차원의 평가서와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후속 대책 발표
6월	**① 기말고사 간식사업(생활팀)** **② 종강파티(생활팀)**

많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부 인원이 꽤나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 외교/나침반 집행부원은 37명이다. 그러나 학기 초에 많은 새내기들이 집행부에 지원한 이후, 동아리나 학업 일정이 바빠지며 활동에 결합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사실상 전체/팀별 회의에 참여하고 사업 집행에 함께하는 인원은 15명 정도로 축소되어있다고 봐야 한다. 학기 초 많은 인원이 집행부에 지원한 이후, 이들 각자에게 어떤 역할을 줄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새맞이 과정에서부터 과/반 집행부와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홍보한 것이 집행부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많은 학우들에게 집행부 참여를 고민하게 만든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팀제로 운영함으로써 팀장단이라는 과/반 운영의 핵심 주체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스스로 역할을 만들고 찾을 수 있게 한 것도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생회의 존재감과 필요성, 효능감도 어느 정도 복원해냈다는 자기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어느 과/반이나 겪는 문제겠지만 많은 사업들에 참여하는 학우들의 인적 구성이 제한적이라는 점, 몇 명의 핵심 주체들에게 역량 소모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면서 사업 운영을 하게 된다는 점 등이 여전히 마음에 걸린다.

II. 반 내 소모임 운영방식

외교/나침반 내의 소모임(이하 학회)들은 의무학회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새내기 새로배움터 이후 2월 중 새내기 맞이 행사에서 반 내에서 운영되는 학회를 소개하고, 3월 중 ‘학회돌이’라는 행사에서 새내기들이 학회의 프로그램, 세미나, 뒤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회돌이 이후 새내기들에게 지원하고픈 학회를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학회장끼리 각 학회의 구성 인원수가 비슷하게끔 조정을 거친다. 학회 구성원이 확정된 이후에는 각 학회는 개성적이고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편이나, 대부분 ‘신입생학교’, ‘TS(Touring Seminar)’ 등의 활동은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외교/나침반 내의 학회는 총 4개로, ‘공공’, ‘둥지’, ‘처락’, ‘통’이 있다. 공공 학회는 문학, 둥지는 문화/예술, 처락은 사회 토론, 통은 학술을 주 테마로 세미나, 활동을 진행한다고 소개되나, 주로 학회장 또는 학회 구성원의 개인적 성격이 주로 영향을 끼치는 편이다.

III. 과/반 운영 상의 고민점

○ 학회 운영 관련 고민점

앞서 소개한 나침반의 학회 운영 체계에서 야기되는 고민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의무학회제라는 특성상 모든 반 구성원이 학회를 결정해야하지만, 학회 결정시기가 새내기들이 서로를 파악하기 어렵고 반 내 문화 혹은 분위기를 완전히 학습하지 못한 3월의 이른 시기라는 점이다. 학회를 옮기는 것이 완전히 경직된 시스템은 아니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학회를 이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른 결정 시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충분히 고민 후에 학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기 초에 친해진 선배 혹은 동기 등이 학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잦다. 후자는 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유로운 학회 이동이 어려운 분위기로 인해 학회와 맞지 않는 개인의 학회 활동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학회의 분위기와 활동 등이 개인의 스타일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학회의 기조와 스타일이 일관적으로 유지되기보단 학회장 등 구성원의 성격에 의존해 프로그램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며, 학회의 테두리만 남아 친목모임 정도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학회장은 나침반 내 의결기구인 반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반 내 자치에 대한 기층학우의 의견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점이다. 반운영위원회에서 대표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학회 단위에서 학생자치의 의제들에 관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 학회 단위 각자가 그러한 자치 공동체로서 기능해야 하지만, 현재 학회의 기능이 이와 매우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 새내기 맞이(새맞이) 행사 관련 고민점

나침반 내 새맞이 행사의 가장 큰 고민점은 새맞이 행사가 그 본질에서 자주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새맞이 행사는 본래 새내기들이 나침반, 더 나아가 사회대의 구성원으로 적응을 돕는 사회화 과정으로, 기존에 구축된 반과 사회대의 분위기와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행사이다. 그러나 오히려 부수적인 요소인 정든내기들의 모임의 장, 노는 행사라는 부분이 강조되는 주객전도가 일어나 반의 자치, 정치 등의 문제보다 유희적인 문화 위주로 새내기들의 사회화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서도 놀이, 술자리 등에서 주도적인 개인 위주로 새내기들의 반 분위기 파악이 진행되어 정치적 성향, 자치적 문제에 대한 반 문화는 전달되기 어렵다.

또 다른 고민점은 새맞이단과 집행부/반운위의 이원화로 인한 소통의 문제이다. 새맞이단은 나침반의 학생회 산하에 있는 기구임에도 반의 의결 기구, 집행 기구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새맞이단은 2학년 위주로 구성되며, 새짱 등 회의를 주도하는 층 위주로 새맞이단의 의견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새맞이단의 의견은 사회대 차원의 회의에서 나침반의 의견이 된다는 점에서 새맞이단 의견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새맞이단 이외에는 새맞이 행사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고학번, 비(非)새맞이단 반 구성원과 소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표성 문제는 더욱 강화된다.

참고자료3. 과/반 특위 2차 업무

[순서 : 불꽃반/비반/시반/악반/한길반/알반/꼼반/나침반/한음반/일치단결반/겨레반]

불꽃반

1. 반으로 나뉜지 오래되지않아 과거의 기록이 없다 반보다 학회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고, 반학생회의 역할은 반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얼마간 거의 없었을 것임 - 학회 01학번 선배의 말에서 추정됨 2. 2014년도부터 싸이월드에서 네이버 카페로 이전하면서 2000년대 이후 기록이 없음 과거 불꽃반 싸이월드 주소는 없는 페이지로 나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음. 싸이월드에서 옮겨 온 것은 기출/필기 뿐임

비반

*학생회 역사

<95년도>-15대 경제학과 학생회
 찾아 볼 수 있었던 가장 오래된 기록.

95년도 국제경제학과와 경제학과 통합 = 국제경제학과 > 경제학부 C반으로 계승
A,B 반 집행부 분리운영 논의

당시 각 반별 학회

A반 프롬, 공, 민풍, 글삶
B반 이스크라 세민 한별 철사 연
C반 타박글 경사연 정경 세경 길 한마당 동물원

<~07년도 이전>
학생회 조직이 총회, 집행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로 구성 되었음
확대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학번대표, 각 집행부장 및 집행부원 그리고 학회대표로 구성

<07년도>
학생회칙 개정 : 확대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학생회장 학번대표 각 집행부장 및 집행부원으로 규정 (학회대표 삭제)

<10년도>
집행위원회 폐지됨
운영위원회 기능 세분화(13년 기록으로 볼 때, 기획자치팀, 학술언론팀, 문화생활팀으로 나뉘어 졌을 것이라 추정됨)
학생회장 선서 추가
회계 추가
학생대표 연석회의 생김-학생회장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를 승계하는 기구

<16년도>
9월 개정. 현재 자치현황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음.

*학회별 역사

한별 : 93년도 - 05년도 추정
세민 : (역사-세계 민중사 연구회) 87년도 - 07
철사 : 99 이전 - 05년 이후
이스크라 : 93 이전 - 03이후
파란 : 96년으로 추정 - 현재
단 : 04년 이전으로 추정-현재

숨 : 08 (추정) - 현재
연 : 추정불가. 현재는 없음

각 학회의 창설년도는 학회별 맑글터(막글터) 및 학생회칙, 총회 자료집, 새맞이 자료집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것.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각각의 학회의 구체적인 특성은 알 수 없으나, 모든 학회가 T.S.를 갔던 것으로 추정됨. 현재 세미나를 진행하지 않는 파란, 단 또한 2010년대 초반까지는 세미나를 했던 것으로 보임. 또한 파란 같은 경우는 90년대 말 학회지인 '스머프'를 창간하기도 함.

*새맞이 역사

프락치 : 07년 새맞이-새내기들의 상처와 동기에서 선후배관계로 전환될 때의 혼선 등을 근거로 폐지.
08~10년 새맞이-프락치x
09년 새맞이에 다시 등장.

08년도 새맞이에 새내기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새맞이가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음.

08년도에 새맞이에서 선후배간의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었고 13년도까지 이어져 왔으나 그 강도가 매우 약해져 자유를 인정하나 주의하자라는 정도로만 남아 있었음. 현재는 그러한 조항 없음.
프로메테우스 : (정치경제학 학회) 91년도 - 99(추정)

시반

- C반 학생자치의 개괄 (학생회장 진지홍)

경제 C반은 1995년 국제경제학과와 경제학과가 통합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일부 선배들의 기록에 따르면, 경제 C반은 국제학과를 계승하면서 탄생한 반이라고 한다.

초기의 경제반들은 자치와 친목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과대학과 경제학과 시절부터 있던 여러 학회들이 자치나 친목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학회들은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현재도 A반이나 B반의 경우 이를 계승한 학회들이 남아 있다. 시반의 경우 1993년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한 '길'이라는 학회가 2000년대까지 남아 있다가 해소되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은 학회에서 과/반으로 경제학부 학생들의 주 공동체가 넘어오는 과도기적 시기로 볼 수 있다.

2000년대의 경제 C반은 친목의 기능은 담당하였지만, 자치나 학생사회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였다. 이는 경제 C반이 2013년까지 학생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3년 전까지는 학생회가 없이, 학번대표와 새짱 등이 MT 등의 반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학생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대 차원의 자치에는 참가가 제한되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의 단운위 결과지들을 살펴보면 시반 단운위원의 자리는 모두 궐위로 표시되거나, 종종 임시 대표자가 파견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물론 이때도 시반 학우들의 학생사회 참여는 있었지만, 이는 개인이 사회대 학생회 집행부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식으로만 이루어졌지, 경제 C반 차원의 학생사회 참여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다. 즉, C반 학우들의 학생사회 참여는 상위 단위의 참가로만 제한되어 있었고 C반 자체는 기층으로서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 한 것이다. 반운영위원회, 집행부회의 등도 물론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친목 기능은 학번대표 등을 중심으로 매우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MT와 각종 모임 등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학번별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했다. 한편 2011년에는 'SNU, College of Social Science Econ C'라는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이 만들어졌다. 현재 이 그룹에는 442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시반의 공식적인 공지매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한적이지만, 이 그룹을 통해 과거의 시반 구성원들과 현재의 시반 구성원들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위에서 제시된 자치부재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학생회를 출범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공청회 등을 거쳐 선거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선거를 실시하여 시반 최초의 학생회장이 탄생했다. 이 시반 초대 학생회는 학회 등을 설치하여 반의 친목을 제고하려 노력했다. 이에 따라 학회들이 탄생했으나, 이때 탄생한 학회들은 1년을 유지되지 못하고 사실상 해소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학생회는 학생회칙이 없었다. 학생회장의 입대 등으로 인해 이 학생회는 곧 붕괴하게 되고, 시반은 또 다시 학생회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2014년에 또 다시 학생회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여동준 학우가 학생회장이 당선되었고, 이 학생회는 현재 시반 학생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업적을 남겼다. 학생회칙이 제정되었으며, 경제 C반의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2015년에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각종 소모임 등을 만들었다. 현재 새맞이의 큰 축을 담당하는 '시끌시끌'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시반의 자치와 정치적 기능은 이 학생회를 통해 크게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학생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목 기능은 과거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16년에는 16학번대표 등을 중심으로 학회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반의 친목과 단합력 제고를 위함이었다.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투표, 총조사 등을 거쳐 3개의 학회가 탄생하였다. 또한 경제학부와 함께 ABC반의 많은 학우들이 참가하는 체육대회가 시작되기도 했다.

C반 차원의 공식적인 학생자치의 역사는 굉장히 짧은 편이다. 그 동안 많은 도전에 직면했으며, 현재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C반 학우들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현재 '사랑과 꿈이 넘치는'이라는 슬로건은 과거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꿈이 넘치는'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재의 슬로건으로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위의 내용은 사회대 학생회 자료(단운위 등), 시반 선배들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것이다. 경제 C반에 대한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는 반 차원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고 학생회가 출범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아 많은 자료가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홈커밍데이 행사가 2015년 열리기도 했으나, 2016년 역할 분담의 문제로 무산되었다. 올해의 경우 논의 중에 있다.
아래서는 자료분석을 통해 파악한 2010년대 시반 학생자치 내용이다.

- 2010년 이후 C반의 학생자치 (대표파견위원 김민성)

	오티/새터	총엠	뻔엠	일홉/장터	통학인의 밤	여행(반이나 학번 차원)	여모/여앰남모/남엠	나들이
2010	1	1	3	1	1	0	0	
2011	1	1	2	2	1	1	1	
2012	1	1	3	2	1	1	1	
2013	1	2	3	2	1	0	1	
2014	1	1	3	2	1	1	0	1번 이상
2015	1	1	3	2	0	0	0	2
2016	1	2	2	1	0	0	0	1
2017(현재)	1	1	1	1	0	0	0	0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시된 값들은 자료를 통해 계산한 최솟값)

2016년 이전 학회 현황
(1) 그림자(2013년 폐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 집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억눌린 생각들에 대해 주목하고 고민 불평등에 가려진 사회를 그려보고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 편견과 차별, 소외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2) 길(학회 -> 2012년 소모임화 -> 2013년 폐지)
과거에 여러 학회가 존재했지만, 08학번부터 유일하게 남게 된 학회이다. 원래는 철학 학회로 활동을 했지만, 나중에는 문화 소모임으로 변화를 추구.

(3) 씨앗(학회 -> 동아리화 -> 2016년 사실상 해소)
2009년 3월에 설립. 매주 정기 모임을 가짐.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기독교 인인 시반너들이 많이 들어갔지

만,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에게 열려 있었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감. 학번도 무관하게.
2012년까지는 학회 -> 2013 동아리로 전환(?)
※2013년 6월 17일 C반 집행부 학기 마무리 회의 결과집에서 발췌
C네마 : 영화를 모두 함께 관람한 후 비평도 해보고 영상도 찍는 학회, '회'에 가까움
역C: 한달에 한번 세미나, 한번에 한번 답사 가는 식으로 '학'과 '회'를 모두 추구 하려고 함, 방학때 역사기행, 세미나 엠티, 학회 고유행사
(그러나 이 두 학회가 이름 만 있었지 망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학회들은 모두 해소되었다.

2016년 2학기에 시원, 단올, 우아 학회가 출범하였고, 현재까지 남아있다.
학회를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최근을 들어봐도 작년 2학기 때에 시반 학회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지만 다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 것 같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원, 단올, 우아 이 세 학회의 경우 각 학회의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학회 내의 구성원들과 시반 집행부의 역량이 동원이 되어야 이전 사례들처럼 무너지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반의 학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 기능이 주가 되어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3년에 집행부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두 학회도 그렇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 학회도 그렇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의 기능이 강조 되어 야지 학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예전에 있었던 길, 그림자, 씨앗 등의 학회들이 학회의 기능을 점차 잃고 소모임화, 동아리화가 되면서 사라졌다. 친목과 놂을 위한 학회가 아닌, 어느 정도 '학'을 추구하는 운영이 되어 야지 학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시반에서는 주로 스터디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전 새터 자료집 중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친해진다고 말했고, 실제로 2017년 올해의 경우에도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경우가 많다. 스터디라는 방식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친목이 도모되는 것이다. 경제학과의 특성상 수업 중에서 스터디를 요구하는 수업들이 많이 있다. (ex.경제원론, 경제수학 등)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 구성원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학우들이 스터디를 중심으로 그룹화 되어서 반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제학과의 특성이 더욱 더 커진 과/반의 규모에 더해져서 과반 자치의 활성하고 방해하고 있는 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학생회는 2014년에 여동준 학우를 학생회장으로 하면서 출범. 학생회 회칙과 새터 자료집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원칙은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실제로 운영이 되는 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차후에 과거 집행부 회의록이 구해지면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예전에 통학인의 밤이라고 하는 통학생들과 비기숙사인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 같은 게 있다. 기숙사 인들은 같은 공동 생활 공간을 쓰기 때문에 모이기도 싶고 해서 친목을 다지기 쉽지만, 통학을 하거나 자취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친목 도모가 어려운 데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모임 같다. 이들은 같이 학교를 갈 때에 택시를 잡기도 하고, 같이 나들이를 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물론 학기 초에 활성화가 주로 되고 후반에 갈수록 이야기가 줄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고, 필자 자신도 새터 자료 집을 통해 처음 접한 사실이다.
*시반이 반 단위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학우들끼리 그룹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그룹에 까지 못한 학우들은 소외되며, 과/반 전체가 모이게 추진을 하려 해도 이 그룹화 때문에 잘 안되는 것 같다.

위에서 통계 낸 표를 보면,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크게 과반의 자치가 활성화 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뻔엠이나 나들이와 같은 굵직굵직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행사들이 줄었다. 이것이 시대상 변화에 따른 개인들의 파편화 때문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미숙에 따라 생긴 결과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확실이 이전에

비해서 과/반 친구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줄고 있다. 그러므로 과/반 집행부에서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뻔대들도 이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뻔대의 영역에 학생회가 관여하는게 적절한 지 모르겠지만 뻔대의 역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학번간의 친목을 도모해야지 그 학번이 망하면 새터하고 하면 다음 학번까지 전달되는 것 같음...

악반

*새내기 자료집, 네이버 카페 악반 커뮤니티 참고,

1.2000년대

1)전체사업

-개강 및 종강 파티, 악반 총회, 학회 세미나, 학번 엠티. 총엠티, 학회 공청회(현재의 학회소개제), 학회 발대식, 장터, 과반밤, 악반 운동회, 농활 등으로 현재와 매우 유사.

2)운영방식

-학생회장, 학번 대표, 학회 대표끼리 매주 악반 운영위원회를 개회.

-집행부는 정치사회부(학교 안팎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고민하는 부서), 학술부(공개 세미나에서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발전시키는 부서), 자치문화부(악반 자치활동을 위한 제반조건 형성 및 실제 자치활동에 관련된 모든 일과 행사를 맡는 부서)로 나뉨.

3)새맞이 및 학회에 담긴 인권담론 및 정치적 문제의식

-여성주의 ; 성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언급하며 여성주의 소개. 과방 내 생리대 비치함/ 사회대 신양의 여학우 휴게실을 통한 여성주의 실천. 반성폭력에 대해 고민.

-장애인권 :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 대해 지적.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시위.

-교육문제 : 서울대의 광역화 시행, 등록금 인상, 법인화, 제2전공 의무화에 대한 고민.

-다문화사회 : 인권 문제의 하나로 언급하며 코시안 문제를 지적.

-광우병 촛불시위.

4)친목도모방법 (*현재는 없는 악반 행사를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과반밤 : 보통 5월에 시행하는 행사. 악우들이 모여 게임을 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밤을 보내는 행사.

-헌내기 다시 배움터(헌터) : 새내기 새로배움터와 비슷하지만 사회대 단위가 아닌 악반 단위로 진행되는 행사. 주로 1학기가 끝난 8월에 진행되며, 악우들이 모여 한 학기동안의 평가 회의를 하고 함께 물놀이를 함.

-총엠티 :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행사이지만 2000년대부터 총엠티를 시작하면서 학번간의 친목도모가 가능해졌다고 볼수 있음.

-학회 내의 소모임.

cf) 참고한 2007년, 2009년 새맞이 자료집에서 공통적으로 학생회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단과대 선거의 투표율이 매우 낮고, 총학생회의 선거 역시 무산되었던 경험에서 학생회의 위기가 드러난다고 언급했다. 그 원인을 파편화된 개인들, 개인주의, 학생자치에 대한 무관심, 학생회에 대한 권리 행사의 무관심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학생회의 위기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라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기도 하다.

2.2010년대

1)전체 사업 및 운영방식

- 반 운영 방식

: 반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반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고, 집행부가 집행을 하는 것은 2010년대와 지금이 크게 다를 것이 없었음. 다만 집행부의 형태와 방식은 계속 바뀌어왔던 것 같음.

-집행부

: 2003년(제21대)~2011년(제29대)까지 악반 집행부는 정치사회부, 자치문화부, 성정치부, 학술부 등으로 부서를 나누어 악반의 일을 집행해 옴. 집행부의 중심이 복지 및 친목 사업보다는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

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임.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정치, 사회, 문화적인 이슈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자료집 등을 만들었던 것 같음.
이러한 기조는 2012년 이후로 약해져서, 제30대 학생회에서는 기획부, 총무 경리부, 편집부 세 부서로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2013년 제31대 학생회에서도 총무부, 편집부, 온라인부 등이 집행부의 소부서였음. 정치, 사회적인 문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부서가 약해졌던 것 같음.

-지금과 다른 점.
1> 집행부의 인원이 현재보다 적었음. 제30대 학생회 집행부는 기획부 4명, 총무경리부 3명, 편집부 6명을 모집하였고, 제31대 학생회 집행부는 새내기를 모집하기 전 6명 정도로 구성되었었음.
2> 제30대 편집부에서 '惡聲CODE' 라는 이름의 악반 신문을 만들었고, 제31대 편집부에서는 사진첩, 악반 달력, 교지 등을 만들었었음. 지금보다 추억이나 사진 등을 모으고 이를 신문 등의 자료로 만드는 일이 활발했던 것 같음.

2) 새맞이, 학회에 담긴 정치적 문제의식 및 인권 담론.
-2011년 새맞이에서는 1차 오티의 교양 시간에 꽁트를 넣기로 했는데, 장애인권/다른 문화권과 같은 문제의 경우 과장된 꽁트로 씬을 엮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됨. 당사자는 자신의 문제가 희화화된다고 느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그러한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꽁트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에 관해서는 꽁트를 하지 않기로 의결. 새내기, 정든내기, 고학번 등 내규 숙지 필요. 전제 커뮤니티에 올리고, 프린트해서 나누어주고, 오티 전에 한 번 더 말하는 등의 노력. 민중 의례 소개에 관한 논의. 다양한 자세 보여주어 새내기들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보여줌.(앉아있기, 서있기, 서서 노래 부르기, 노래하면서 팔뚝질 하기). 으뜸마임. 몸을 움직이기 싫은 새내기에게 마임을 추라고 하는 것과 마임을 모를 경우 새터에서 마음 추는 시간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에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마임을 추는 것으로 하고 새터에서 마임이 기억나지 않으면 박수를 치거나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알림. 마임을 더 배우고 싶은 새내기들은 새터 출발 전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아고라 등지에서 배울수 있도록 하기로 논의. 새터에서 술게임을 싫어하는 새내기들을 위한 대안 논의. 첫째 날 밤 짐방을 수다방으로 사용.
-2012-2013년에는 인권 및 정치 이슈에 대한 글이 새내기 자료집에 실려 있음. 인권에 대한 논의는 크게 여성주의, 장애 인권, 성소수자 인권, 바람직한 술자리 문화 등으로 나누어 글로 적혀 있음.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법인화, 부적절한 교수임용 등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글도 실려 있음.
-2014년 자료집에서는 인권 담론에 대한 글이 빠져있었고, 바람직한 술자리 문화에 대한 내용만 남았으며, 시흥캠,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등 정치적 이슈에 관한 글은 꾸준히 지면을 차지했음.
-현재 2017년 새맞이를 기억해보면, 인권 담론에 대한 세미나는 이루어졌지만, 따로 자료집에 글이 실리진 않았음.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를 담은 글도 역시 실리지 않았음. 새맞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신환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가 다소 지루하다는 평이 있어 축소하기를 원한다는 논의도 진행되었었음.
-학회에서 인권 담론 및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했던 것으로 보임. 지금은 학(學)을 중시하는 학회가 1개밖에 없는데, 과방 책장에 있는 과거 학회들의 자료집들을 보면, 많은 학회에서 신자유주의, 노동문제, 여성주의, 현대사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임. 얼마나 활발하고 내실있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자료집을 꾸준히 만들고 진행해왔다는 자체가 학회를 통한 정치적, 사회적 논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3) 친목 도모 방법
: 새맞이 자료집 등을 통해 크게 알 수는 없었음. 그러나 집행부가 진행하는 주요 사업들을 보면 지금보다 친목을 다지는 행사는 적었던 것 같음. 야유회, 교복 데이, 야식 사업 등의 행사는 비교적 최근에 생겼던 것으로 보임.

한길반

우선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과 학생회가 반 학생회로 변화하면서 쟈료들이 많이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대학과 사회복지학과에서 출간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0년사 1959~2009〉에 80~90년대 학생회에 대한 약간의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싸이월드 컴티 및 네이버 클라우드 자료로 내려오고 있기에 자료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학생회가 힘들었던 시기인지라 권위였던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2010년은 동우형이 있던 2011~2012년, 그리고 작년과 올해를 제외하고는 학생회 자체가 없거나 정치적인 활동에 소극적이었으며, 간식사업, 총엠 등만 진행하는 형식적인 활동만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인권의식 등이 부족했던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네요.

80년대

80년대 초반부터 학생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서울대학교에 지하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83년 전두환 정부의 '학원자율화 조치'로 서울대 학생회가 재건되고, 그 당시 사회복지학과 학생회는 84년도에 생겨났다. 이후 적극적인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고 우정원 동문 등 열사님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많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

85학번 학생회는 반전평화를 주장하며, 학생회 차원에서 훈련소 입대를 거부하고, 다 함께 시위를 했었다고 한다. 캠퍼스 도서관에서 농성을 할 계획이었으나, 사전에 경찰에 계획이 발각되면서 최전방으로 끌려갔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민주화, 반전, 통일, 북한 등의 정치적 의제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며, 가장 적극적으로 학생회가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농성, 가두투쟁, 수업 거부 등의 실천적 활동 및 비판 철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학회 활동을 통한 이념적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병행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90년대 학생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학과 자체의 탈 정치화도 다른 과와 다르게 늦게 발생했다고 한다. 당시 한길반은 NL계열과 PD계열이 반반 정도 섞여있었으며, 학생회장 선거도 99년도 까지 경선이 발생하는 듯 정치적으로 치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학생회는 학과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 활동의 중심이었다. '켈린더 활동'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학생회 일정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면서 학생회는 생활공간, 그리고 정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2월 새내기 새로 배움터, 3월 신입생 환영회 및 학과 MT, 3월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출범식, 4월 학회 활동(대학과 사회에 대한 고민. 민중과 함께하는 대학인의 삶을 공부) 본격 시작, 5월 대동제, 10월 축제, 11월에는 차기 학생회장 선거 등의 일정을 월별로 진행해왔다.

90년대 학생회 집행부는 사회부, 생활 문화부, 편집부, 학술부의 4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추측컨대 사회부는 학생회의 정치 참여를, 생활 문화부는 반방 미화 등의 업무, 학술부는 세미나 준비 등의 일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만한 것은 편집부에서 1학기에 1회 〈함성〉이라는 학과 문집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97년 공장에서 노동 경험을 하는 일을 했었고 이후 서의노(서울의류업노동조합)와 연대활동을 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복지학과의 선배 열사인 우종원 열사 추모 사업을 진행했다. 대동제 당시 농활을 열어서 자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16동 뒤편에 추모비를 세웠다고 한다.

당시 학회 활동이 매우 활발했으며, 학교 공부보다 학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한다. 91년도에 맥과 열음 그리고 변혁이, 93년도에 창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2000년대

2000년대는 본격적으로 학생회의 정치성이 퇴색되던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에 비해서는 아직 과거 학생회 전통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세미나, 정치 참여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다. 다만 과반체제의 변경으로 인해서 2000년대 초반의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사회복지학과에서 '한길반'으로 변화한 것이 이 시기였는데, 2002년 학과 중심 모집에서 광역생이 생기면서 과 중심의 학생회 체제가 과/반 중심의 학생회 체제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2005년 한길반 전체 컴티가 생기면서 운영위원회 자료들이 올라오게 된다.

2005년 제23대 한길반 학생회 'A.C.E' (유병로 선배)

2005년의 23대 한길반 학생회(학생회장:유병로)의 기조는 '학생회가 정치적 입장을 미리 갖고 이것을 반에 투영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볼 때 학생회가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했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도의 3차 운영위원회 자료를 보면 한길반 학생회 출범식 때 하던 칼 마임과 민중의례에 대하여 이것이 23대 학생회의 기조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만 학생사회 전통을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회대와 함께 교육 투쟁(대영, 대국 의무 수강 거부, 제 2 전공 의무화 거부) 등에 참여하는 것을 결의하거나, 3월 8일 여성의 날, 3월 20일 반전 행사, 419, 노동절과 관련된 행사들을 꾸준히 참여, 기획한 것으로 보아서 완전한 탈정치화를 지향한 것은 아니며, 학생회의 생활 공동체의 측면을 정치공동체의 측면 보다 좀 더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과거처럼 학생회 의결 사항을 모든 대중이 지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영, 대국의 의무 수강에 반대하여 사회대 학생회가 이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지 말자는 결의를 했으나, 한길반 학생회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자는 논의를 진행했다.

2000년대 중반의 집행부는 생활 문화부, 학술 언론부, 세미나부, 성 정치부가 있었고, 하나의 부서에서 새내기의 입회식을 하는 등 위상이 있는 단체였던 것 같다. 생활 문화부는 사물함 배정, 반방 미화 등의 업무를, 학술 언론부는 학교 내부의 학업 및 독서와 관련된 사업들, 세미나부는 여성의 날, 419, 메이데이 등의 사안에 관련된 세미나를, 성정치부는 성평등 담론 및 인권 담론에 대한 활동을 하는 부서이다. 특히 성정치부가 매우 특기할만한 부서인데 여성주의 담론을 학생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한 것이 2010년대 반 여성주의적 과반 문화의 존재와 대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뒤에 설명) 또한 학생회 출범식, 대동제가 학생회의 중요한 행사로 남아있었으며 오랜 준비 기간을 통해서 진행되었었다.

2005년 당시에 학회는 맥, 열음, 창, 변혁 그리고 2000년대 초 생긴 샛길이 있었다. 세미나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계급, 박정희, 푸코의 감시와 처벌 등을 다뤘던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농구, 축구, 칼마임, 폭식, 맛집 소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이 존재했으며, 금방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는 했지만, 같은 취미를 공유한 공동체원들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모임 장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이를 통해서 과/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제24대 한길반 학생회 '놀러와' (원중희 선배)

선본의 이름은 최대한 즐겁고, 밝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만들었다고 한다. 24대 학생회는 학생회의 '정치성', '사회 연대'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학생회였다. 학생자치에 대한 열정도 매우 커서 선본 활동 당시의 정책 자료집 분량이 무려 24페이지나 된다. 이 시기 가장 시의성이 있었던 사회 연대 활동은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와 관련된 사안이었는데, 당시 한길반 학생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했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반대 등 다양한 사회 참여를 했었다.

다만 중반에 원중희 선배가 군 입대를 하시게 되었고, 연석회의의 형식으로 학생회가 진행되었으나, 몇 몇 개인의 희생으로 24대 학생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 외 사회 참여와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등의 부분은 전대 학생회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후 한길반 학생회는 몰락의

길을 걷는데...

2007년 학생회 몰락

2006년 11월 한길반 학우들이 학생회의 존재가 의미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당시의 회의 자료를 첨부하겠다.

"학생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위에 제시한 것처럼 학생회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우들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학생회라는 이름의 조직이 세워지고 일처리가 관료화될 경우에 그것이 학우들이 표출하고 싶어하는 수준의 욕망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기획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다지 행사에 대한 열망이 없는, 혹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학우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기에는 지쳐 버린)소수의 학생회 간부들에 국한되며,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은 오직 학생회와의 매개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2007년의 학생회장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으며 한길반은 학생회장 없이 반 자치를 운영하게 되었다. 임시 운영회를 열어 모든 한길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기에는 제법 운영이 잘 되었으나, 이후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과반 자치 활동도 뜸해진 것으로 보인다. 몇몇 운동권 주체들을 통해서 한미 FTA반대 등의 시위, 서명 운동 조직이 있었으며 3월 여성주의 세미나 등을 했었지만, 2006년만큼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학생회비도 거둬지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듯)

2008년 제 25대 학생회 '활주로' (문형웅 선배)

2007년의 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많아 2007년 11월 다시 한길반 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되었다. 제 25대 학생회의 제 1공약은 학생회가 정치적 기조를 가지지 않으며, 조직을 최대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치 활동보다는 반 내부의 친목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전체 학우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주의였다.

또한 문형웅 선배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학생회는 거의 활동하지 못했다. 작은 학생회를 추구했던 만큼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벌인 사업은 거의 없었으며, 개파와 종파, 사물함 배정, 엠티 등이 전부였던 것 같다. 운영위원회도 3월에 1번 밖에 하지 않으셨다.. ㅠㅜ

2010년대 초반 학생회의 부재.

2009년, 2010년, 2011년(연석회의장 존재), 2013년은 말 그대로 학생회가 없었던 시기이며, 2014년, 2015년은 학생회가 있었지만 제 25대 학생회와 같은 소극적이고 작은 학생회가 진행되던 때였다. 특히 2009, 2010, 2013년은 뻔대 위주로 개파, 엠티 등 중요 사업은 진행되었지만, 운영위원회도, 특별한 학생회 사업도 없었던 시기이다. 이후 과거의 한길반 학생사회 전통은 단절되게 된다.

2011 한길반 연석회의장 및 2012년 제 26대 학생회 나비효과 (이동우 선배)

2011년 5월 사회대 학생회장단이 과반체제를 변경하라고 학생회에 요구했고, 당시 반의 의견을 수합할 수 있는 대표자는 1학년 뻔대와 새짱이 전부였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동우형이 연석회의장이 되어 한길반을 운영하게 된다.

당시 법인화 투쟁과 관련한 비상 총회 성사 등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고, 이에 한길반 학생회는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2008년 3월 1차 운영위원회 이후 처음으로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학회와 관련된 기록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샛길은 사라지고 맥, 열음, 창, 변혁만이 남아있었다. 다만 2011년은 연석회의장이 운영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기에 약간의 한계가 있었으며 이 외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학생회 전통의 단절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12년 5월 제26대 한길반 학생회 나비효과가 당선되었다. 나비효과는 4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과/반 학생회의 재건, 그리고 학생회의 정치공동체로서의 역할 부활 등을 목표로 활동했었다. 다만 2012년 총회 무산 등으로 서울대 전체의 학생사회가 휘청거리던 시기였기에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다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 같았던 학생회 체제가 재건되었다는 점, 반에서 운영위원회가 매우 지속적으로 열렸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현재의 한길반 학생회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3년 연석회의 (학회장 및 뻔대들이 돌아가면서 연석회의장)

그러나 2013년 또 다시 한길반 학생회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다만 학회장과 뻔대 등이 돌아가면서 연석회의장을 맡았다고 들었다. 이때부터 페북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게 됨으로써 컴티에 소식이 올라오지 않게 되었다. 새맞이, 학회, 총엠, 개파 및 종파 등의 사업 이외에 별 다른 사업을 하지 않은 것 같으며, 운영위원회도 연초와 연말 2회 밖에 열리지 않았다. 또한 이 때 철학 학회 변혁이 사라지게 되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 당시 새맞이 자료집에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과 인권인식과 관련된 부분이 사라지고, 문제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는 점이다. 2012년의 서울대 법인화 투쟁과 장애 인권 담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던 2012년 자료집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또한 '어장녀' '존잘', '존예' 등의 문제적인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성정치부가 활동하던 때와 대비되는 점으로 학생회의 존재가 적어도 공동체 내의 차별 및 혐오를 없애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2014년 제 28대 학생회장 (나윤재 선배)

앞서 기술했듯 기본적인 학생회 활동만을 진행했다. 선본도 꾸리지 않았다. 운위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지만 새맞이 자료집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히 상당히 많이 나왔다.

첫장에서 '우리는 새맞이 과정 동안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억압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외모지상주의, 성별 고정관념. 소수자 차별과 같은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두위 한길 새내기 자료집에서도 둔감한 표현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차별문제에 민감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깨닫는 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옴. 아마 2013년의 자료집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로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한길반 여학우들의 외모 순위를 매겼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ㄷㄷ...

새내기 교양으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및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리버럴 페미니즘만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으며, 양성평등이라는 워딩에서 젠더퀴어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제 28대 학생회장 (김석원 선배)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반 활동은 1학년 뻔대(제 29대 학생회장 김경화 학우)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새맞이 자료집에 마찬가지로 인권 인식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이 많았다.

2010년 후반: 학생회 재건중(?)

정치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학생회를 탈피하고 어느 정도 적극적인 학생회 체제가 재건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2번의 총회, 과반체제 변화 등 굵직 굵직한 사건이 있었으며, 운영위원회, 집행부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시기이다. 물론 재건 초기 단계라 부족한 점은 많지만,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2016년 제29대 학생회장 (김경화 학우)

정치적 의제에 관해서는 대중의 의견을 듣되, 반내 복지 활성화를 통하여 과반 공동체의 생활공동체로서의

역할의 복원을 추진했다. 군인 학우를 위한 반방 우체통, 달콤창고, 크리스마스 파티 등의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했으며, 밤샘영화제, 운동회 등 기존에 뻔대들이 맡아왔던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해나갔다. 또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집행부가 꾸려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부터 새맞이 자료집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발언이 사라졌다.

2017년 제30대 학생회장 어울림 (최용혁)
~ing. 제가 저를 평가할 수는 없으니!

D반 논의를 위해 인원수와 학생회 운영의 상관관계를 적으려 했으나, 사회복지학과는 적으면 10명 많으면 30명 정도의 인원이 배정되어왔었던 학과이며, 광역제로으로 바뀐 후 30~40명의 학생들이 균등하게 각 과반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 기술하지 않는다.

알반

전기 알반과 후기 알반 비교
*11학번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전기 알반, 12학번부터를 후기 알반으로 칭함.
*전기 알반의 경우 알반 23대 전(前)학생회(2005년도 2학기~ 2006년도 1학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함.

1. 전기 알반 집행부 및 반 체제
(1) 학생회 운영 체계
 학생회는 운영위원회,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부는 자치문화부, 정치사회부, 학술부로 구성된다. 집행부장은 따로 없으며 각 부의 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가 있다.
(2)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
1) 단운위 보고: 사회대에서 추진하는 문화 사업, 연대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
*단운위 안건 중 라운지 금연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반 내부적인 토의도 있었음.
2) 집행부 보고: 문화자치부, 정치사회부, 학술부 보고
3) 연대사업체 보고: 전국학습지산업노조(교류, 간담회, 연대 장터 등)
4) 학회 보고: 껍데기와 본질 / 동행 / 지식충이 세미나 진행 상황 보고
*세미나 일정도 운위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였음
5) 뻔 친목 관련 안건: MT는 뻔엠, 총엠을 엠준위를 모아 준비함.
사전답사를 정례화, 3인 기준 왕복 차비 지원. 뻔모나 장터도 보고했고, 수익금은 천사의 집에 기부
6) 과방 복지: 과방에 컴퓨터 및 프린터가 있었음(프린터는 학우 1명이 기부).
휴대폰 충전기기 학생회비로 구입. 생리대 함도 있었음. 과방 청소 관리
7) 새맞이 관련: 새짱 선출, 기획부 문화부 구성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모두 보고 받음
8) 소모임: 알반 내 성소모임, 고시겔 등. 여학우모임은 학생회가 지원함.
여러 소모임이 있었는데 소모임은 공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여학우 모임을 지원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
9) LT(심리알반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10) 커뮤니티 관리: 클럽장이 맡았음

(3) 자치문화부
게시판 관리, 깃발 관리, 알반 신문 발간, 수납장 및 책장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음. 자치문화부 자보를 내기도 하였으며, 새맞이 문화팀 지지 및 새내기에게 장터 제안 과정 설명을 함.
(4) 정치사회부
세미나 개최, 연대사업 및 농활에 대한 논의를 함. 부서 내부적인 논의 이후 과방에 논의의 장을 만듦. 단대 정치사회주체 회의에 다녀옴-농민대회 민중대회 교육투쟁의 조직 등
(5) 학술부
부서라기보다는 알반 학회의 학회장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로 보인다. 학회 학술론 세미나, 연합 TS, 학회장 연석회의 등을 함.

<총평 요약>
 현재와 달리 운영위원회에서 학번 행사와 학회, 새맞이를 모두 보고받고 관리하여 반 전체의 통일성이 갖춰진 느낌이다. 집행부의 경우 사실상 자치문화부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일원화된 집행부 체제가 났다는 판단. 학회와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과방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 바람직하다.

2. 후기 알반(2012년도 이후)의 진행 사례

(1) 사례 분석

1) 페이스북 페이지 분석

2016년도 알반 페이스북 페이지의 게시물, 댓글, 공유, 조회를 분석해 보았을 때 흥행성이 매우 높았다. 이는 페북지기의 페이지 관리 수준, 게시물의 공유 빈도 수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017년도의 경우, 퀄리티 높은 영상과 포스터 등이 꾸준히 생산 및 소비되고 있다.

2) 알반 페이지 분석

후기 알반 1대부터(2012년도~) 회의록, 매뉴얼, 후기와 피드백 등의 게시물이 모두 올라오기 시작하며 전체적인 게시물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내용적으로는 12년도를 기점으로 회의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이에 대한 비슷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왔다. 16학번의 새맞이 과정에서 고민해온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후기 알반의 문제의식 요약

매년 알반의 멤버 특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각 학번 전체가 반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개인적 의견. 차이는 알반 차원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회의 과정을 알반 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식화'하였다는 점에 있다.

12~13학번의 경우 직접 회칙을 개정하거나, 회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고민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12~13학번 시기에는 공식적인 분위기에서 각자가 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반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 때 학회, 집행부와 각종 매뉴얼 등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16년도 알바너들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편안하고 '비공식'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회의와 행사 진행을 비롯한 공식적인 반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왔다. (일례로 행사 진행 이후에 회의록과 피드백 관련하여 공식적인 게시물을 남기기보다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부분이 행사에 대한 의미부여, 공식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가져왔다고 생각)

정리하자면 알반의 각종 행사 및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공식화할 때 알바너들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화 과정에서의 부담을 감수하고 반 활동의 재미와 참여자의 자율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많은 알바너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앞으로의 반 활동에서 의미와 소속감을 찾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총평 및 문제의식

후기 알반의 문제의식을 참고해 보았을 때, 선대(12~13학번)에는 반 활동이 공식화, 정례화 되어있어 반의 권위가 충분히 살아있었으나 최근에 이것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사의 '공식화, 정례화'라는 특성은 전기 알반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반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전기 알반 막바지에는 학번 내의 사적인 불화로 반의 권위와 의미가 퇴색되고 결국 반이 폭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꼼반

<오프라인 자료 정리-학회 자료집을 중심으로>
1980년대
1.80년대 말 부터 현재의 학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들풀 1회가 87년도에 시작
1990년대
1. 90년대 초에 공간/돌추/장정 1기가 시작되었다.
2. 테트리스와 장기를 하면서 친목도모를 한듯하다..
3. 과거 장정은 신문을 만드는 활동도 한 것 같다.
2000년대 초반
1 .학회 잡기장에 집회에 참여한 기록이 존재하고, 학생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적혀있다. 그리고 학회가 침체된 것 같다는 의견이 적혀있다. 과거에도 학생회와 학회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졌던 듯.
2. 세미나를 진행 하기 전 커리를 만든 것 같다.
3. 세미나의 과정이 커리집>> 사전 세미나>> 세미나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2001년에 세미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 문제란, 커리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학회장이랑 교사한테 꺾이고 결국 세미나는 커리에 있는 내용 재확인 수준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교사라는 직책도 학회 내에 있던 듯.
4. 세미나를 기본 1년에 7회 이상씩 진행한 것 같다. 출석률도 상당한 듯. 기본이 전참이었던 것 같다.
5. 세미나 내용을 학회 별 잡기장에 일일이 손으로 기록한 듯 하다.
6. 학회 별 합식 문화는 이때도 존재했다.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못하는 것 같다는 문제는 이때도 제기되었다.
7. 학회 공청회를 2회나 진행하고 2주 간격으로 세미나가 있었던 거 같다.
8. 장정은 미디어 워크샵 같은 독특한 행사를 한 듯 하다.
9. 학생회와 학회 사이 간극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추정가능. 학회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고민한 흔적도 있다.
10. 이때 꼼반 집행부는 사회부, 성정치부, 생활문화부로 구성되었다. 이때 성정치부에서 페미니즘 관련 교양을 진행한 듯 하다.
2000년대 중반
1. 과거 자료에 의하면 언론정보학과/꼼반 22대 학생회부터 학회 의무가입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과반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낀다거나 과반 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주로. 아니면 거의 학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후 학회가 생활 공동체로 거듭나면서 과반 공동체의 모든 신입생들에게 전원가입원칙을 적용하게 되었다.'
2. 꼼반 여름학교가 진행된 것 같다. 세미나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 듯. 2006년 여름학교 이름은 '민들레 학당' 이었고, 2007년엔 민주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세미나를 한 듯하다.
3. 커리를 만들어서 세미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4. 꼼반 자치 도서관이 존재했고, 서평 대회도 연 듯 하다
5. 작은 음악회, 미술회가 존재한듯 하다.
6. 장정은 겨울방학에 세미나를 5번이나 했다고 한다. LT도 두번이나 했다고..
2010년대 초반
1.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커리는 만들어졌고, 세미나도 1년에 6회쯤으로 어느정도 유지되었다. 들풀의 경우 수요일에 정기 책 모임을 가졌다는 기록을 볼 때 학회활동이 이때도 활발했는 듯.
2. 장정의 경우 세미나와 콜로키움 전부 합쳐서 10번이나 진행한 해도 있었다. (세미나는 신자유주의와 자

본주의 관련 내용, 콜로키움은 다른 자유 주제) 여기에 TS, 하계 동계 엠티, 체육대회, 엘티까지 엄청나게 활동했다. 이때까지도 세미나는 거의 다 참석한 듯.
3. 공간의 경우 2010년도에 들어서며 문학학회에서 문화학회로 전환.
4 .학회 단위로 개강파티랑 종강파티를 따로 한 듯 하다.
5. 들풀은 풀씨 여행(들풀 여행)을 4번이나 했다고 한다.
2010년대 중반
1. 공간은 2010년도 중반에 가까워 지면서 세미나 보다는 문화 행사 중심(전시회, 공연 관람 등)으로 많이 활동한 듯.
2. 2015년 들풀이 세미나를 6번 했나 보다.
3. 2015년 학회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공간은 3월 계획에 '새내기들과 정든내기들과의 총 회의를 통한 연중 계획의 구체화(시청할 영화, 연극 등의 구체적 컨텐츠 설정)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별한 것 같다.
4. 2015년에도 장정 체육대회가 여전히 존재했고, 방송사나 대안 언론사 견학, TV쇼 방청 등의 활동 등도 계획한 듯 하다. 여행도 여름방학 두 번 겨울방학 한 번으로 많았다. 공간은 공간 영화제를 3일동안 계획했고, 대학로 연극 감상, 단풍놀이+영화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다. 세미나도 많았고.
5. 2013년까지도 공간은 세미나를 '더불혜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듯하다. 최근 그 이름을 쓰지 않게 된 것 같다.
<온라인 자료 정리-연도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2003 운위
보고 및 공유 안건: 단운위 보고에서 다른 반 보고까지 꽤나 디테일하게 함, 집회 피드백도 많음
논의 안건: 단순히 어떤 사안에 대한 찬반표결이 아닌 적극적인 토론의 과정이 있는 듯, 어떤 정국에 대한 대응 방안(1인 시위, 스티커 제작, 토론회 등) 논의 등 사회적 참여에도 깊은 관심, 시위나 노조 투쟁 사안까지 보고
학회 보고: 역사학회 들풀, 언론학회 장정, 철학학회 돌추, 문화학회 공간. 시험기간에는 지금처럼 활동이 마비되는 경향이 있음. 세미나 잦음. 소모임도 있었음.
집행부 보고: 생활문화부-과방 청결 문제를 비롯한 실질적인 꼼반 학우들의 생활 담당/사회학술부-사회정치적 정국에 대한 반 차원에서의 참여 방향 논의, 좋은 글 읽기 쓰기 캠페인 등/성정치부-생리대 비치 등의 실질적인 논의부터 군사주의, 집회문화까지 논의/자치도서관: 집행부 소속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집행부 각 부서와 동등한 지위 가진 듯. 도서 목록 정리, 서평 수합 등의 업무/집행부 부별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모임 및 회의 가짐
특이한 점: 운위에서 운위원들이 시국을 논의하며 토론회나 자치도서관 등의 행사를 제안하기도 함. 노동에 대한 깊은 관심(집회 참가, 노동자 대회, 토론회 등 주최), 집회를 참여한 것이나 행사를 주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운위 단위에서 피드백 과정이 활발함(집회 문화의 남성성, 집회 참석 제안이 강요로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환기),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커뮤니티 댓글에서도 운위 결과지에 대한 피드백하는 등 의견 교류 활발했음. 반 차원에서 사회적 기금 모금하기도, 김민수교수 문제와 광역화 문제가 핫이슈였던 듯. 이 당시에는 새준위를 신준위라고 부름, 자보 피드백이 디테일함. 이 해에 회칙을 처음으로 제정함

2004 운위
보고 및 공유 안건: 여전히 집회 상황 공유 및 사회운동에 집중하는 모습, 전학대회를 보고할 때 의결 내용뿐 아니라 논의 과정까지 세세히 보고함. 장애인 인권이 핫이슈였던듯
논의 안건: 과반 배정, 교육투쟁(김민수 교수 복직 관련, 대학본부의 비민주성,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편 논란), 교양학교(새내기들 대상으로 한 교양, 성&반전 등 논의) 등에 있어 사회대 단위에서의 진행에 앞서 꼼반 단위에서 공론화해서 의견수합해서 전달하는 과정 있었음. 실천단 활동(반전, 비정규직 철폐, 이주노동자

와 연대, 장애인 차별 철폐, 그 외 여러 사회적 사안들)
학회 보고: 책을 읽으며 세미나를 하곤 한 듯(ex.돌추: 철학 개론서, 마르크스 사상서), 지금보다 좀 더 심도높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음(ex.공간: 회색인, 오리엔탈리즘, 하얀가면의 제국 등으로 세미나 진행). 홈커밍데이 자리에서 사회적 사안에 대한 의견 받기도 했음, 운위 의결사항 및 집회 상황 전달 등 정보 전달 기능 잘 되었음. 새맞이 학회 엠바고 존재. 야유회 엠티 등 자주 감, 공간은 음악회 하기도. 학회상에 대한 논의에 많은 학우들 참여.
집행부 보고: 성정치부-자치규약 제정, 페미니즘 세미나, 여성영화제, 여학우모임 기획 등/사회학술부-세미나, 결의대회 참석 등/생활문화부-과방 설비, 미화 등, 총엠 답사 가기도/자치도서관-서평대회, 세미나 발제문 수합, 학회에서의 논의 공유/집행부가 학회처럼 기능한 듯.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 집행부 부서 차원에서 자보 많이 씀.
특이한 점: 청소는 언제나 문제였음. 집회 참여는 2003년에 이어 꾸준히 하는 듯. 등록금 인상과 핵폐기장 등이 핫이슈. 새맞이가 이때는 '신준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거의 학번 행사인 지금과는 달리 반 행사였던 듯. 광역 입학생 전공진입 방식으로 논란 많았음. 대중사업과 정치사업 통합 문제 이때부터도 거론, 여학생환영회가 신환회와 별개로 있었음(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공유, 긍정할 수 있는 의식화의 장으로서의 환영회를 만들고자 했음)->남학생환영회도 있어야 하지 않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함. 사회대 각 과반 학생회 워크샵 알록달록이라는 행사가 있었음. 꼼반 밴드가 학생회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음, 탄핵정국이어서 입장서를 내기도 했음. 모금 및 실천단 활동 많음. 과반밤이 꽤 큰 행사였음(발언, 모금, 레크레이션, 영상물 시청 등을 하고, 홈커밍처럼 고학번들에게 연락 돌리기도 함). 여성주의 주간, 농활 사전 답사를 반 차원에서 가기도 했음, 과에서 반체제로 바뀌면서 과에서 지급하던 자치단위 지원금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일일호프에 반 단위로 참석하기도 함. 과방에서의 저녁식사: 사회대 선본과 식사하며 정책 듣는 시간 있었음. 홈커밍같은 반 행사에서 모금 받거나 자보 붙이는 등 사회적 참여의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 홈커밍데이 때 자체 굿즈 같은걸 제작해서 판매해서 회비를 모으기도 했음

2005 운위
보고 및 공유 안건: 시위하다가 연행되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옴, 신준위(새준위) 보고도 운위에서 했음, 여전히 집회 및 시위 얘기가 비중이 제일 큼
논의 안건: 운위원들이 집회 참여 연락을 돌렸음
학회 보고: 각 학회별 커뮤니티가 있었던 것 같음, 모든 학회가 방학중에도 거의 매주 세미나를 진행했음 모든 학회에 학회가가 존재했던 모양, 학회 인원 조정할 때 최저한계선 두고 그것을 넘지 못할 경우에만 재조정
집행부 보고: 성정치부-매주 세미나, 여성의날 행사 준비/사회학술부-교양학교 준비, 교육투쟁 적극 참여/생활문화부-실질적인 과방 생활 담당뿐 아니라 과반 문화, 정치 논의
특이한 점: 자치단위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있었음. 집회 공유와 대담형성의 노력이 부족하고 운위에서만 논의되는 것 같다는 지적 제기되기 시작. 각 학번 모임도 운위에서 공유. 등록금 인상 문제&대학국어, 대학영어 전공 진입 전 의무제 문제가 핫이슈였음. 자보가 사회적 목소리 내려는 의도 아니라도 신준위 힘내라는 목적 등 다양한 의도로 제작됨. 민중의례 및 쇼문화(새내기쇼)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 때에도 있었음. 교양학교/여름학교/겨울학교 등을 꾸준히 함. 창밖으로 세상보기라는 행사가 있었음. 점차 논의안건이나 보고안건에서 각종 집회를 다룰 때 '참여를 결의합시다!'보다는 '가고 싶은 사람은 가봐도 좋을 듯' 등의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함. 학생회비를 사전에 예산안을 짜놓고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에서 필요하면 받아쓰는 형식이었던 것 같음.

2006 운위
보고 및 공유 안건: 전학대회 논의 과정까지 세세히 보고했던 과거와 달리 자료 올라오는 주소 공유 정도로

머무름, 행사 보고하며 피드백 줄어들고 팩트 나열 식으로 바뀜
논의 안건: 집회 논의를 할 때 '참여 제안'이 아닌 '관심 촉구' 정도로 수위 낮아짐, 반 단위 참여보다는 개인 홍보 개인 참가 지향
=>성격이 바뀐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 발췌(25대 학생회 2차 운위 속기록 中) =>성격이 바뀐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 발췌(25대 학생회 2차 운위 속기록 中)
"-모란 공원 방문.
 전태일 열사 추모제에 간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주말에 모란 공원에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제안 .
 여기서 꼼반 학생회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건지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다른 집회가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닌 소수의 꼼반 사람들끼리 모란 공원에 단순히 방문하고 추모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과 25대 꼼반 학생회론에 따르면 제시된 정책 이외의 다른 '정치'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는 먼저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했는데 이것이 과연 학생회론과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 모란공원에 가는 것은 목적이나 의미에 있어서 집회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직접 공론장 개념을 구상하고 글을 쓴 사회학술부장의 의견. 그 글의 의도는 학생회론 자체가 '모든'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님. 정치란 것 자체가 개념이 모호. 처음에 다른 공론장을 통해 논의 하겠다는 것은 외부 집회에 관한 것 이었는데 이번 사안은 거기서 열리는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함.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홍보할지 논의 중에 개인과 학생회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꼼반 학우들이 보기에는 분리가 안된다는 입장과 분리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 그것 때문에 학생회 인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제한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함. 더 생각 해볼 내용.
 결국 학생회로서 가 아닌 꼼반의 한 개인 학우로서 홍보하고 가기로 함.
꼼반 컴티에 글을 올려 이번 주에 관심있는 꼼반 학우들과 모란공원에 가기로 함."
학회 보고: 연말 평가회의 진행
집행부 보고: 자치도서관이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어 활용방안 논의
특이한 점: 2005년 12월~2006년 2월 운위 자료 없음, 24대 학생회 운위 자료 대부분 없음, 운위 속기 반방 게시판에 오프라인 게시함, 언론정보학과에서 지급하는 자치지원금의 축소 문제로 골머리 앓았던 듯.
2007 운위
운영위원회 체계: 집행부 부서장들이 각각 운위에 참여했다. 지금처럼 집행부장 한 명만 참여하지 않음. 그 외 지금 찾을 수 없는 여러 단위들의 장이 참여함.
논의안건: 복수전공 의무화. 그리고 농활 취소에 대한 반성. 여름학교 준비. 외부단위와의 연대에서 꼼반 내 부기준이나 원칙 확립. 보고안건과 관련하여 반내 담론 확대재생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함. 교양의 일정 및 방식 등 구체화.
학회 및 소모임 보고: 세미나 잦고 독서모임, 학회MT등 학회 활동의 스펙트럼 역시 매우 넓음. 세미나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넘침. 야유회를 빼서라도 세미나를 하고자 함.
집행부 보고: 자치도서관 담당이 따로 있었음. 각 부서의 장이 각각 운영위원회에 참여함.
특기사항: '그날이 오면'과 함께하는 서평대회가 있었다. 강연회나 시위, 연대활동 등에 적극적 참여. 교양도 잦은 편이다. 성정치위원회, 정치사업주체연석회의라는 단위도 있음. 그리고 현재의 꼼론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가 처음 나타남.
2008 운위
집행부: 사회학술부, 생활문화부, 회계, 신입생맞이위원회.
-집행부에서 새맞이 주관하였음
운위: 3개 학년 참가.

한 달에 1회 이상 여성문제, 장애인권, 노동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학술행사가 있음. 자료집 인쇄 비용이 학생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됨. 모자란 비용을 일부 학우들이 사비로 지출하였다는 기록이 있음.
언론정보학과에 새맞이 비용의 지원을 요구함.
사회대에 학생회 예산 지원을 요구함.
-서평대회, 꼼서트 등 행사를 기획한 흔적
-농활을 사회대 차원으로 가지 않고 외부 단체와 손잡고 꼼반 농활을 감.
-5.18 광주 방문 역시 꼼반차원에서 준비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음
-총엠에서 고사를 지내고, 유적지를 방문함.
-새터가는 고학번 서포터즈, '진짜 입학식' : 기록되어있지만 무슨 활동인지 모르겠음
2009 운위
한 차례의 운위 회의 기록만 남아있음.
2010 운위
집행부: 신입생맞이 위원회가 사라지고 기획부 신설
운위의 횟수가 2008년에 비해 줄었다. 방학때는 한달에 한 번 회의.
반방 이전을 둘러싼 갈등, 법인화 관련 세미나와 활동.
2011 운위
28대 학생회장의 졸업 후 2011년4월까지 새로운 선본이 꾸려지지 않아 학생회 업무가 방치됨.
29대 학생회(2011년 5월~)
집행부: 사회학술부, 생활문화부, 회계
운위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적은 편.
10월 학생회장의 개인 사유로 직무 불가 판단, 권한 대행 선출에 대한 논의.
2012 운위
운영위원회 체계: 09학번대표까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음.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음. 학회에 준하는 소모임장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짐.
논의안건: 광역생의 과반 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됨. 과 자치회로의 흡수/과 자치회와 분리 양립 등의 의견이 있었음. 농활을 총학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꼼반 단독으로 갈 것인지 토론하기도 했음.
학번 보고안건: 09학번까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나 실질적으로는 12학번의 보고가 대다수. 10 11학번은 학번MT나 모임, 또는 누군가의 입대 소식 보고. 09학번은 졸업준비 보고.
학회/소모임 보고: 학회 세미나를 비롯한 활동이 다양하고 풍부함. 잦을 때는 2주에 1번인 경우도 있었음.
2013 운위
논의안건: 총MT에서 벌어진 성폭력/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여성주의와 이성애중심주의까지 확장됨. 성폭력이 아닌 다른 단어를 쓰자는 의견도 있었음. 그리고 꼼반 내규의 의미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한 토론이 오감.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치열한 논쟁을 찾아볼 수 있음. 그리고 학외 문제 참여 및 연대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도 잦음.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학회 의무가입제와 학회 이동제.
집행부 보고안건: 문화팀 설치.
학회/소모임 보고: 여전히 세미나가 학기당 2-3회 이상으로 지금에 비해 잦은 편. 소모임 활동 역시 많다.
2014 운위
운영위원회 체계: 12학번까지 운영위원회 참여, 전대 학생회장이 종종 참관함. 소모임 활동이 줄어들어 소모임장 운영위원 자격 박탈.
논의안건: 학회 의무가입제 지속적 논의. 반대항 운동회(당시에는 악반과 진행). 특기사항으로 당시 반대항 운동회에도 기조가 있었음.
학회/소모임 보고: 소모임 활동 급감으로 운영위원 자격 박탈.

특기사항: 운영위원회가 정말 많이 열렸다. 속기록 .txt파일이 깨지기도 했고, 유실된 속기록도 많아 이것들을 전부 기록할 수 없음이 아쉬움.
2015 운위
논의안건: 학생휴게실 이불 비치 문제가 논의됨. 전반적으로 논의가 많이 줄어들었음. 특기할 과정이 없는 것인지 논의 결과만 기록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속기록 자체의 길이가 줄어듦.
학회/소모임 보고: 소모임은 실질적으로 소멸. 학회 활동 및 보고 역시 상당히 줄어들었음.
후반부 속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후반부는 기록하기 어려웠으나, 운영위원회는 성실히 소집했던 것으로 보임.
2016 운위
속기록을 구하지 못함.
2017 운위
운영위원회 체계: 15학번대표는 운영위원회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함.
논의안건: 새내기 인원 대폭 감소로 인한 학생회비 예산 조절. 학외 집회 등의 활동보다는 반 내부 사업 등의 다른 안건들이 많아짐. 논의의 길이가 전에 비해 줄어든 감이 있음.
인준안건: 자보 인준안건이 비교적 많음.

나침반

나침반 새내기 맞이 행사(이하 새맞이) 분석

1. 운영 방식
· 새내기 맞이단 구성

새맞이단 대표(이하 새짱, 여남 각 1명씩)
뒤풀이 등 오락, 친목 담당 부서
프로그램 기획 등 사회화 관련 부서
내규, 기조 등 문화, 교양 관련 부서
자료 편집 및 정리

-주로 2학년 진입 예정 학생(새내기의 바로 이전 학번) 위주로 새맞이단 구성
-전 구성원의 참여 도모;특정 학번 행사화 경향
-> 고학번 참여 여부에 대한 지속적 논의
사례 1)12학년도 새맞이 당시 고학번은 자원 방식으로 운영(11학번은 opt-out방식)
사례 2)17학년도 새맞이 당시 15학번 내 고학번의 새맞이단과의 소통부족 문제 지적

· 진행 행사
새맞이단 모집: 구성은 위 항목 참조.
새맞이 MT: 새맞이 기조, 기본적 규칙 등 기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수시생 OT: 수시 합격생 대상 사회화.
정외 신환회: 정치외교학부 내 두 반인 나침반과 일치단결반의 소개 및 화합 도모
새내기 맞이 행사(약 3차): 정보 전달 및 사회화. 중요한 정보는 반복하지만 차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는 내용을 전달. 학회 소개 및 동아리 등 특정 집단에 새내기 영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은 초반부에는 지나친 그루핑, 배타적 내집단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반부 새맞이에 편성되어있다.
새내기 새로배움터: 사회대 차원의 행사. 나침반 내의 별도 프로그램은 '방돌이'와 '나치전'이 있다. 방돌이는 선후배의 비중을 맞춰 조를 편성한 다음 숙소를 제공해 '방'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운영한다. 처음엔 방 내의 선후배끼리 정보전달 등 사회화가 이루어지며, 새내기들은 다른 방의 선배와도 친해지기 위해 다른 방으로 이동해 주로 술을 마시는 프로그램이다.
나치전(일침전)은 정치외교학부 내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 가벼운 게임(닭싸움, 가위바위보 등)과 술을 동반한다. 나침반과 일치단결반의 승부에 원하는 양의 술(1~3병)을 베팅해 패배할 경우 그 술을 반에게 해당된 그릇에 전부 부어 마지막에 빨리 마시는 반이 승리한다. 술은 반 내에서 (주로) 자원한 신청자 3~4명이 나누어마신다. 새짱, 동기 새내기들의 권유로 술 마시기에 출전하는 경우도 있다.

· 기타
- 12학년도 새맞이 당시 새맞이단 활동 평가 제도 존재
회의, 행사 등 출석의 점수화를 통해 미흡할 시 벌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임

2. 정치적 문제의식, 인권담론 등
-커뮤니티자료 (12학년도 새맞이 자료만 존재)
새터에서 장난식으로 다뤄진 내규에 대한 문제의식 나타남.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피드백.
-기타 자료집 참고해야

3. 자료집

자료집은 새내기 맞이 행사 중반 쯤 정보 전달을 위해 정든내기가 직접 제작해서 필요한 정보를 담은 것이다. 자료집은 주로 나침반의 선배 소개/학회 소개/나침반의 운영방식, 행사 등 소개/학교 정보 전달로 구성된다. 선배 소개에서는 정든내기들의 취미, 성격 등의 소개글을 모아둔다. 2학년 진입 정든내기는 모든 구성원의 소개가 실려있지만, 그 이상의 고학번 정든내기는 일부 구성원만 소개된다.(기준은 불명확함) 학회 소개에서는 학내 소모임인 학회에 대한 소개를 한다. 학회의 프로그램, 기조 위주로 서술이 되어있으며, 학회 돌이 및 새맞이 내 학회 소개보다는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참고 정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나침반의 운영방식 및 행사 소개에서는 나침반 학생회와 집행부 등의 운영방식을 소개하고 연례 행사를 소개한다. 운영방식 소개는 특별히 정치적 문제의식이나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연례 행사는 새내기와 새내기 뻔대가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 역할을 하기도. 학교 정보는 학교 생활 관련 정보 중 자주 쓰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위주로 정든내기들이 재구성해서 싣는다.

4. 친목도모 방식

4. 1. 짝선배-짝후배(멘토-멘티) 제도

무작위로 한 정든내기 당 1~2명의 새내기가 배정되어 멘토링을 진행한다. 초반에 친해질 때와 기초적인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단, 친해지면 꾸준히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학기가 시작되며 크게 중요한 관계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4. 2. 지역별 모임

서울(강북, 강남, 강동 등)/경기-인천(17학년도 새맞이 기준 경기도+인천)/TK/BK 등 매 년 지역별 새내기의 비율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역을 나눠서 정든내기와 새내기의 비중을 조정한다. 주로 공식적 새맞이 행사, 짝선배-짝후배 이외의 선후배간 친목 도모 및 새내기에게 정보 제공 등 사회화를 위해 유지되고 있는 제도.

17학년도 새맞이 기준 서울은 출신 새내기의 인원이 많은 것을 이유로 강북, 강남 등 세부적인 지역으로 조가 편성되었으나, 경기-인천 조의 인원이 넓은 범위인데도 세부적인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가장 많은 인원이 한 조에 편성되었다. 넓은 지역의 특성상 모임 장소를 구하기 어렵고, 교통편 등을 이유로 모임이 일찍 해산하거나 아예 불참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제주도는 보통 새내기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모임에 소속되지만, 같은 지역 출신 선배와는 멘토링에 가깝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의 조장이라는 비판을 들은 적 있으나(타 단과대 학우로부터 직접 들음), 17학년도 기준, 지역별 모임이 지속되어 지역감정 등으로 연장되는 경우, 혹은 특정 지역 출신 새내기 간의 과도한 친목 및 소외감 형성은 관련 의견이 보고된 바가 없었고, 크게 공론화 되진 않았던 것으로 추측.

5. 새내기 학번 내 마니또 (별도 행사)

주로 새내기들의 학번 내 행사로 진행된다. 편지와 함께 선물을 익명으로 전달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선물 가격의 범위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17학년도 마니또 행사 당시에는 5천원 내에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는 규칙이 있었다. 학번 별로 뻔대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드백이라기 보기엔 어렵지만, 괜찮은 규칙이라는 평가를 들은 바 잇다. 그러나 마니또 행사는 실질적인 친목 도모 행사로 보긴 어려운데, 비교적 안 친한 동기와 의도적으로 매칭하는 것이 아닌 무작위 매칭이고, 그에 따라 마니또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 마니또 행사 이후에는 마니또의 관계는 금방 잊혀지는 편이기 때문에 마니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화제 제기 정도이며, 마니또 프로그램 역시 선물전달, 비밀 미션 등에 불과하다.

한음반

<한음반의 과거>

결론 : 한음반의 과거는 사업의 양적 측면에서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와 통신의 발달(?) 덕에 사업의 개수로 따진다면 지금이 더 사업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컨대, 밤샘영화제나 학술제 등의 추가가 그러합니다. 하지만 행사의 질적 차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해오름제, 선본의 운영 등이나 인류학과 자치회의 사업에서 그러합니다. 또한, 고민의 중심지점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학생회들은 의미를 찾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의 의미란 다분히 현실/학내 정치적인 것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의미를 찾고, 이를 위한 여정을 주도하던 학생회 내부 부서가 있었습니다.

한음반 VS 과거의 한음반

지금의 한음반과 과거의 한음반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해오름제의 운영, 선본의 운영 등이었습니다. 해오름제의 경우, 지금은 사전행사와 해오름제 본행사로 진행되는데, 과거에는 2일에 걸쳐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전행사의 경우 지금은 한음대학교가 전부이지만, 과거에는 한음대학교에 대해 한음반 내 운동회(와 비슷한 雜技대회) 등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한 절이 제가 참고한 자료집과 선본자료집에 있지는 않아서 더 자세한 내용파악은 불가능합니다.

선본의 운영은 지금보다 3만배 정도 체계적이고 일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는 선본자료집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는데,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지금의 한음반 선거는 정책자료집을 만들지 않을뿐더러, 비슷한 것을 페이스북에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과거의 정책자료집은 약 30~40페이지 분량으로 총노선-총론, 정책, 출마사, 추천사 등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상술한 것처럼 '의미'에 대한 집요한 추적이 눈에 띄는데,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이 컸고, 이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기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회 VS 과거의 학회

학회 자체도 크게 변화하진 않았으며, 오히려 지금의 학회체제가 조금 더 체계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전통처럼 정체화된 각 학회의 예비세미나 전통도 과거에는 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의 반역의 정체성인 볼식찜을 소행성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주요한 차이는 학회의 위상입니다. 과거에는 학회장 연석회의가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와 그 위상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료집이나 선본의 정책자료집에서 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의 도식을 구성할 때, 수평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음반의 운영위원회가 왜 지금의 형태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학과 자치회 VS 과거의 인류학과 자치회

인류학과 자치회의 경우 기록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한 전설의 과지, 거멀못의 존재로 그 과거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거멀못이란, 인류학과 내에서 그 존재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과지의 이름으로, 본인 역시 존재에 대해 소문으로 듣기만 했을 뿐 그 존재를 확인하고 열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38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다가 약 8여년의 공백을 가진 뒤 거멀못 REVIVAL이란 이름으로 39대(2010년경)에 부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량은 보통 200페이지를 넘어가는데, 이는 과거 자치도서관에서 발간했던 페다고지와 비슷한, 분량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보입니다. 거멀못은 인류학도로서의 고민, 인류학의 연구주제들에 대한 학부생 수준의 연구보고서, 개인의 일상사에 대한 기고받은 글들, 여행수기 등 다양한 주제의 다채로운 글로 채워져 있습니다. 글의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내용의 글을 기고하여 쓰는 형태라 상당히 많은 인류학과 학생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과거의 인류학과 자치회의 역량이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치단결반

<총론>
일단 일치반의 경우 2004년도 학생회에 대한 정보까지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각 학생회 게시글과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사업(총회, 농활, 간식사업, 집담회 등), 반의 운영 방식(반운영위원회, 새맞이 준비 위원회, 학회 중심 연석회의)에서 현재와 다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학생회는 보다 사회 문제, 자아 정체성의 본질을 꿰뚫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명히 지금 보다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이었으며, 일반 학우들도 직접 학생회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의 학생회를 그때와 같이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 아울러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필요한지에 대한 통렬한 검토와 같이 쌓아 올라가야할 논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다양한 영감과 인사이트를 주는 것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각론>
2005년도에 쓰인 학생회장 출마 선언문입니다. 학생회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어 오늘날 진행 중인 과/반 특위의 문제의식에 잘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약간의 편집을 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정치학과 일치단결반에도 22대 학생회가 새로이 움트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학생회를 세우려 하는가? '21대가 끝났으니 22대가 서는 것은 당연해서인지, 친한 누군가가 후보로 나와서인지, **또는 어떠한 다른 이유에서인지'를 짚고 넘어가는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2.
민주주의-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사회 구성원리라고 배우고 생각하며 자라왔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이 진정 민주적인가'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관성화된, 캐비넷 속의 민주주의를 당연스레 받아들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民主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억압과 통제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삶에 구속됨을 거부하는 것이다. 나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어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꾸려 가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고립된 나'로서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인가? 감히 단언하건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각 각의 주체들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고립된 개인으로 한정된 상태로는, 자기 삶에 있어서도 주인이 될 수 없다. 각 개인 간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의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보장될 때에, 그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생긴다. '우리'라는 문제이다. 개인과 개인이 모인 다수의 집합체, 그 안에서 각 주체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또한 자신을 어떻게 주인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한다. '나'만이 아닌 '우리'이기에, 우리들 스스로를 또한 어떻게 주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만 한다.
2)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진정 주인됨이고, 어떠한 형태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인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또는 인습에 의하여 **'전통'이라는 허울 아래에 세워진 권력의 구조에 맞추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풀어나가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물론, 권력관계가 부재하는 공동체는 현실에서 존재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 권력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한 작동하는가에 의하여 각

개인과 공동체는 주인됨을 실현할 수도,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배적인 권력 구조가 억압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게끔 하는 또 다른 (권력) 구조를 공동체 내부에 세움으로서, '우리'가 주인됨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는 소수의 의지와 의견만이 아닌 공동체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져야 자신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3)

한편 공동체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과정 자체와 궁극의 목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력관계에 구애받지 않는, 의사소통의 실현'이어야 한다. 자신을 주인되게 하는, 동시에 공동체 또한 주인되게 하는 것은 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야 가능하다. 그리고 '의사소통'이란 일상에서 오고가는 이야기에서부터 공적으로 행해지는 논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 숨어 있는 '논리'는 그다지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다는 데 있다. 권력관계와 지배적 논리구조에 매몰되어 자신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공동체를 생각함이 없이 자신만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많다. 이제, 이것에 일침을 가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가 공동체 구성원간의 활발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인 이상, 지금껏 행해지던 잘못된 구조를 제대로 보고 바꿔나가고자 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는 점차 제 이름값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생회를 우리가 고민하고 고집하는 이유는, **학생회에서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고 또한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회를 통해 처음 접하는 '자치'의 힘으로 자신과 공동체, 나아가 학생 사회가 발딛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눈 돌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회'는 기존의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현재 학생회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대안 공동체로서 의미를 다하고 있는지 되짚어보자. 학생회와 학우들은 서로 유리되었다. 학생회는 학우들 자신을 속박하는 권력체로 다가간지 오래다. 학우들도 주인됨에 대한 고민 없이 기존 사회가 틀 지워놓은 구조에 맞춰 생활하기만 한지 오래다. 아집만 남은 학생회와 고민하기를 포기한 학우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는 점점 설 땅을 잃어왔다.

일치단결 학생회는, 제도권 내의 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그리고 기존 사회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고립된 개인으로서 감히 실현할 수 없었던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하여 각자가 주인됨을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인 될 수 있는 학생회 상-우리가 지향하는 22대 학생회의 모습이다.

사실 이 글을 읽고 꽤 깊은 생각에 잠겼었다. 어떤 학생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이전에 학생회에 대해 '왜'라는 물음을 던져보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사고해보지는 못했던 것을 반석하게 되었다.

각 시기와 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흥미로운 점이 많다.

2003년도에는 '교양학교'를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학회에 상관없이 조를 짜 운영했으며 새내기들에게 학회에 대한 의미 및 정보의 전달이 주 목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름 자체가 old 한 느낌이 나서 적어본다.

2004년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문제를 분석하고 원칙을 정립하는 순간에 있어 활동가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 냈어야 했으나 활동가들 간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차후의 소통을 또한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이 당시에도 내부 소통은 골치 덩어리였나 보다.

한편, 10여년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대 학생회와 대중 학우들의 괴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사회대 학생회의 취지, 의미를 알리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학년들의 참여 및 2학년 주체들의 책임감이 미비했으며, 그것에 대한 3학년들의 조언이 부재로 인해 학생회를 앞으로

잘 해보자는 자리가 오히려 힘이 빠지게 되었다는 통렬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2000년대에는 4.28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 그리고 4.30 메이데이가 과반 내에서 꽤 akasg은 위상을 차지하는 행사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들어서 이것들을 준비하려는 자리는 참여 부족으로 무산되었고, 결국 소수만이 관성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Cf> 최근 전학대회에서도 논의된 적 있는 담론으로 '수고비'에 대한 당시 입장이 있어 첨부한다 : 학생회비 및 장터 수익의 사용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장터 종결 이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장터수익금을 고생한 학우에게 일정정도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학우들이 장터 주최 목적에 일조하고자 음식을 사 주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장터 수익금은 목적한 바에 맞게 써야 한다. 또한, 학생회의 모든 활동가(또는 구성원)는 특수한 이익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고했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학생회 활동을 왜 하는가, 학생회비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고찰도 흥미롭다. 모든 과반 학생회는 직접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대전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은 학생회 정신을 고려할 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지점인 듯하다. (다만 모든 인원이 매주 모여 정책을 의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운영 위원회(이하 운위)를 소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위를 구성하는 운위원은 평소 과반 내에서 과반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실천하며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활동가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도 대부분의 운영위원회가 재적위원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겨우 진행되었고, 얼마 만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리고 있다. 또한 진행 횟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었다. (2008년에는 무려 27번의 반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거 실화다. 사실상 단대 운영위원회와 같이 매주 반운위가 열리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었다는 것. 이분들 언제 공부하셨을까.) 이를 반운위원들의 책임 의식이 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집행부는 어떠했을까? 집행부도 성하지는 않았다. 22대 학생회는 21대 학생회 집행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 기능을 복원시키고자 하였는데, 이 역시 실패한 모양이다. 22대 학생회 집행부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근데 이렇게 서술하니까 꼭 역사학자 된 느낌) 이에 대한 자체 피드백이 있어 덧붙인다.
"실제로 집행부는 학생회에서 일을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다. 하지만 분명히 할 점은, '(학생회 또는 집행부의)일'이 소수의 활동가가 재미도 없는 지루한 활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와 그 안에서의 학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창조적으로 고민하며 대안적 활동을 꾸려나가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 과반 내에서 학생회 일, 집행부의 일은 단순히 집회를 가는 것 또는 재미없는 일에 동원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에, 학생회 내에서 진행되는 일과 집행부에 대한 논의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늘날의 집행부도 이 비판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학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은 역사가 깊은 문제인 듯하다. 과반의 학습 풍토가 척박해졌고 그 원인을 과반 내의 자율적 진리 탐구의 장이었던 학회가 무너졌음에서 해석하는 시각이 있었다. 2000년대 후반 대부분의 방중 세미나는 무산되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로 인해 학회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학회는 진지한 고민의 장이 아닌 친한 사람들이 만나 노는 데 치중하는 놀이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학회가 학생회 내에서 존재하는 이상,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 공동체로서 위치하는 이상 그 존재 가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실험의 장에서 구성원의 삶에 파고든다는 점에서, 학회는 구성

원 간의 관계 맺음 및 그 구성방식, 그리고 그 밑바탕이 진리의 탐구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성주의 담론은 학생회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할 정도로 연고가 오래된 담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사회의 부당한 성차별 구조를 거부하고 대안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여성주의는 필수조건이라는 시각이 주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과반 내에 이런 인식에 대한 합의는 부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활동가(대표자) 사이에서도 합의되지 못하고 '교양학교 공청회 자료집 사건' 등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에게 여성주의 담론과 관련하여 인사이트를 줄 만한 글이 있어 첨부한다. 2004년 농활 당시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일치반 학생회의 입장서이다. 농활, 여성주의 담론, 학생회 전반을 이해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전문>

지난 7월 1일 2004 사회대 농활대는 충남 아산시로 농활을 수행하러 갔다. 7월 1일 저녁에 농민회 사무실에서 아산시 농민회 관계자분들과(그중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직접적인 농민회 회원은 아니었다) 사회대 학생들 간에 술자리가 있었고 그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3시쯤 마무리가 되었다. 그 뒤 사회대 학생들은 안쪽 방에 들어가 취침을 하였고 그날 새벽 가해자는 안쪽 방으로 들어와 여학우들 사이에 누웠다. 그리고 그 안쪽 방에서 가해자가 사회대 여학우 2인의 옷을 들추고 몸을 더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사건을 알아차리고 가해자를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밖으로 나와 이 사실을 즉각 농민회 간사에게 알렸다. 농민회 간사는 간략한 사건의 개요를 아산시 농민회 정책실장과 농민회 회장에게 전달하였고 학생회 측의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이 받아들여져 그날 오후 농민회와 학생회의 대책위가 꾸려지게 되었다.

'아가씨' 발언이 문제의 화근?

<농활 서울대생, 농민 '성폭력' 시비로 철수>
학생들 "아가씨, 아줌마 호칭은 언어적 성폭력" 농민 측 "문화적 차이 따른 사소한 갈등일 뿐"
농활대가 철수하여 서울로 돌아온 뒤 언론에는 위와 같은 헤드라인의 기사가 실렸고 순식간에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졌나갔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논점은 서울대생들이 아가씨라는 호칭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농활대를 철수했다는 식으로 흘러갔고 그후 snunow등의 독자 의견란에는 거의 사이버테러에 가까운 답 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우선 우리는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그저 강간에 준하는 행위만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성폭력의 성립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나 구체적인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피해경험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는 성폭력을 여남의 권력이 평등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현재하는 사회에서 항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폭력의 해결이나 근절이 가해자 개인의 처벌의 문제로만 귀결될 것이 아니며 사건의 공론화를 통한 공동체의 인식의 변화를 꾀함으로써만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보도된 '아가씨'라는 호칭의 문제 역시 '학생'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유독 '아가씨'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 여학우의 입장에서는 성폭력일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연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험은 분명 '아가씨'라는 호칭에 담긴 사회적인 성 차별에 근거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미 이는 호칭을 부르는 이의 의도를 벗어나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성폭력을 근절하는, 다시 말해 성차별 적이고 여성배제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일방적인 문제제기와 몰아붙이기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회 측에서는 농민 분들이 남학생들은 '학생'으로 부르고 여학생들은 '아가씨'라고 부르는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고 여학우들도 똑같이 학생으로 불러 달라고 예의를 갖춰 이야기하여 그 나름의 대응을 해왔었다. 그 과정에서 학생회측이 농민 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분들의 의도를 문제시한 적도 없었다. 다만 우리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벌어질 수 있는 여학우들의 피해와 여성 배제적 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 과정도 충분히 예의를 갖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2004년 여름 농활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사회대는 도농 연추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제기를 하였고 구체적인 합의 규약은 부결되었지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시 농민회가 책임을 지고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문제는 학생회와 농민회와의 관계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번 사건은 결코 농촌사회의 특수성이나 문화적 차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농촌사회를 결코 특수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부장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서울 도심과도 심지어 학교 안과도 큰 차이는 없다

고 생각한다. 여학생들을 아가씨라고 부르고 술을 마실 때 여성들을 찾는 것은 농촌만이 아니라 공직 사회에서도, 교수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농활이라는 연대활동의 주체였던 '농민회'의 태도이다. 학생회 측에서는 이번 사건의 비대위를 꾸리고 농민회와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함께 진행 하였지만 그곳에서 이번 사건이 성폭력이다 아니다가 논점이 되었던 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성폭력이라는 것은 대책위에 참석했던 농민회분들도 모두가 인정했던 것이고 오히려 쟁점은 이번 사건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었다. 학생회 측은 성폭력 사건이 특수한 개인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 모순에 기반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에 가해자나 책임 주체인 농민회를 처벌하는 것만이 해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농촌의 정서'를 고려하여 실명공개 사과에 대한 요구는 제기하지조차 않았다. 다만 학생회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농민회와 함께 성폭력 사건은 여남이 평등하지 않은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학생회 측에서는 1차 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사건 해결을 위해 농민회와 농활대에게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고 명확한 입장과 사건 예방의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건 해결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농민회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반대하였고 그 이유는 농촌의 정서상 앞으로 있을 쌀 개방 반대 투쟁이나 기타 사안들에 있어서 농민회가 입게 될 타격이 너무 클 것이라는 점이었다. 학생회 측에서는 그 후 농민회에서 이야기한 농촌의 정서라는 것을 존중하여 농활대 전체와 농민회에는 농활 대가 들어가 있는 마을의 주체 분들에게 까지만 이 사건을 제한적으로 공론화하기를 제안하였고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농민회 측에서는 마을 주체들에게 공개 되는 것은 결국 마을 전체에 알려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답하였고 첫째, 가해자가 직접적인 농민회 회원이 아니라는 점과 둘째, 사건이 농촌에서 발생한 농활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잘못된 상황 (즉 사무실에서 술을 먹었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농민회가 그렇게 타격을 입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이번 사건의 공개를 반대하였다. 이에 학생회 측에서는 이번 농활이 농민회와 각 단위 학생회가 활동의 목표와 활동상을 합의하고 진행한 이상 농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민회와의 소통 속에서 농활을 진행하는 것이 일정부분 당연하며 사건 전의 술자리도 농활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또한 가해자가 농민회 회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주체인 농민회에서 최소한 사건을 공유하고 앞으로 성폭력과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입장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느 집단에서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동체가 함께 공감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들을 해나가야만 발전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개를 억울해하고 일단은 개인적인 사과로 그치자는 농민회의 요구는 현재 농촌 사회와 작게는 농민회 안에 존재하는 가부장성과 남성 중심적 운동을 고쳐나갈 의지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에 학생회 측에서는 이번 사건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기존에 합의했던 연대의 원칙이 더 이상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농활대 전체의 철수를 권고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이번 농활대 철수의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번 사건을 순진한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학생들의 문제로 보는 것은 사건을 전혀 잘못 인식하는 것이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차 3차의 깊은 상처만을 주고 있을 뿐이다.
연대 주체의 동등함과 연대의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활동은 전면 재사고 되어야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어느 신문의 보도 제목 마냥 농활은 '봉사활동' 이 아니다. 농활은 농민과 학생의 연대 활동이며 이는 두 주체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연대의 상과 기조를 잡아 진행하는 정치 사업의 하나이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연대활동 과정 중에 벌어진 일이었으며 그것은 주체간의 공동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농민회의 잘못만은 얘기한 적이 없으며 성폭력 사건의 발생할시 그것을 해결할 어떠한 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농활을 강행한 학생회 측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이번 사건을 그저 덮어 두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건에 대한 농민회 측에서의 대응은 사실상 이번 사건을 은폐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 판단했고 그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나 확연했기에 이번 2004년 농민학생 연대활동의 연대는 깨어졌으며, 애초에 합의했던 '반성폭력, 반성차별'의 기조역시 더 이상 이행이 불가능 해졌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대의 결렬, 성폭력 사건의 미해결의 이유로 사회대 농활대 중앙집행부의 해소를 결의하였고 각 과반 농활대의 철수권고를 내렸던 것이다. 철수 권고를 받아들인 과반도 있고 잔류를 결정한 과반도 있지만 잔류를 선택한 과반의 농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회대-농민회 두 주체가 진행하는 농활은 아니며 그저 과반 단위의 자체적 농활일 뿐이라고 모든 과반이 합의를 한 상황이었다.
농활은 연대 사업이며 정치 활동 이고 농활에 들어가는 마을을 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농민회에 있기에, 농민회라는 지속적인 농촌 지역의 운동체가 없다면 학생들 스스로만의 자체적인 농촌연대활동이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그렇기에 현재의 틀거리에서 진행되는 농활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논의 과정을 통해 아산시 농민회가 성폭력 사건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농활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대의 조건 자체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농민회 측에서 학생들을 동등한 연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성폭력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대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혹은 그 외의 시공간에서 상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적인 공동체의 노력과 공동체의 책임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농민회와 학생회가 함께 추진하는 '농민학생 연대활동'의 지속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중운동을 고민하는 학생회의 일원으로써 본 사건에 매우 유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철수'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진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번 사건이 하나의 희생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행위 까지'가 있었는지, 혹은 '아가씨'라 부르는 것이 성폭력인가 하는 질문만 던지고 마는 등의 각자의 주관적인 관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 여성적인 요소들이 산재해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여성이 현장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경험일 수 있는지를 공감하고,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적 상황들을 근절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는 양성평등한 현장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여성 배제적이지 않은 사회와 하나의 운동을 위해 농민회 측에서의 책임있는 평가와 실천을 통해 진정한 농민학생 연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상의 입장서는 명확히 2004년 사회대 농민학생 연대활동에만 근거한 것이며, 이외의 관악에서 이루어질 현장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이후의 대책에 대한 논의와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2004. 7. 9 진보의 요람 제 22대 사회대 학생회

반방 미화와 같이 기초적인 반 운영에 관한 일반 학우의 글 역시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다. 지면이 충분치 않아 모두 첨부하지는 못하지만 반방 미화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고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A4 1.5매 정도 분량의 입장문, 발제문이 있을 정도로 사소한(?)문제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을 진행하신 선배님들의 열의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나가며

조사 결과 학생회의 위기는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었다. 언제나 우리는 위기에 처해있었고, 이를 극복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았다.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추후 특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어떤 방법론이든 선배님들과 같은 열의와 정열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불혹의 나이가 되신 선배님의 말씀을 끝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라-지난 1년간 학생회 활동을 되돌아보며 든 생각이다. 선본 구성 당시의 가장 치열한 고민과 열정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활동을 하며 힘이 빠질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이 선본을 꾸릴 때의 고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회의 원칙은 활동가 내부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활동가 간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구심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회 민주주의는 요원하기만 하다. 선거할 때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동가의 내부 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과/반특위 2차 과제 - 겨레반

--

1.90년대 후반 ~ 2000년대 중반

1)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반 내 집행부가 사무국/정치부/문화부/학술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 물론 지금(2017)도 반 내 집행부를 팀이나 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하지만 확실히 과/반 학생회가 돌아가는 '수준'은 당시와 지금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사무국은 학생회칙 개정이나 학생회비 관리(회계), 운영위원회 활동보고, 사물함 및 과방 관리, 총회 조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반의 기초적인 행정 업무를 주로 처리하되 여타 사업들에 관해서도 총괄하는 조직의 느낌.
정치부는 이름 자체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치의제를 선도하고 정치적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내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정치부 내부에서 꾸준히 세미나를 진행한다. 학내·학외의 정치행사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정치/비정치를 가르는 것은 애매하지만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부르는 각종 문제들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문화부는 학내의 각종 문화행사를 조직하고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지리학과 반 소식지를 만드는 일을 한다. 충격적인 건 6~8면 정도의 소식지를(용지 크기는 모름) 무려 매달 냈다는 것. 소식지를 내는 데 드는 노력을 생각하면 반 내 집행부가 얼마나 활성화되어있는지를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학생자치 위기론'은 역시나 있었던 것 같다.
** 학생사회에 대한 고민 - 2004년 새터 자료집 65쪽 발췌*

"요즈음 학생 사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과/반 학생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반 학생회 역시 그렇게 순탄하게 나아가고 있지만 않습니다. ... 모두가 함께 하는 학생회가 아닌 몇몇 학웅가 주도하는 학생회가 되어간다, 의사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회가 반 사람들의 생각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2)학회 및 학술제

학회가 평소에 다루던 주제들이 어떠했는가, 그들이 생산한 담론의 깊이는 어떠했고 얼마나 자주 만났고 등을 자세히 적지는 않는다. 대신 학술제의 주제·문제의식, 학술제의 의미와 위상을 밝히는 것으로 당시 학회가 운영되던 전반적인 모습을 간접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제 1회 지리학과 학술제 - 하나된 조국을 위하여 (1998)
※제 2회 지리학과 학술제 - 너희가 북한을 아느냐! (1999)
※제 4회 지리학과 학술제 (2001)

① 주제와 문제의식

제 1회 학술제의 주제가 '통일'이고 제 2회 학술제의 주제가 '이북 바로알기'다. 두 학술제 모두 북한과 관

련된 주제를 선정했다. 이렇듯 제 1회, 2회 지리학과 학술제는 먼저 학술제의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에 맞게 각 학회의 특성을 살려 준비했다. 예컨대 새창은 '통일과 언론'이라는 주제, 열가는 '분단을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 현세련은 '90년대 이후 북미관계'에 대해 학술활동을 진행했다. 아무래도 제 1회, 2회 학술제가 진행될 시대적 배경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창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인 것 같다. 제 4회 학술제는 현재처럼 학회별로 각각 하고 싶은 주제를 정했는데 한뿌리는 '역사적 전환기의 인식', 철모는 '사회주의'에 대해 다뤘다.

초기 3번의 학술제 모두 현실에서 느끼는 무언가가 뚜렷했고 학회의 1년 활동을 정리하고 축적하여 성과를 남기고자하는 분명한 목적에서 출발했음을 여러 후기, 서론에서 파악할 수 있다. 조사한 모든 학술제가 그렇지만 특히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학술제가 출발했다는 것은 제 1회 학술제에서 많이 느껴졌다. 표지에는 학술제 일시 : 통일염원 44년(1998년)으로 되어있어, 학술제 당시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다. 1회 학술제 자료집은 열가족장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인의 생각이 담긴 많은 낙서가 남아있다.

"자주,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노동해방, 민중권력 쟁취 / 반미자주, 민족자주 /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위한 연방제 통일 / 남북학생 체육대회 성사, 남북 문화유적 학술답사" 등등 수 많은 낙서가 있다.

또한 2회 학술제의 부제도 '이북 바로알기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조국통일의 첫걸음'으로 현실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학술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수없이 많이 나오는 학회 구호 (구국의 강철대오,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함성 등등)에서도 이를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기층에서 활발히 공유되던 상황이니까 학회활동 학술제가 흥하지 않았나 싶다.

② 학술제의 의미와 위상

일단 학술적 기능이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다. 단순 분량비교는 그렇지만 제 2회 학술제의 어느 학회의 자료집 분량이 무려 51쪽을 차지하는 등, 현재 학술제 자료집 전체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지금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학술적 조사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렇다보니까 학술제 자료집에서 학회 나름대로 현실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자기들끼리의 결론을 내버리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또한 학회별로 쓴 학술제 후기에 대부분 며칠간 밤새서 준비했다는 후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열성적으로 학회활동에 학회원들이 임했음을 알 수 있다(05년 자료집을 보면 학회별로 무려 7권의 책을 선정하여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한다). 학회 차원에서 학술활동을 깊이 있게 하다보니까 대학강의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새로운 지식, 이치를 얻어간다는 후기를 보면서 학회에서 '학'의 순기능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학술제를 준비하는 과정, 학술제 당일, 학술제 이후에도 학술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활발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학회의 머리말
"학술제는 지난 한 학기동안 학회 속에서 배우고 논쟁하고 공유한 우리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다른 지리학과 학우들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자리다. 지난 반년동안 함께 사회에 대한 시각~~~ 등을 이 자리에서.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제 1회 학술제 당시 열가 족장이 새창 학우들한테 보내는 쓴소리

"중요한 것은 '언론비판'이 아닌 '통일'이 아닐까요? '통일을 지향하는 언론'이 보이지 않는군요. 단순한 반

통일적 언론을 욕하기 보다는 가장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가야하지 않을까요? 통일의 기본원칙, 통일의 5대 과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언론'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지..."

3)소모임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여성주의 소모임이 있었다는 것. 여성주의 담론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폭넓었음을 유추가능.
덧붙여서 소모임원들끼리 모이는 빈도가 지금보다 잦았던 것 같다.

4)정치성
설명이 필요한가? 집행부에 무려 '정치국'이 있다. 위에 적은 학술제에 관한 내용에서도 정치적 이슈가 심도있게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사회에서 정치적 공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새맞이 자료집 내용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여성인권/성소수자/사회문제(ex 조교수 재임용 실패에 관한 사건,FTA문제,미군 장갑차 사건)/통일/장애인권/국보법/등의 주제를 다룬 글들이 자료집에 실려 있다. 물론 2015~16년도 새맞이 자료집을 준비할 때 다른 반의 자료집을 참고하면서 교양 내용이 실린 경우를 봤긴 했는데, 확실히 예전 자료집의 교양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풍부하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 듯하다.
3.8여성의날 / 4.19기념일 행진/ 4.28추모식 등의 행사들이 과/반 차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총평: 학생자치가 훨씬 활발했었다는 느낌. 전반적으로 학생회의 위상이 높은 느낌이 들었음. 지금과는 다르게 학기 초에 해오름제 즈음해서(해오름제 당일?) '학생회 출범식'을 하기도 하고, 새맞이 자료집에서 학생회를 소개하는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도 보이고.
학생회가 비중 있게(크게) 준비하는 사업들이야 지금과 비슷하다. 다만 학생 자치가 일상적으로 기능하는 수준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어 보인다. 특히 친목활동 말고 세미나류 활동에서의 차이가 크다(물론 친목도 비할 바가 못 되는 듯). 지금은 이때와 비교하면 '담론'이란 것이 많이 죽었다.

2.2000년대 중후반~현재

1)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다만 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 집행부가 사무국/정치부/문화부/학술부로 세분화되던 전통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 2006년 자료집을 살펴보면 집행부에 자치부, 학술부 총 2부서만 존재하게 된다. 2007년 자료집을 보면, 집부 구성 안내, 학생회 등에 대한 언급 거의 없어지고 집행부의 부서가 모두 사라지는 것(아예 안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추측)으로 보인다. 요컨대 사무국장,정치부장,문화부장,학술부장이 운위의 구성원이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서서히 사라진 것이다. 이는 학생자치의 쇠퇴 경향을 반영하는 현상인 듯이 보인다. 과/반 학생회 수준에서 집행부를 4단위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참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이하 생략.
문서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 집행부의 각 부서가 사라진 이후로 집행부의 위상·기능이 계속해서 쇠퇴하였고, 집행부의 유명무실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의 유명무실화는 특히 학생회의 일상적인 '정치', '담론생산' 기능이 상당히 쇠락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특정 긴급 사안이 터져 나올 때나 개강/종강시즌 등 특수한 시기일 때 여전히 정치적 담론이나 공론장이 형성되는 것은 맞으나, 학생회가 '일상적으로' 담론을 생산해내는 힘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는 학생회만의 탓은 아니다. 무튼. 이 같은 쇠퇴경향에 대해서는 구태여 더 언급하지 않겠다.

2)학회 및 학술제
※학회/학술제 자료는 2010년도 이후 자료를 참고하였다. 2000년대 후반 자료가 딱히 남아있지 않다.

① 주제와 문제의식

2010년대에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세미나의 주제들이 2000년대 중반까지의 주제들에 비해 '탈정치적'으로 변모했다고 말할 수 있을 듯싶다.

가령 예시를 들면(나열).

2010년도 학술제 발표 주제
한뿌리 : 고종을 둘러싼 오해; 고종시대의 재조명
새창: 언론의 어젠다 세팅/게이트 키핑
현세련: 북한의 후계문제
열가: 연애에 관한 연극
철모: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분석 : 동성애에 관하여

2012년도 학술제 발표 주제
새세창: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한뿌리: 13대 대선 vs 18대 대선 비교
현세련: 난민인가 불법월경자인가? :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둘러싼 논점
철모: 범죄와 복수, 그리고 응징
열가: 사랑 : 소설 〈아우라〉를 중심으로

2013년도 학술제 발표 주제
열가: 작품 속 수양대군의 모습
현세련: 포퓰리즘과 스윙보트
철모: 잉여
새창: 감시사회, 우리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한뿌리: 승자의 역사와 현대사회-소현세자와 사도세자,연애병사 사건을 중심으로

2014 학술제 발표 주제
새창: 미디어를 통한 기만의 사례
한뿌리: 권력다툼의 결과: 천도운동 - 서경천도운동을 중심으로
철모: 거짓말에 관하여
현세련: 정치인의 사생활
열가: 번식의 변천

딱 봐도 주제가 상당히 '가벼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학술제/학회의 의미와 위상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학회가 나름 잘 돌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0년 새창(언론학

회)MT에 무려 30명의 학우들이 참여. 고학번과 저학번 학회원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보인다. 학회의 운영 또한 체계적인데, 세미나 주제부터 Ts여행지까지 계획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 같다(지금도 이걸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다르다). 세미나 횟수도 많고 프로그램의 퀄리티도 높은 느낌. 학기중 세미나 운영도 지금처럼 학회별 '세미나 책(담당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회원 개인별로 주제를 하나씩 맡아서 하는 것 같다. 학술제의 경우에도 겨레반 '대동제'정도의 위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대략 2013~14년 즈음) TS에서 세미나를 진행하지 않는 학회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학회의 활성화 정도도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3)소모임
지금과 큰 차이는 없다

4)정치성
길게 언급하지 않겠다. 예전에 비해 상당히 쇠퇴해있다. 학생회의 담론생산 능력의 쇠락과 과/반 자치문화의 '탈정치'흐름이 맞물리는 것 같다.

=>총평
과/반이라는 공동체의 정치성이 비교적 상당히 지워진 느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던 것은 친목공동체로서 과/반 학생회가 2010년대 초반까지는 꽤나 충실히 기능했다는 점이다. 특히 3학년이 되면 과/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요즘과 달리 고학번과의 연계가 상당히 활발한 모습이 보이고(이는 2000년대도 마찬가지). 학회의 운영 또한 -주제면에서의 변화가 포착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다.

검토 결과 과/반의 '운영 방법'측면에서 엄청나게 창의적이라거나 참신한 사례를 발견하기는 힘든 것 같다. 학생회 출범식을 한다거나 자료집에 학생회 소개 내용, 교양 내용을 충실히·풍부하게 넣는 것, 집행부의 운영을 4개의 부로 나누고 각 부서마다 장을 두어 사업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방식, 학회 행사를 고학번과 연계한다거나 세미나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등의 방법은 물론 좋은 참고사례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학생사회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있을 때 어렵지 않게 생각·실천해볼 수 있음직한 방법들이 아닌가?
그래도 이런 참고사례들을 (역량이 된다면) 실제로 의욕 있는 학생회장들이 시도하다보면 작은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편집노동 제35대 사회대 정학생회장 유진
제작 제35대 관악 사회대 학생회
펴낸날 2017년 8월 14일

이 자료집을 펴내는 데 수고해주신 모든 인쇄 노동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